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⑨  
경남 지역농업 사례

김 병 택 (경상대 교수)

정 정 석 (경상대 조교)

빈 면

## 머 리 말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안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상업적 영농하에서 부가가치를 효과적으로 높이고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육성시키며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며 농업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지역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연구원은 道를 기준으로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연구를 추진해 왔는데, 이 보고서는 경남지역 농업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한 결과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개방화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경남지역농업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정책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이 연구를 담당하신 경상대학교 金秉鐸 교수, 정정석 조교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1990. 12.

院長 許 信 行

빈 면

# 目 次

## 第1章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目的	2
3. 研究方法	3

## 第2章 慶南 地域 農業 與件과 生産基盤

1. 課 題	5
2. 慶南 地域의 經濟構造	7
3. 營農立地條件	14
4. 農業生産 主體	24
5. 農耕地 保有現況	32

## 第3章 地域農業의 成長

1. 課 題	37
2. 農地基盤 擴充	38
3. 農業機械化	49
4. 耕種作物 生産	60
5. 畜産 發展	85

## 第4章 慶南 地域 農業構造의 特殊性

1. 課 題	99
2. 農産物 生産構造	100

3. 地域別 特化作目 .....	119
4. 特化作目の 變動 .....	128
第 5 章 地域農業 發展戰略	
1. 課 題 .....	139
2. 構造改善과 耕作規模 擴大 .....	140
3. 生産構造 改善 .....	148
4. 經濟類型別 農家育成 .....	156
第 6 章 要約 및 結論 .....	163

## 表 目 次

### 第 2 章

表 2-1 GNP와 GRP의 産業別 構成比 .....	9
表 2-2 地域別 産業構造와 1人當 GRP, 1985 .....	10
表 2-3 慶南의 市郡別 工業集中度 .....	13
表 2-4 市郡別 主要 農業氣象 指標 .....	16
表 2-5 地域別 耕地率과 畝率, 1988 .....	20
表 2-6 標高別 耕地面積 構成比, 1985 .....	21
表 2-7 耕地率, 畝率에 의한 地帶區分 .....	22
票 2-8 農家戶數 및 農家人口의 變動, 1960~88 .....	25
表 2-9 地域別 農家戶數 및 農家人口, 1988 .....	27
表 2-10 就業 類型別 農家戶數, 1988 .....	29
表 2-11 慶南의 年齡別 農家人口, 1970~88 .....	31
表 2-12 市道別 耕地規模, 1988 .....	33
表 2-13 慶南의 耕地規模 變動, 1960~88 .....	34
表 2-14 耕作規模別 農家分析, 1988 .....	35

### 第 3 章

表 3-1 農地改良事業의 內容別 分類 .....	39
表 3-2 市道別 水利畝 現況, 1988 .....	40
表 3-3 慶南의 水利畝 面積, 1965~88 .....	41
表 3-4 市郡別 水利畝 現況, 1988 .....	42
表 3-5 慶南의 畝 耕地整理 現況, 1965~88 .....	44

表 3-6 耕地整理畝의 道別 比較, 1988 .....	45
表 3-7 市郡別 耕地整理 現況, 1988 .....	47
表 3-8 慶南의 主要 農機械 保有 現況, 1970~88 .....	52
表 3-9 道別 主要 農機械 普及率, 1988 .....	53
表 3-10 市道別 機械化營農團 育成 現況, 1988 .....	55
表 3-11 地域別 機械化營農團 育成 現況, 1981~88 .....	57
表 3-12 地域別 主要 農機械 保有臺數, 1988 .....	59
表 3-13 期間別 主要 作目 植付面積 年平均 增減率 .....	62
表 3-14 主要 作目 段收의 期間別 年平均 增減率 .....	72
表 3-15 主要作目 生産量의 期間別 年平均 增減率 .....	79
表 3-16 慶南의 主要 家畜 飼育 現況, 1975~88 .....	86
表 3-17 韓牛 飼育規模別 農家戶數 分布, 1975~88 .....	88
表 3-18 乳牛 飼育規模別 農家戶數 分布, 1976~88 .....	90
表 3-19 돼지 飼育規模別 農家戶數 分布, 1975~88 .....	92
表 3-20 慶南의 草地造成 現況, 1976~88 .....	94
表 3-21 地域別 草地造成 現況, 1982~88 .....	95
表 3-22 地域別 草地利用 現況, 1988 .....	97

#### 第 4 章

表 4-1 慶南의 主要 作目別 植付面積 變動, 1960~88 .....	101
表 4-2 主要 農産物 植付面積의 地域間 比較, 1988 .....	104
表 4-3 施設 園藝作物 植付面積의 地域間 比較, 1988 .....	105
表 4-4 慶南의 施設菜蔬 栽培面積, 1988 .....	107
表 4-5 主要 施設果菜類 栽培面積의 地域別 分布, 1988 .....	109
表 4-6 果實類 植栽面積의 地域間 比較, 1988 .....	111
表 4-7 全國 地域別 主要 家畜 飼育 現況, 1988 .....	112
表 4-8 韓牛 飼育規模別 農家戶數의 地域間 比較, 1988 .....	114
表 4-9 젓소 飼育規模別 農家戶數의 地域間 比較, 1988 .....	115

表 4-10 돼지 飼育規模別 農家戶數의 地域間 比較, 1988	117
表 4-11 닭 飼育規模別 農家戶數의 地域間 比較, 1988	118
表 4-12 晋陽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30
表 4-13 金海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31
表 4-14 蔚山市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32
表 4-15 梁山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33
表 4-16 晋州市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35
表 4-17 宜寧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35
表 4-18 昌寧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37
表 4-19 密陽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37
表 4-20 梁山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38

## 第 5 章

表 5-1 耕作規模別 農家戶數 分布, 1955~88	145
表 5-2 陝川郡의 耕作規模別 農家 構成比, 1970~87	146
表 5-3 密陽郡의 耕作規模別 農家戶數, 1970~87	147
表 5-4 金海市の 耕作規模別 農家戶數 分布, 1982~89	147
表 5-5 地域別 施設花卉 栽培面積, 1988	151
表 5-6 山淸郡의 蠶業指標, 1975~87	154
表 5-7 咸陽郡의 蠶業指標, 1970~85	155

## 附 表

부표 1 경남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66
부표 2 마산시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66
부표 3 진주시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67
부표 4 진해시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67
부표 5 충무시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68
부표 6 삼천포시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68

부표 7	함안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69
부표 8	창녕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69
부표 9	의창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70
부표 10	사천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70
부표 11	의령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71
부표 12	밀양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71
부표 13	울주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72
부표 14	고성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72
부표 15	하동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73
부표 16	함양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73
부표 17	거창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74
부표 18	합천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74
부표 19	거제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75
부표 20	남해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75
부표 21	통영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76
부표 22	산청군 제1기의 특화작목 이동	176
부표 23	경남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77
부표 24	마산시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77
부표 25	울산시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78
부표 26	창원시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78
부표 27	진해시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79
부표 28	충무시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79
부표 29	삼천포시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0
부표 30	함안군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0
부표 31	김해군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1
부표 32	의창군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1
부표 33	사천군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2
부표 34	진양군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2

부표 35	울주군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3
부표 36	고성군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3
부표 37	하동군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4
부표 38	함양군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4
부표 39	거창군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5
부표 40	합천군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5
부표 41	거제군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6
부표 42	남해군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6
부표 43	통영군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7
부표 44	산청군 제2기의 특화작목 이동	187

## 圖 目 次

### 第 2 章

圖 2-1 慶尙南道 開發軸 .....	8
圖 2-2 自然條件에 의한 農業地帶 區分 .....	17
圖 2-3 慶南의 農業地帶 .....	19
圖 2-4 耕地率에 의한 農業地帶 區分 .....	22
圖 2-5 畝率에 의한 農業地帶 區分 .....	23

### 第 3 章

圖 3-1 主穀 植付面積 指數, 1961~87 .....	63
圖 3-2 雜穀, 豆類, 薯類 植付面積 指數, 1961~87 .....	63
圖 3-3 김장채소 植付面積 指數, 1961~87 .....	66
圖 3-4 노지오이, 노지호박 植付面積 指數, 1961~87 .....	66
圖 3-5 主要 果菜類 植付面積 指數, 1961~87 .....	68
圖 3-6 主要 양념 菜蔬類 植付面積 指數, 1986~87 .....	68
圖 3-7 主要 果實類 植付面積 指數, 1961~87 .....	70
圖 3-8 포도, 감 植付面積 指數, 1961~87 .....	70
圖 3-9 主要 特用作物 植付面積 指數, 1961~87 .....	71
圖 3-10 主要 穀類 段收 指數, 1961~87 .....	73
圖 3-11 薯類, 大豆 段收 指數, 1961~87 .....	73
圖 3-12 主要 菜蔬類 段收 指數, 1961~87 .....	74
圖 3-13 主要 果菜類 段收 指數, 1961~87 .....	75
圖 3-14 양념菜蔬類 段收 指數, 1961~87 .....	76

圖 3-15 主要 果實類의 段收 指數, 1961~87 .....	77
圖 3-16 참깨, 들깨의 段收 指數, 1961~87 .....	77
圖 3-17 主穀의 生産量 指數, 1961~87 .....	80
圖 3-18 雜穀, 豆類, 薯類의 生産量 指數, 1961~87 .....	80
圖 3-19 菜蔬類 및 果實類의 生産量 指數, 1961~87 .....	82
圖 3-20 김장菜蔬의 生産量 指數, 1961~87 .....	82
圖 3-21 오이, 호박의 生産量 指數, 1961~87 .....	83
圖 3-22 主要 果菜類의 生産量 指數, 1961~87 .....	83
圖 3-23 양념채소의 生産量 指數, 1961~87 .....	84
圖 3-24 主要 果實類의 生産量 指數, 1961~87 .....	85
圖 3-25 송아지와 成牛의 價格變動, 1977~87 .....	87

빈 면

# 第 1 章

## 序 論

### 1. 研究의 必要性

農業分野從事者 1인당 소득이 非農業分野從事者의 소득에 비해 낮은 요인은 勞動性産性的의 격차와 農家交易條件의 악화이다. 그러므로 農業所得을 높이기 위해서는 農業勞動生産性を 제고시키거나 農家の 交易條件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勞動生産性を 높이려면 經營規模를 확대하여야 하고 農家交易條件을 개선하려면 農産物價格을 지지해 주든지 生産要素價格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年間所得을 비교할 때는 兩者間에 연간 勞動日數가 동일하다는 前提條件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農家の 연간 農業 노동일수는 200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時間當 勞動報酬가 높고 연간 노동일수를 높일 수 있도록 作目を 결합시켜야 하는데, 이를 통상 生産構造 改善이라 한다.

그러므로 農業所得을 증대시키기 위한 政策手段의 골격은 規模擴大, 生産構造改善, 農産物價格支持 등이다. 여기서 農産物價格支持는 中央

政府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하나 開放經濟下에서는 그 한계를 수궁하지 않을 수 없다. 規模擴大를 위한 農業構造改善이나 農産物 生産構造改善 등의 과제는 地域次元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즉, 특정 지역이 처해 있는 經濟的 立地條件, 農業生産條件, 지역의 賦存資源, 技術水準 등을 고려하여 國際間 혹은 타지역에 대하여 比較 優位에 있는 作目を 개발하여 시간당 勞動報酬가 높고 年間勞動日數를 늘일 수 있도록 生産構造를 개선하여야 한다. 나아가 地域特性을 고려하여 勞動生産性を 높일 수 있도록 生産主體의 성격과 그 분포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農家の 内部經營條件을 고려하여 농가를 선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當面課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地域農業이 처해 있는 經濟的 背景, 農業生産의 技術的 特殊性, 成長過程 등을 분석하여 地域農業의 發展戰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全國水準에서 農業問題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農業政策의 목표가 단순한 食糧增産에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中央政府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政策手段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農業所得增大에 초점을 맞춘다면 中央單位의 農業政策은 支持政策을 제외하고는 한계가 크다. 이의 좋은 본보기가 複合營農政策이라 할 수 있는데, 地域實情이 무시된 生産構造改善政策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결국 地域單位에서 農業構造의 특성을 地域市場과 관련시켜 파악하고 분석하여 地域實情에 맞는 農業發展戰略을 수립하여 地方政府가 이를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地域農業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타지역에서는 地域農業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慶南地域에는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 2. 研究目的

農業發展行政의 地方化에 부응하여, 慶南地域 農業構造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農家の 農業所得을 증대시키고 地域經濟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慶南農業의 發展戰略을 마련하는 데 研究目的을 두었고 구체적인 研究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地域農業發展의 外部與件인 地域經濟構造를 고찰하고 地域經濟에서 차지하는 農業의 중요성을 검토한다.

둘째, 地域農業의 특수성을 규정짓는 營農立地條件, 農業生産 基盤條件, 農業生産主體의 특질 등 地域農業의 內部條件을 분석한다.

셋째, 地域農業의 成長過程과 發展水準을 분석한다.

넷째, 地域農業構造의 특수성 나아가 農業 生産構造改善의 進行과정과 制約要因을 밝혀 낸다.

다섯째, 分析結果를 바탕으로 하여 地域農業의 發展戰略을 모색해 본다.

## 3. 研究方法

研究目的 달성에 필요로 하는 資料는 주로 2次 統計資料를 이용하였다. 地域農業을 연구에서 가장 큰 애로는 統計資料 이용이다. 道를 기준으로 한 農業統計로는 農林水産部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標本統計가 있으나 소급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연도가 얼마되지 않는다. 郡單位의 統計는 行政統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標本統計와 行政統計를 병행해서 이용하였다. 즉, 慶南農業의 특수성을 분석할 목적으로 다른 道와 비교하는 데 필요한 統計資料는 農林水産部에서 발표한 標本統計를 이용하였다. 慶南農業의 성장을 분석하고 慶南內의 地域間에 農業을 비교할 때는 行政統計를 이용

하였다.

아울러 기타 필요한 資料는 關係 行政機關을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慶南農業의 문제점과 發展戰略에 관해서는 關係機關 從事者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참고로 했다.

## 第 2 章

# 慶南地域 農業 與件과 生産基盤

### 1. 課 題

有機物을 생산하는 農業은 無機物 내지는 無形의 用役을 생산하는 非農業과는 根本的인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非農業에 비해 농업이 갖는 특수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農業生産主體로서 「農家」가 갖는 특수성이다. 非農業分野에 있어 生産主體는 企業이고 기업의 經濟活動 목표는 利潤極大化이다. 그러나 農業의 生産主體인 농가는 利潤極大化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특히, 小農經濟下에 있는 농가는 消費活動과 生産活動이 결합되어 있다. 소비활동의 목표는 效用極大化이고, 생산활동의 목표는 經濟條件에 따라 다양한데, 自家食糧 生産極大化, 所得極大化, 혹은 利潤極大化이다. 그러나 農家の 궁극적인 경제활동의 목표는 효용극대화이다. 또한 非農業分野에 취업할 때는 勞動者로서 행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농가는 消費者, 生産者, 勞動者의 複合體라 할 수 있다.

生産主體인 농가의 특질을 잘 이해한 후에 政策目標을 설정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政策手段이 선정되어야만 주어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農業生産의 技術的 특수성이다. 農業生産은 有機物을 생산하거나 기르게 되므로 自然條件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생산되는 품목 혹은 比較優位에 있는 特化品目은 自然條件에 의해 결정된다. 아울러 생산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생산의 季節性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價格이 季節變動을 띠게 된다. 아울러 單位 面積當 收量의 변동이 심해 價格의 年次變動이 심하다.

또한 工產品 生産過程에서는 勞動主體는 이동하지 않고 勞動對象을 이동시켜 작업하지만 農業生産에서는 노동대상은 움직이지 않고 노동주체와 노동수단이 이동하여 작업한다. 그러므로 農業生産에서는 規模의 經濟가 발휘되는 정도가 工業에 비해 약하다.

아울러 土地가 중요한 生産手段이므로 農地의 소유관계가 農業生産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農業生産者의 厚生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農地制度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農産物이 갖는 商品的 특질을 들 수 있다. 판매목적으로 생산한 農産物은 유기물이므로 부패하기 쉽고 부가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다.

이러한 특수성에 의해 農産物의 價格形成 내지는 農産物流通에 있어 非農産物과 상이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農業의 특수성은 農業經濟를 규정하는 본질임은 말할 것도 없다. 아울러 農業問題를 해결하는 政策手段은 이러한 농업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地域農業의 發展戰略을 찾기 위해서는 地域經濟에서 차지하는 農業의 位相이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章에는 慶南地域의 經濟與件을 개략적으로 고찰하고 慶南 農業의 立地條件과 生産基盤을 고찰한다.

## 2. 慶南 地域의 經濟構造

### 가. 地域經濟 與件

慶南의 總面積은 1,186千ha로 全國土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의 13개 市·道 중에서 4위에 이르고 있다.

總人口는 1985년 현재 351萬명으로 全國 總人口의 8.7%를 차지하며 인구의 크기로는 전국에서 4位이다. 한편 總인구에서 차지하는 都市人口의 비율은 經濟開發 初期段階인 1965년에는 26.6%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에 와서는 그 비율이 63.4%로 급증하였다. 즉, 經濟成長과 더불어 都市化가 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全國의 都市人口比率 77.3%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나. 廣域 經濟圈 設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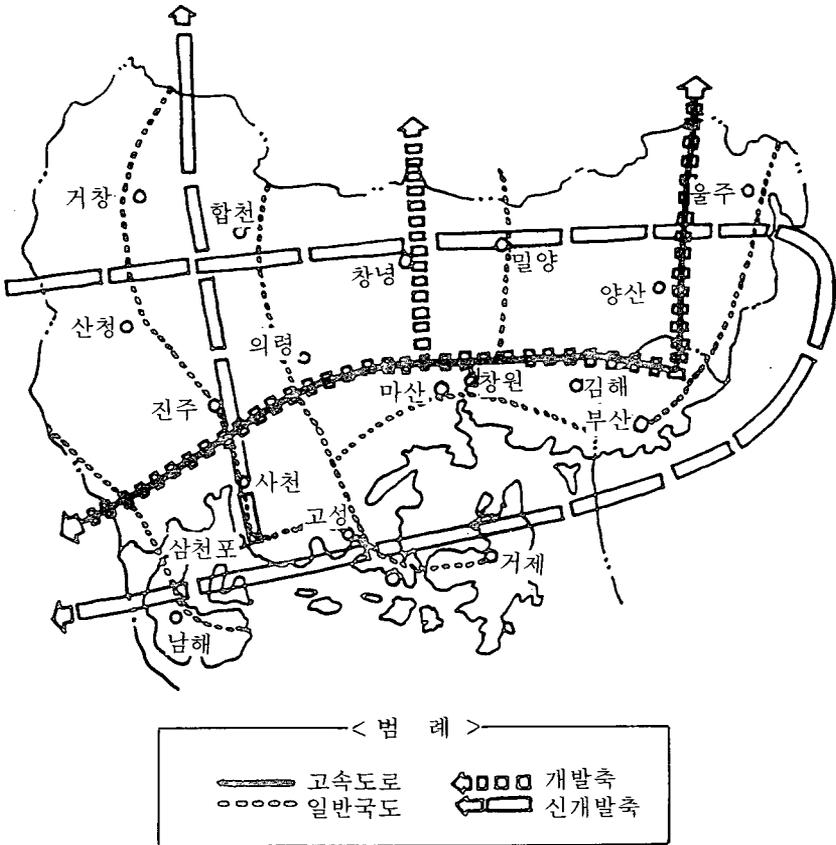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經濟開發政策의 수행과정에서 慶南은 他地域에 비해 工業化가 빨랐다. 慶南地域에는 東南海岸을 따라 臨海工業團地 혹은 基幹産業 工業團地가 조성되어 工業地帶가 형성되었다. 工業團地가 조성된 地域은 蔚山·蔚州·梁山·金海·昌原·馬山 등이다.

이에 따라 <圖 2-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蔚山 →梁山 →釜山 →金海 →昌原 →馬山 →晉州 →順川으로 연결하는 開發軸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馬山地域에 소재하고 있는 工場이 馬山과 大邱를 연결하는 國道를 따라 분산해 감에 따라 昌原 →馬山 →昌寧 →大邱로 이어지는 개발축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西部慶南地域에는 工業化가 낙후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三千浦 →晉州 →居昌 →大邱로 연결하는 새로운 개발축을 개발하는 方案도 강구하여야 한다.

한편 慶南地域은 東部圈, 中部圈, 西部圈 등의 廣域經濟圈으로 나누어지는데 各 圈域에 속하는 市·郡은 <表 2-2>에 제시되어 있다.

圖 2-1 慶尙南道 開發軸



다. 産業構造

慶南의 地域總生産額(GRP)에서 차지하는 農林水産業 生産額의 構成比는 14.9%(1985년)로 全國의 GNP에서 차지하는 1次産業의 構成比 13.9%에 비해 약간 높다. 그러나 鑛工業部門의 構成비를 보면, 全國은 31.6%인데 비해 慶南은 50.7%로 월등히 높다<表 2-1>. 반면에 3次産業의 構成비는 全國의 55.3%에 비해 慶南은 33.3%로 전국에 비해 뒤지고 있다.

GRP에서 차지하는 産業別 구성비의 변화를 보면, 지난 5년간 1次産業의 구성비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2次産業은 확대되었으나 3次産業은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경남은 전국에 비해 鑛工業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産業構造를 이루고 있으나 3次産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이 要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經濟開發政策 수행과정에서 慶南의 臨海地域에 重化學工業基地를 집중적으로 조성한 결과 2次産業이 급성장하였다.

둘째, 慶南의 中心부에 釜山市가 위치하고 있어 廣域生活圈 中心地는 釜山을 核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慶南의 서비스산업 중 많은 부분은 釜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3次産業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慶南의 산업 중에서 광공업이 급격하게 성장됨에 따라 産業構造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産業構造의 改善程度는 地域間에 격차가 크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표 2-2〉에서는 GRP의 産業別 구성비와 1인당 GRP 및 人口 등이 市郡別로 제시되어 있다. GRP에서 차지하는 鑛工業의 비중이 市와 郡間에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郡間에 격차가 크

表 2-1 GNP와 GRP의 産業別 構成比

單位：%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全國	慶南										
農 林 水 産 業	15.1	15.0	16.5	17.9	15.2	16.1	14.1	15.3	13.8	14.9	13.9	14.9
鑛 工 業	32.0	49.6	32.0	50.6	31.1	51.9	30.8	52.6	31.6	50.7	30.7	51.8
社會間接資本 및 서비스	52.9	35.4	51.5	31.5	53.7	32.0	55.1	32.1	54.6	34.4	55.3	33.3

資料：경상남도 통계관실.

表 2-2 地域別 産業構造와 1人當 GRP, 1985

		産業別 構成比(%)			1人當 GRP(千圓)			地域人口(千人)		
		農林	鑛工業	其他	金額	順位	比率	1980	1985	増減率
慶南		14.9	51.8	33.3	2,183.5	-	100.0	3,322.1	3,556.7	7.1
東部圈	蔚山市	1.1	71.7	27.2	3,767.0	3	172.5	418.3	551.0	31.7
	金海市	12.1	43.5	44.4	1,912.1	6	87.6	0	77.9	-
	梁山郡	9.3	67.1	23.5	3,540.9	4	162.2	143.1	142.5	△ 0.4
	蔚州郡	13.2	73.5	13.3	3,912.2	2	179.2	116.9	118.7	1.5
	金海郡	43.2	29.9	27.0	1,359.2	14	62.2	166.3	95.3	42.7
	密陽郡	43.0	11.2	45.7	1,148.2	18	52.6	161.6	151.7	△ 6.1
	巨濟郡	10.6	69.6	19.8	1,700.5	9	77.9	109.6	173.7	58.5
中部圈	馬山市	5.7	41.5	52.8	2,302.1	5	105.4	386.8	448.7	16.0
	昌原市	0.8	77.1	22.1	4,642.1	1	212.6	111.7	173.5	55.3
	忠武市	32.6	12.0	55.4	1,476.8	10	67.6	75.5	87.5	15.9
	鎭海市	5.1	38.8	56.1	1,106.1	21	50.7	112.0	121.3	8.3
	義昌郡	45.9	27.6	26.5	1,423.3	12	65.2	87.8	74.9	△14.7
	昌寧郡	57.3	2.1	40.6	1,109.5	19	50.8	115.8	99.1	△14.4
	咸安郡	57.5	8.2	34.3	1,438.0	11	65.9	80.4	71.3	△11.3
	統營郡	59.5	5.7	34.8	900.9	27	41.3	65.6	58.4	△11.0
南部圈	固城郡	46.7	4.2	49.1	1,084.3	22	49.7	92.9	82.6	△11.1
	晋州市	2.1	24.9	73.0	1,732.3	8	79.3	202.7	227.3	12.1
	三千浦市	42.6	7.2	50.6	1,870.2	7	85.7	64.7	62.5	△ 3.4
	晋陽郡	58.6	3.9	37.5	1,178.3	17	54.0	100.8	83.5	△17.2
	泗川郡	55.8	10.7	33.5	1,024.7	26	46.9	70.9	62.7	△11.6
	陝川郡	51.9	3.8	44.2	1,108.3	20	50.8	115.7	98.6	△14.8
	咸陽郡	60.3	4.1	35.6	1,278.8	15	58.6	82.8	70.4	△15.0
	居昌郡	52.9	7.3	39.8	1,259.7	16	57.7	102.4	91.6	△10.5
	南海郡	37.2	3.8	59.0	1,072.3	25	49.1	103.1	89.9	△12.8
宜寧郡	55.6	1.3	43.0	1,079.6	24	49.4	64.2	55.7	15.3	
河東郡	47.4	13.0	39.6	1,070.4	22	49.0	97.6	83.3	△14.7	

\* 慶南 平均值를 100으로 한 比率임.

資料: 慶尙南道 統計官室.

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東部圈에 속하는 蔚州郡의 경우, GRP에서 차지하는 鑛工業 구성비는 73.5%에 달하고 梁山郡과 巨濟郡의 구성비는 각각 60% 이상 수준이다. 반면에 西部圈에 속하는 郡 중에서 鑛工業의 구성비가 가장 높은 郡은 河東郡인데, 그 비중은 13.0%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工業化의 程度는 지역간에 격차가 큰데, 東部圈域에 속하는 中心都市의 背後 農村地域일수록 工業化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 반면에 西部圈域에는 全 地域에 걸쳐 工業化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地域經濟를 성장시키기 위한 첨경이 公업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論外로 하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公업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GRP가 높다는 사실이다. 1985년 현재 慶南의 1인당 GRP는 2,183.5천원으로 전국의 1인당 GNP 1,772.9천원에 비해 높다. 그러나 慶南內에서는 1인당 GRP가 지역간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 있다.

〈表 2-2〉에는 1인당 GRP의 크기가 市·郡別로 제시되어 있는데, 東部圈內의 各 郡은 慶南內에서 上位圈에 속하고 다음은 中部圈이고, 西部圈內의 各 郡은 下位圈에 속한다.

이와 같이 工業化 程度의 크기가 바로 1인당 GRP 수준의 크기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農林水産分野를 개발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公업화 정도는 지역의 인구증가와 직결된다. 慶南道內 各 市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郡중에서 公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1인당 GRP의 크기가 上位圈에 속하는 東部圈의 蔚州郡, 梁山郡, 巨濟郡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타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産業構造를 地域間에 비교해 본 結果, 2次産業의 비중이 높은 農村地域일수록 1인당 GRP 수준도 높았다. 즉, 工業化 水準이 높을수록 주민소득이 높다고 하겠는데, 이는 農家所得增大를 위한 農業發展戰略을 수립하는데 있어 많은 示唆를 주고 있다.

工業化의 程度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工業集中度를 이용하는데, 이는

그 지역의 總就業者에 대한 製造業體 從事者の 비율로 나타낸다. 그러나 總就業者에 대한 統計資料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는 지역의 총인구에 대한 製造業體 從事者の 비율을 원용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工業集中度가 市郡別로 <表 2-3>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廣城 經濟圈域別로 工業化의 격차는 크다. 東部圈의 工業集中度는 14.65%로 가장 높고 다음은 中部圈으로 그 比率는 11.92%이다. 반면에 西部圈의 工業集中度는 2.32%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經濟圈域別로 工業化水準의 격차가 큰데, 이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東南海岸地域에 重化學工業基地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農村地域間에 工業化 수준의 격차가 크다. 工業集中度가 가장 높은 지역은 梁山郡으로 그 比率는 26.00%에 달하고 慶南內에서 昌原市 다음으로 두번째로 높다. 東部經濟圈內에 속하는 農村地域의 工業集中度가 높고 中部經濟圈內에 있는 農村地域이 중간 수준이며 西部經濟圈內에 속한 農村地域의 工業集中度는 1% 내외이다.

工業團地가 조성되어 있는 成長據點都市의 주변 농촌일수록 工業化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釜山市의 주변 農村地域인 梁山郡의 경우, 1981년의 工業集中度는 13.99%이었는데 1987년에는 26.00%로 급성장하였다. 아울러 釜山市의 영향을 받고 있는 金海郡도 마찬가지로 工業化가 가속되고 있다. 즉, 1981년에는 工業集中度가 2.70%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에는 7.21%로 급증하였다.

中部經濟圈內에서도 成長據點都市 주변 農村地域의 工業化程度는 東部經濟圈內의 農村地域에 비해 낮지만 工業化가 가속되고 있다. 馬山市와 昌原市의 주변지역인 義昌郡의 工業集中度는 1981년의 1.89%에서 1987년에는 3.76%로 급성장하였고 마찬가지로 咸安郡의 경우를 보면 同期間에 있어 工業集中度는 0.86%에서 4.32%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西部經濟圈에는 事情이 다르다. 地域中心都市인 晋州市 의

表 2-3 慶南의 市郡別 工業集中度

單位：人，%

		1981			1987		
		人口數(A)	從事者數(B)	B/A	人口數(C)	從事者數(D)	D/C
慶南		3,419,566	250,382	7.32	3,564,874	370,245	10.39
東部圈	蔚山市	450,541	66,236	14.70	590,401	92,285	15.63
	金海市	70,701	7,489	10.59	85,806	14,444	16.83
	梁山郡	149,082	20,850	13.99	146,069	37,982	26.00
	蔚州郡	117,181	13,521	11.54	124,840	18,354	14.70
	金海郡	98,898	2,666	2.70	96,357	6,950	7.21
	密陽郡	161,555	3,257	2.02	147,681	4,894	3.31
	巨濟郡	127,365	16,751	13.15	157,599	22,310	14.16
	小計	1,175,323	130,770	11.13	1,345,753	197,219	14.65
中部圈	馬山市	400,501	54,278	13.55	473,466	64,252	13.57
	昌原市	128,095	37,145	29.00	214,829	69,676	32.43
	忠武市	78,621	2,168	2.76	90,401	3,486	3.86
	鎭海市	114,060	2,954	2.59	122,167	4,518	3.70
	義昌郡	88,611	1,679	1.89	72,399	2,723	3.76
	昌寧郡	115,746	518	0.45	92,786	499	0.54
	咸安郡	80,790	698	0.86	69,264	2,995	4.32
	統營郡	65,437	382	0.58	54,268	1,355	2.50
	固城郡	93,810	249	0.27	78,157	1,622	2.08
	小計	1,165,671	100,071	8.58	267,737	151,126	11.92
西部圈	晋州市	210,439	12,666	6.02	237,889	13,336	5.61
	三千浦市	65,439	2,004	3.06	63,785	2,649	4.15
	晋陽郡	99,229	527	0.53	80,772	1,005	1.24
	泗川郡	70,610	1,267	1.79	58,739	957	1.63
	陝川郡	114,979	753	0.65	86,364	592	0.69
	咸陽郡	81,289	814	1.00	63,751	1,054	1.65
	居昌郡	102,431	519	0.51	85,616	610	0.71
	山淸郡	72,294	475	0.66	58,851	470	0.80
	南海郡	101,575	241	0.24	83,935	186	0.22
	宜寧郡	63,163	74	0.12	52,162	431	0.83
河東郡	96,998	201	0.21	76,502	741	0.97	
小計	1,078,572	19,541	1.81	948,366	22,031	2.32	

資料：經濟企劃院，「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83，1989.

慶尙南道，「광공업통계조사연보」，1988.

우 1987년에 와서는 1981년에 비해 工業集中度가 오히려 떨어졌고 그 비율은 5.61%에 지나지 않으며 東部經濟圈에 속하는 金海郡보다 낮다. 이와 같이 地域中心都市의 工業化 수준이 낮아 西部經濟圈內的 農村地域에는 工業化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慶南의 工業集中度가 14.00%以上인 梁山郡, 蔚州郡, 巨濟郡은 工業化 先進 農村地域이라 할 수 있는데, 전부 東部經濟圈에 속하고 있다. 또한 工業集中度가 3.00%以上인 金海郡, 義昌郡, 密陽郡, 咸安郡은 工業化 成長 農村地域이라 하겠는데, 成長據點都市의 주변농촌지역으로 工業化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工業集中度가 3.00%미만인 農村地域을 工業化 落後 農村地域이라 하겠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郡은 總12개 郡에 달한다. 이 중에서 昌寧郡과 統營郡을 제외한 10個郡은 西部經濟圈에 속한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農村地域間에 工業化水準의 격차가 큰데, 이는 地域均衡開發이라는 측면에서 혹은 農家所得增大의 측면에서 볼때 많은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농가의 農業所得增大의 限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工業化 落後地域인 西部慶南地域을 集中的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 3. 營農 立地條件

#### 가. 立地 및 氣象條件

慶尙南道는 韓半島의 東南端는 (북위 34°~35°, 동경 127°~129°)에 위치하여 있다. 동쪽과 남쪽은 바다에 접해 있고, 서쪽과 북쪽은 험준한 소백산맥이 가로 놓여 북서풍을 막아주고 있으므로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이루고 있다.

洛東江이 北에서 南으로 가로질러 흐르고 있고 南江이 西에서 東으

로 관통하고 있어 비옥한 堆積平野를 이루고 있다.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慶南 전 지역이 온화한 편이나 慶南內에서는 지역별로 기후조건이 다양하다. 海岸의 海洋性 氣候와 북쪽 內陸 山間地帶의 大陸性 氣候에 걸쳐 다양하게 펼쳐 있다.

農業地帶나 農業生産構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要因은 氣象인데, 農業에 관련되는 主要 氣象指標를 <表 2-4>에 제시하였다.

혹한기인 1월 平均氣溫을 보면 巨濟郡, 統營郡, 忠武市 등의 海岸地帶는 零上 2℃ 내외로 온화하고 山淸, 咸陽, 陝川, 居昌 등의 內陸山間地帶에는 零下 2℃ 내외이다. 또한 혹서기의 平均氣溫도 지역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연평균 氣溫은 가장 높은 곳의 14℃에서 가장 낮은 곳의 11.2℃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연간 降水量도 지역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夏作의 在圃期間을 결정하는 無霜期間도 地域間에 격차가 크데, 居昌郡이 133일로 가장 짧고 統營郡이 234일로 가장 길다.

이와 같이 慶南內에서도 農業氣象條件이 다양한데, 氣象條件에 알맞는 特化作目이 정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나. 地帶區分

한 지역에 어떤 農産物이 집중적으로 생산된다면 그 지역은 特定作物生産에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比較優位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는 自然條件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氣候, 氣溫, 降水量, 地形, 地勢 土壤 등의 自然的 條件이 農産物 生産의 相對的 有利性을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自然的 生産與件에 따라 農業地帶를 구분하게 된다. 자연적 조건에 따른 農業地帶區分은 그 기준의 設定이 他 農業地帶에 비해 명확하고 農業立地의 골격이 된다.

自然的 條件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農業地帶를 구분한 研究(金聖昊 外 1973)에 의하면, 慶南地域은 南部內海地帶, 南海岸沿岸地帶, 慶南內陸地帶, 慶南山間地帶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他地域에 비해 상대적으로 農業地帶가 다양하다<圖 2-2>.

表 2-4 市郡別 主要 農業氣象 指標

	1月平均 氣溫(℃)	8月平均 氣溫(℃)	年間平均 氣溫(℃)	年間降水量 (mm)	첫서리 (月·日)	마지막서리 (月·日)	無霜期間 (日)
창원시	0.3	23.4	12.8	1,422	11.7	4.3	217
울산시	0.9	25.5	13.2	1,277	11.2	4.9	207
마산시	-0.4	27.6	13.9	1,434	10.23	4.20	186
진주시	-2.3	26.5	12.6	2,135	10.26	4.6	203
진해시	1.8	25.8	14.4	1,477	11.9	3.23	223
충무시	2.5	25.4	14.0	1,457	10.22	3.27	217
삼천포	-0.1	25.7	13.0	1,594	11.4	3.28	221
김해시	0.6	25.9	13.8	1,382	10.28	3.24	227
진양군	-1.6	25.5	12.3	1,479	11.14	4.28	201
의령군	-1.5	25.3	12.8	1,182	10.25	4.15	193
함안군	-2.8	26.4	12.1	1,430	11.1	4.28	182
창녕군	-3.5	25.8	12.1	1,170	10.22	4.17	192
밀양군	-0.6	25.4	12.8	1,199	10.25	4.8	200
양산군	-0.3	26.1	13.0	1,554	10.28	4.12	230
울주군	0.8	25.5	13.1	1,272	10.30	4.3	210
김해군	0.6	25.9	13.8	1,383	10.28	3.24	217
의창군	-0.8	26.9	14.1	1,224	10.25	4.22	186
통영군	1.2	26.3	13.6	1,397	11.17	3.18	234
거제군	1.6	25.2	13.6	1,992	11.8	3.28	224
고성군	0.3	27.5	14.2	1,661	10.23	4.15	191
사천군	0.4	25.6	13.2	1,390	11.2	4.25	191
남해군	0.5	26.8	13.9	1,811	11.5	3.28	221
하동군	-1.4	26.3	12.8	1,724	10.31	4.10	205
산청군	-1.6	25.8	12.6	1,878	11.2	4.1	215
함양군	-1.4	23.4	11.8	1,431	10.16	4.22	167
거창군	-3.4	24.5	11.2	1,319	10.10	4.18	173
합천군	-2.5	25.9	12.4	1,324	10.23	4.10	188

資料：各市郡, 「統計年報」.



또한 自然條件과 耕地의 標高 등을 基準으로 慶南地域의 農業支持를 세분한 사례도 있다(송삼석 1990, 17-38). <圖 2-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平野地帶, 中間地帶, 準山間地帶, 山間高冷地帶, 海岸地帶, 冷潮風地帶 등으로 農業地帶가 세분되어 있다. 이와 같이 慶南은 아열대 농산물이 생산가능한 海岸地帶에서 高冷地 菜蔬가 생산되는 高冷地帶까지 農業地帶가 다양한데, 이것은 地域特化 農産物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氣候, 地形, 標高, 土壤의 物理的 性質 등 일차적인 自然要因에 의해 耕地, 혹은 田畝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耕地率과 畝率을 基準으로 山間地帶, 準山間地帶, 平野地帶 등으로 구분하거나 畝作地帶, 田作地帶, 混作地帶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특히 地方政府가 農政에 참고로 하기 위하여 農業의 發展戰略을 구성하고자 할 때는 行政單位를 基準으로 地帶를 구분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

行政單位를 기준으로 農業地帶를 구분하기 위한 지표로서 市郡別 耕地率과 畝率을 <表 2-5>에 제시하였다.

市地域은 馬山, 鎭海, 昌原市를 제외하고는 耕地率이 높다. 특히, 金海市의 耕地率은 43.8%로 慶南內의 全 市郡에서 가장 높다. 農村地域에서는 耕地率의 격차가 심한데, 가장 낮은 곳은 山淸郡으로 14.3%에 불과하고 가장 높은 곳은 咸安郡으로 31.4%에 달한다.

한편 畝面積比率을 보면,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畝面積比率이 높다. 즉, 慶南內 각 지역의 耕地率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畝面積比率은 상대적으로 높다.

<表 2-6>에는 地帶區分의 參考資料로서 標高別 耕地面積比率이 市郡別로 제시되어 있다. 智異山, 南德裕山, 伽倻山을 둘러 싸고 있는 地域인 河東, 山淸, 咸陽, 居昌, 陝川郡 등에는 高地帶에 위치한 耕地比率이 상대적으로 높다. 居昌郡의 경우, 標高 100m 이하인 경지는 없으며 高冷地帶에 속하는 400m 이하의 경지가 30.7%를 차지하고 있다.

통상 耕地率을 기준으로 農業地帶를 구분한다면, 경지율이 15% 미



表 2-5 地域別 耕地率과 畝率, 1988

單位: ha, %

	總面積(A)	耕地面積(B)	畝面積(C)	耕地率(B/A)	畝率(C/B)
창원시	12,564	2,100	1,618	16.7	77.0
울산시	18,260	3,993	2,485	21.9	62.2
마산시	7,376	874	561	11.9	64.2
진주시	7,033	1,917	881	27.3	46.0
진해시	11,196	1,765	1,171	15.8	66.3
충무시	2,133	643	113	30.2	17.6
삼천포	5,943	1,690	1,133	28.4	67.0
김해시	6,465	2,834	2,453	43.8	86.5
진양군	65,079	15,080	10,028	23.2	66.5
의령군	48,621	10,374	6,039	21.3	58.2
합안군	45,619	14,318	9,142	31.4	63.9
창녕군	53,714	16,367	9,911	30.5	60.6
밀양군	80,425	18,626	13,084	23.2	70.2
양산군	70,860	11,558	8,126	16.3	70.3
울주군	87,893	15,956	11,402	18.2	71.5
김해군	47,319	14,154	10,906	29.9	77.1
의창군	41,238	11,140	8,498	27.0	76.1
통영군	21,463	5,139	2,015	23.9	39.2
거제군	40,125	7,585	4,881	28.9	64.4
고성군	51,971	12,925	9,080	24.9	70.2
사천군	34,017	8,195	6,596	27.1	71.7
남해군	35,792	8,607	5,154	24.0	59.9
하동군	68,162	11,904	8,730	17.5	73.3
산청군	80,218	11,446	8,170	14.3	71.4
함양군	73,202	11,257	7,400	15.4	65.7
거창군	81,816	13,334	8,649	16.3	64.9
합천군	99,364	17,759	11,721	17.9	66.0
合 計	1,197,879	252,598	169,957	21.1	67.3

資料: 慶尙南道, 「경남 통계연보」, 1989.

表 2-6 標高別 耕地面積 構成比, 1985

單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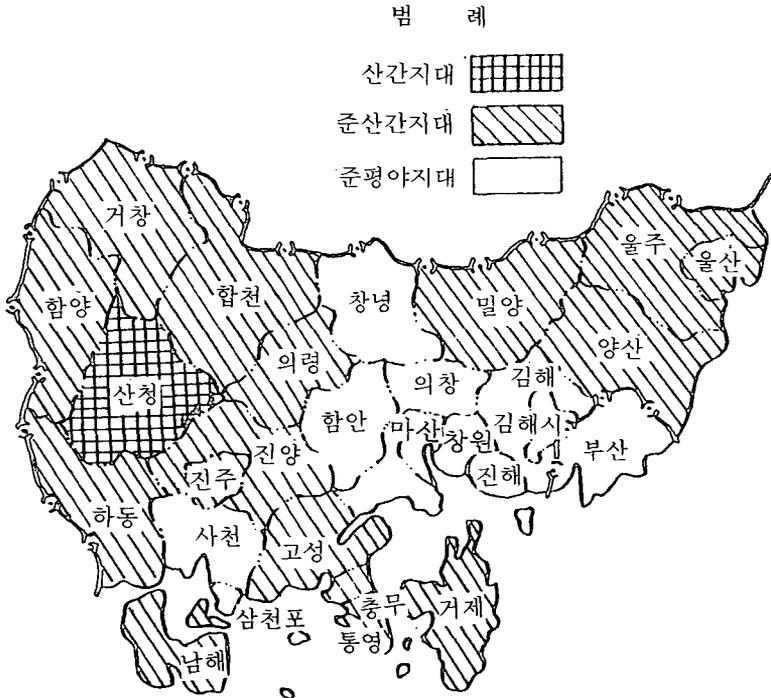
	~ 100m	101 ~ 250	251 ~ 400	400m ~	합 계
창원시	92.2	7.8	-	-	100.0
울산시	100.0	-	-	-	100.0
마산시	42.8	39.4	16.4	1.4	100.0
진주시	...	...	...	...	100.0
진해시	97.0	3.0	-	-	100.0
총무시	97.9	2.1	-	-	100.0
삼천포	100.0	-	-	-	100.0
김해시	100.0	-	-	-	100.0
진양군	99.4	0.6	-	-	100.0
의령군	65.5	33.4	1.0	-	100.0
함안군	81.0	16.0	2.7	0.3	100.0
창녕군	92.3	6.1	4.7	0.1	100.0
밀양군	64.1	28.1	6.8	1.0	100.0
양산군	55.5	39.7	4.8	-	100.0
울주군	63.5	30.2	4.9	1.4	100.0
김해군	91.2	8.8	-	-	100.0
의창군	89.5	10.5	-	-	100.0
통영군	95.2	4.7	0.1	-	100.0
거제군	83.4	16.6	-	-	100.0
고성군	83.2	16.8	-	-	100.0
사천군	95.3	4.7	-	-	100.0
남해군	97.7	2.3	-	-	100.0
하동군	53.0	32.8	10.6	3.6	100.0
산청군	30.6	41.9	20.8	6.8	100.0
함양군	...	...	...	...	100.0
거창군	-	39.5	29.8	30.7	100.0
합천군	6.2	40.5	51.3	2.0	100.0

資料: 各 市郡 農村指導所, 「地域 農業開發 技術指導計劃」, 1986.

表 2-7 耕地率, 畝率에 의한 地帶區分

地帶區分基準		地 帶	該 當 郡
耕 地 率	15% 미만	山間地帶	산 청
	15 ~ 25%	準山間地帶	고성, 진양, 밀양, 의령, 울주, 양산, 합천, 하동, 거창, 함양, 남해, 통영, 거제
	25 ~ 40%	準平野地帶	함안, 창녕, 김해, 의창, 사천
	40% 이상	平野地帶	
畝 率	40% 미만	田作地帶	통 영
	40 ~ 70%	混作地帶	함안, 창녕, 진양, 의령, 합천, 거창, 함양, 남해, 거제
	70% 이상	畝作地帶	김해, 의창, 사천, 고성, 밀양, 울주, 양산, 하동, 산청

圖 2-4 耕地率에 의한 農業地帶區分



만이면 山間地帶, 15~25% 미만이면 準山間地帶, 25~40% 미만이면 準平野地帶, 40% 이상이면 平野地帶로 각각 분류한다. 그런데 市地域은 地帶區分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分類方法에 의하면 山間地帶에는 山淸郡이 해당하고, 準山間地帶에는 固城, 晋陽, 密陽, 宜寧, 蔚州, 梁山, 陝川, 河東, 居昌, 咸陽, 南海, 統營, 巨濟 등의 13개 郡이 속하고 있다. 아울러 함안, 창녕, 김해, 의창, 사천 등의 5개 郡은 準平野地帶에 해당하고 平野地帶에 속하는 郡은 없다<表 2-7, 圖 2-4>.

畝面積比率을 기준으로 40% 미만인 지역은 田作地帶라 하는데, 統營郡이 여기에 해당한다. 畝率이 40~70%이면 混作地帶라 하는데, 여

圖 2-5 畝率에 의한 農業地帶 區分



기에 속하는 지역은 함안, 창녕, 진양, 의령, 합천, 거창, 함양, 남해, 거제 등의 9개 郡이다. 畝率이 70% 이상이면 畝作地帶인데, 김해, 의창, 사천, 고성, 밀양, 울주, 양산, 하동, 산청 등의 9개 郡이 속한다(表 2-7, 圖 2-5). 慶南內에서는 農業地帶가 세분되지만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慶南 전체의 農業地帶는 크게 準山間畝作地帶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氣候條件과 土壤條件이 다양하여 地域別로 特化作目이 特化되어 있고 營農類型이 다양하다. 즉, 營農立地條件을 기준으로 한다면 慶南의 農業生産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4. 農業生産 主體

### 가. 農家戶數와 農業人口의 變動

經濟成長 初期段階인 1960년에는 慶南의 총가구는 749,613호에 달했으나 1970년에는 574,183호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工業化過程에서 慶南地域에 工業團地가 조성됨에 따라 1970년대 이후에는 總家口數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 현재 908,083호에 달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총가구수가 연평균 3.1%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慶南地域이 상대적으로 産業化의 수준이 빨라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가구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表 2-8).

한편 總人口 變動을 보면, 1960年代 慶南의 인구는 연평균 2.9%씩 감소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年代의 연평균 人口 成長率은 1.1%에 달한다. 京畿道를 제외한 全道에는 人口가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慶南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慶南地域의 工業化와 都市化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의 農家戶數는 362,654호로 全家口의 48.3%를 차지하였다.

表 2-8 農家戶數 및 農家人口의 變動, 1960~88

單位: 戶, 千人, %

	總家口數 (A)	農家數 (B)	B/A (%)	總人口 (C)	農家人口 (D)	D/C (%)
1960	749,613	362,654	48.3	4,182.0	2,198.3	52.6
1965	540,933	366,102	67.7	3,228.4	2,286.8	70.8
1970	574,183	355,616	61.9	3,119.7	2,042.4	65.5
1975	628,763	334,243	53.2	3,280.1	1,833.9	55.9
1980	711,276	297,866	41.9	3,322.1	1,446.5	45.3
1985	851,128	261,086	30.7	3,516.7	1,101.3	31.3
1988	908,083	246,587	27.2	3,622.1	921.1	25.4
年平均 增減率						
1960~70	-2.6	-0.2	-	-2.9	-0.7	-
1970~80	2.1	-1.8	-	0.6	-3.4	-
1980~88	3.1	-2.3	-	1.1	-5.5	-
1960~88	0.7	-1.4	-	-0.5	-1.6	-

資料: 경상남도, 「경남 통계연보」, 각연도판.

1960년대 초반까지는 農家戶數가 증가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246,587호로 감소하여 農家戶數의 구성비는 27.2%로 격감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 농가호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연평균 감소율은 2.3%에 달하고 있다.

農家人口의 변동을 보면, 1960년의 농가인구는 2,198.3천명이었는데 농가호수가 증가한 1960년대 초반까지는 농가인구도 증가하였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여 1988년에는 921.1천명으로 줄었고 農家人口의 구성비도 25.4%로 격감하였다. 1960~88년 기간의 연평균 감소율은 1.6%에 달하는데, 특히 1980년대의 연평균 감소율은 5.5%에 이르고 있다. 농가호수의 감소율보다 농가인구의 감소율이 더 큰데 이는 家族單位의 離農보다는 家口員單位의 離農이 더 많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慶南地域에는 産業化와 都市化가 진행됨에 따라 總家口와 總人口는 급증하였으나 農家戶數와 農家人口는 격감하여 왔다.

1988년 현재 農家人口의 구성비는 25.4%로 전국 연평균 17.3%에 비해 높지만 他道에 비하면 월등히 낮다.

地域經濟에서 차지하는 農家의 비중은 지역간에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表 2-9>에는 농가호수와 농가인구의 구성비를 市郡別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市地域에서는 農家戶數나 農家人口의 구성비가 낮게 마련이나, 삼천포시와 김해시는 아직도 農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郡間에 농가호수와 농가인구의 구성비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工業化의 수준이 높은 大都市 혹은 地域中心都市의 주변 農村地域에는 農家戶數 및 農家人口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다. 양산, 울주, 김해, 의창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海岸地帶에 속해 있는 郡에는 농가호수와 농가인구의 구성비가 낮다. 통영군과 거제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工業化 水準은 낮지만 郡內에 農村地域의 生活圈 中心地인 큰 邑이 있는 郡에는 농가 및 농가인구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다. 거창, 함양, 밀양이 해당한다. 1989년에 와서는 밀양군에서 密陽市가 분리되었다.

넷째, 農村中心地로서 역할이 작은 邑이 있거나 이것마저 없는 都市近郊 農村地域으로서 工業化 수준이 낮은 郡에는 농가호수와 농가인구의 비율이 높다. 西部慶南에 속해 있는 郡은 대개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晉陽郡의 경우를 보면 晉州 近郊地域으로 工業化 수준이 낮아 農家戶數의 구성비 및 農家人口의 구성비는 각각 83.1%로 慶南道內에서 가장 높다.

表 2-9 地域別 農家戶數 및 農家人口, 1988

單位: 戶, %

	總農家數 (A)	農家戶數 (B)	B/A	總人口 (C)	農家人口 (D)	D/C
창원시	65,087	1,207	1.9	253,321	5,270	2.1
울산시	154,009	3,148	2.1	617,524	15,519	2.6
마산시	119,511	996	0.9	484,405	4,677	1.0
진주시	56,878	2,499	4.4	222,664	12,721	5.8
진해시	31,425	2,204	7.1	122,784	9,047	7.4
충무시	23,192	928	4.0	92,492	4,455	4.9
삼천포	15,553	3,260	21.0	64,464	15,172	32.6
김해시	23,033	2,886	12.6	91,138	12,139	13.4
진양군	19,235	15,980	83.1	79,172	65,729	83.1
의령군	13,196	10,845	82.2	51,490	43,591	84.7
함안군	18,097	14,131	78.1	67,667	56,244	83.2
창녕군	24,648	16,296	66.2	90,946	61,552	67.7
밀양군	36,503	21,021	57.6	144,776	83,661	57.8
양산군	38,370	12,948	33.8	152,382	38,641	25.4
울주군	30,965	15,328	49.5	125,660	64,475	51.3
김해군	23,441	12,916	55.1	97,178	45,735	47.1
의창군	18,377	11,497	62.6	76,324	49,610	65.0
통영군	12,483	7,162	57.4	51,761	31,414	60.7
거제군	36,722	12,298	33.5	154,886	61,954	40.0
고성군	19,445	13,901	71.5	74,672	52,274	70.0
사천군	14,284	10,282	72.0	57,706	41,664	72.2
남해군	20,943	14,240	68.0	80,641	55,020	68.3
하동군	19,073	12,411	65.1	72,284	45,774	63.4
산청군	14,271	9,913	69.5	55,770	38,443	69.0
함양군	15,779	10,149	64.4	60,408	36,600	60.6
거창군	20,894	13,673	65.5	84,323	51,165	60.7
합천군	22,670	17,718	78.2	81,267	65,124	80.2

資料: 慶尙南道, 「경남 통계연보」, 1989.

都市化, 工業化가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論外로 하고 慶南의 경우 都市化, 工業化 수준이 높은 郡일수록 1인당 住民所得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그러므로 農業의 發展方向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地域內的 都市化 내지는 工業化 水準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나. 就業類型別 農家

農業生産主體로서의 농가는 農業所得만으로 都市家計의 소득과 버금가는 수준의 農家所得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농가를 '自立農家' '中核農家' '基幹農家'라 칭하고들 있다.

그런데 農業基盤條件이 불리하여 規模擴大와 生産構造改善에는 한계가 크고 또한 開放經濟體制下에서 農産物 價格支持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農業所得增大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農家立場에서 보면 農業所得만으로 家計費를 충당시킬 수 없고 農家保有 勞動力이 農業生産에 연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非農業分野에 就業機會가 있다면 취업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農家가 다수이므로 經濟成長과 더불어 농가의 在村農外就業機會가 확대됨에 따라 兼業農家は 증대되어 왔다.

〈表 2-10〉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1988년에 현재 전국의 兼業農家比率은 22.4%에 이르고 있다. 市道別로 비교해 볼 때 市地域에는 兼業農家の 비율이 道에 비해 높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兼業農家の 구성비를 道間에 비교해 보면 제주도가 37.6%로 가장 높고 다음은 京畿道이며 慶南은 세번째이다. 제주도는 農地基盤條件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漁業과 서비스업의 比重이 높기 때문에 兼業農家の 구성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兼業化的 정도는 그 지역의 都市化와 工業化 수준과 연관되어 있다. 즉, 제주도를 제외한다면, 都市化와 工業化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京畿道이고 이에 따라 兼業化的 구성비가 가장 높고 다음이 慶南이다.

表 2-10 就業 類型別 農家戶數, 1988

單位: 戶, %

	總農家數	專業農	兼 業 農		
			小 計	第 1 種	第 2 種
서 울	4,450 (100.0)	1,976 (44.4)	2,474 (55.6)	922 (20.8)	1,552 (34.8)
부 산	8,491 (100.0)	5,013 (59.1)	3,478 (40.9)	1,933 (22.8)	1,545 (18.1)
대 구	7,137 (100.0)	4,191 (58.8)	2,946 (41.2)	1,581 (22.2)	1,365 (19.0)
인 천	4,980 (100.0)	1,766 (35.5)	3,214 (64.5)	1,086 (21.8)	2,128 (42.7)
광 주	17,607 (100.0)	14,102 (80.1)	3,505 (19.9)	1,735 (9.9)	1,770 (10.0)
경 기	211,218 (100.0)	145,712 (69.0)	65,506 (31.5)	29,161 (13.8)	36,345 (17.2)
강 원	108,880 (100.0)	86,066 (79.1)	22,814 (20.9)	7,796 (6.7)	15,018 (13.7)
충 북	122,015 (100.0)	103,820 (85.1)	18,195 (14.9)	8,175 (6.7)	10,020 (8.2)
충 남	239,891 (100.0)	191,376 (79.8)	48,515 (20.2)	18,551 (7.8)	29,964 (12.4)
전 북	194,729 (100.0)	162,854 (83.7)	31,875 (16.3)	13,749 (7.1)	18,126 (9.2)
전 남	303,862 (100.0)	229,249 (75.5)	74,613 (24.5)	25,256 (8.4)	49,357 (16.1)
경 북	314,420 (100.0)	262,746 (83.6)	61,674 (16.4)	19,488 (6.2)	32,186 (10.2)
경 남	246,587 (100.0)	181,863 (73.8)	64,715 (26.2)	22,959 (9.4)	41,756 (16.8)
제 주	42,077 (100.0)	26,226 (62.4)	15,851 (37.6)	7,754 (18.5)	8,097 (19.1)
전 국	1,826,344 (100.0)	1,416,960 (77.6)	409,384 (22.4)	160,146 (8.8)	249,238 (13.6)

資料: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1989.

前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慶南地域에는 農村地域의 工業化 수준이 높다. 이에 따라 慶南에 있어 농가의 兼業化 程度는 전국 평균치에 비해 훨씬 높다.

우리 나라의 경우 농가의 兼業化가 불가피한 현상인지 또한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論外로 하고 慶南의 農業이 처한 內部條件으로서 볼 때 농가의 農外就業機會가 타지역에 비해 높다고 하겠다. 이것은 농업의 發展戰略을 모색할 때 고려해야 할 政策變數라 하겠다.

#### 다. 保有勞動力

經濟成長과 더불어 農業勞動力이 非農業分野로 유출되어 왔는데, 家口單位的 離農率보다는 家口員單位的 離農率이 높아 農業勞動力이 약화되어 왔다.

특히, 基幹勞動力의 이농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農業勞動力의 婦女化, 老齡化를 초래하였다.

이같은 현상이 慶南地域에는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營農從事者의 年齡別 構成비를 비교하여야 하지만, 이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편법으로 年齡別 農家人口資料를 원용한다.

〈表 2-11〉에는 慶南 農家人口의 年齡別 構成비의 변화가 제시되어 있다. 1970년에는 50세 이상의 농가인구의 구성비가 15.6%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에는 35.2%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女子人口의 구성비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營農從事者의 年齡別 構成비에 관한 資料不足으로 農業勞動力이 어느 정도 취약한지는 명확하게 밝힐 수 없으나 農業勞動力이 年齡化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表 2-11 慶南의 年齡別 農家人口, 1970~88

單位: 人, %

		14세미만	14 ~ 20	20 ~ 50	50 ~ 60	60세이상	合 計
1970	男子	448.3 (40.2)	157.6 (14.1)	357.9 (32.1)	84.5 (7.6)	66.8 (6.0)	1,115.1 (100.0)
	女子	420.6 (37.8)	144.0 (12.9)	352.3 (31.6)	100.1 (9.0)	96.7 (8.7)	1,113.7 (100.0)
	小計	868.9 (39.0)	301.6 (13.5)	710.1 (31.9)	184.5 (8.3)	163.5 (7.3)	2,228.6 (100.0)
1975	男子	334.9 (36.9)	148.3 (16.4)	277.7 (30.6)	77.9 (8.6)	69.7 (7.5)	908.5 (100.0)
	女子	313.4 (33.9)	127.2 (13.8)	308.2 (33.3)	81.6 (8.9)	95.1 (10.1)	925.5 (100.0)
	小計	648.3 (35.2)	275.5 (15.1)	585.9 (32.0)	159.5 (8.7)	164.8 (9.0)	1,834.0 (100.0)
1980	男子	206.2 (32.3)	85.8 (13.4)	206.4 (32.4)	72.4 (11.3)	67.3 (10.5)	638.1 (100.0)
	女子	214.6 (31.7)	71.9 (10.6)	220.3 (32.5)	84.8 (12.5)	86.1 (12.7)	677.7 (100.0)
	小計	420.8 (32.0)	157.7 (12.0)	426.7 (32.4)	157.2 (11.9)	153.4 (11.7)	1,315.8 (100.0)
1985	男子	135.4 (24.8)	90.2 (16.7)	175.6 (32.5)	72.1 (13.4)	68.2 (12.6)	541.5 (100.0)
	女子	125.4 (22.3)	77.8 (13.9)	182.5 (32.6)	87.1 (15.6)	87.0 (15.6)	559.8 (100.0)
	小計	260.8 (23.5)	168.0 (15.3)	358.1 (32.6)	159.2 (14.5)	155.2 (14.1)	1,101.3 (100.0)
1988	男子	93.9 (21.2)	70.3 (15.9)	136.7 (30.8)	70.8 (16.0)	71.5 (16.1)	443.2 (100.0)
	女子	85.8 (18.0)	63.4 (13.3)	147.1 (30.8)	88.1 (18.4)	93.5 (19.6)	477.9 (100.0)
	小計	179.7 (19.5)	133.7 (14.5)	283.8 (30.8)	158.9 (17.3)	165.0 (17.9)	921.1 (100.0)

資料: 경상남도, 「경남 통계연보」, 각연도.

## 5. 農耕地 保有現況

### 가. 農耕地 規模

慶南의 總農耕地 규모는 242,616ha로 全國 總農耕地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市道別로 보면 農耕地 규모의 크기는 전국에서 4번째이다(表 2-12).

農耕地에서 차지하는 畝 面積比率은 71.2%로 全國의 畝 面積比率 63.5%에 비해 높다. 畝 面積比率의 크기를 보면 道 중에서는 全北이 가장 높고 慶南은 두번째이다. 그러므로 慶南은 畝作地帶라 할 수 있다.

戶當 耕作規模는 상대적으로 영세하다. 慶南의 호당 경작규모는 0.98ha에 불과하며 全國 道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다. 따라서 慶南은 상대적으로 小農地帶라 할 수 있다. 耕作規模가 영세하다고 해서 農業所得 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慶南은 二毛作地帶로 耕地를 集約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氣候條件이 유리하여 施設園藝 生産이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어 施設園藝가 特化作目으로 정착되어 있다.

慶南의 耕地規模 변동을 보면(表 2-13), 과거 28년간 畝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밭은 약간씩 감소해 왔다. 이는 經濟成長과 더불어 非農業分野에 전용되는 農地는 주로 田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戶當 耕作規模의 變動을 보면, 1960년에는 0.71ha이었으나 1988년에 0.98ha로 증가하였는데, 28년간 총 38.1%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慶南 農業에서는 耕作規模 擴大의 制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表 2-12 市道別 耕地規模, 1988

單位: ha, %

	總 規 模			戶當規模
	小 計	畝	田	
서 울	2,831 (100.0)	1,438 (50.8)	1,393 (49.2)	0.64
부 산	5,996 (100.0)	4,721 (78.7)	1,275 (21.3)	0.71
대 구	7,956 (100.0)	4,075 (51.2)	3,882 (48.8)	1.11
인 천	3,479 (100.0)	2,455 (70.6)	1,024 (29.4)	0.70
광 주	18,332 (100.0)	13,444 (73.3)	4,888 (26.7)	1.04
경 기	287,451 (100.0)	195,785 (68.1)	91,666 (31.9)	1.36
강 원	143,560 (100.0)	66,528 (46.3)	77,032 (53.7)	1.32
충 북	154,144 (100.0)	82,615 (53.6)	71,529 (46.4)	1.26
충 남	291,732 (100.0)	204,750 (70.2)	86,982 (29.8)	1.22
전 북	242,412 (100.0)	185,509 (76.5)	56,903 (23.5)	1.24
전 남	333,794 (100.0)	213,713 (64.0)	120,081 (36.0)	1.10
경 북	348,887 (100.0)	209,139 (59.9)	139,748 (40.1)	1.11
경 남	242,616 (100.0)	172,702 (71.2)	69,914 (28.8)	0.98
제 주	54,757 (100.0)	983 (1.8)	53,774 (98.2)	1.30
전 국	2,137,947 (100.0)	1,357,857 (63.5)	780,090 (36.5)	1.17

資料: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1989.

表 2-13 慶南의 耕地規模 變動, 1960~88

單位: ha, %

	總 耕 地 規 模			戶當規模
	畓	田	小 計	
1960	175,067 (67.8)	83,274 (32.2)	258,341 (100.0)	0.71
1965	176,601 (67.3)	86,053 (32.7)	262,654 (100.0)	0.73
1970	171,177 (65.8)	89,002 (34.2)	260,179 (100.0)	0.73
1975	175,535 (66.7)	87,729 (33.3)	263,264 (100.0)	0.79
1980	167,412 (66.6)	84,021 (33.4)	251,433 (100.0)	0.85
1985	165,532 (68.1)	77,604 (31.9)	243,136 (100.0)	0.93
1988	172,702 (71.2)	69,914 (28.8)	242,616 (100.0)	0.98

資料: 경상남도, 「경남 통계연보」, 각연도.

#### 나. 耕作規模別 農家分布

農業所得을 높이려면 農業勞動生産性を 제고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土地利用型 작물일 경우에는 耕作規模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戶當 耕作規模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平均概念에서는 耕作規模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農業所得으로 家計費를 충당하지 못하는 농가가 農外就業하고 耕作規模를 축소시키게 된다면 農地流動이 촉진되어 農家階層分化를 가져 온다. 이렇게 되면 規模擴大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農家階層分化와 農業構造改善에 대해서는 第5章에서 상세하게 고찰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耕作規模別 農家分布에 대해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表 2-14〉에는 耕作規模別 農家戶數의 분포가 市道別로 제시되어 있

表 2-14 耕作規模別 農家分布, 1988

單位：戶，%

	~0.5 ha	0.5~1.0	1.0~1.5	1.5~2.0	2.0~3.0	3.0이상	合 計
서울	2,059 (46.2)	1,330 (29.9)	654 (14.7)	195 (4.4)	146 (3.3)	66 (1.5)	4,450 (100.0)
부산	3,093 (36.4)	2,867 (33.7)	1,330 (15.7)	592 (7.0)	425 (5.0)	184 (2.2)	8,491 (100.0)
대구	4,016 (56.2)	2,076 (29.0)	701 (9.8)	245 (3.5)	62 (0.9)	37 (0.6)	7,137 (100.0)
인천	2,133 (42.8)	1,745 (35.0)	697 (14.0)	159 (3.2)	221 (4.5)	25 (0.5)	4,980 (100.0)
광주	5,856 (33.2)	7,014 (39.8)	3,054 (17.3)	993 (5.7)	501 (2.9)	189 (1.1)	17,607 (100.0)
경기	54,213 (25.6)	60,528 (28.6)	44,818 (21.3)	25,313 (12.0)	19,170 (9.1)	7,176 (3.4)	211,218 (100.0)
강원	27,205 (25.0)	32,301 (29.7)	24,444 (22.4)	14,272 (13.1)	8,275 (7.6)	2,382 (2.2)	108,880 (100.0)
충북	31,072 (25.4)	37,594 (30.8)	28,049 (23.0)	15,479 (12.7)	8,291 (6.8)	1,530 (1.3)	122,015 (100.0)
충남	67,802 (28.2)	83,295 (34.7)	52,121 (21.3)	21,745 (9.1)	12,409 (5.2)	3,519 (1.5)	239,891 (100.0)
전북	56,979 (29.3)	65,457 (33.6)	39,251 (20.2)	17,216 (8.8)	11,533 (5.9)	4,293 (2.2)	194,729 (100.0)
전남	88,490 (29.0)	115,929 (38.1)	61,954 (20.4)	23,949 (7.9)	11,092 (3.6)	2,448 (0.8)	303,862 (100.0)
경북	93,318 (29.7)	108,112 (34.4)	69,735 (22.2)	27,162 (8.6)	13,812 (4.4)	2,281 (0.7)	314,420 (100.0)
경남	88,899 (36.1)	95,091 (38.6)	41,999 (17.0)	13,387 (5.4)	5,530 (2.2)	1,681 (0.7)	246,587 (100.0)
제주	13,357 (31.7)	12,456 (29.6)	7,856 (18.7)	4,720 (11.2)	2,971 (7.1)	708 (1.7)	42,077 (100.0)
전국	538,493 (29.4)	625,795 (34.3)	375,672 (20.6)	165,427 (9.1)	94,438 (5.2)	26,519 (1.4)	1,826,344 (100.0)

資料：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1989.

다. 耕作規模가 3ha 이상인 농가의 구성비를 보면, 京畿道の 그것은 3.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慶南은 0.7%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반면에 耕作規模가 0.5ha 미만인 小農의 구성비를 보면 慶南의 그 비율은 36.1%로 市 地域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한 耕作規模가 1ha 미만인 농가는 전체의 74.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慶南은 典型的인 小農構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慶南地域에서는 大規模로 경영하는 單作 專門經營農家를 육성하기는 어렵고 地域特化作目이 결합된 複合經營農家 혹은 兼業農家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第5章에서 고찰한다.

## 第 3 章

# 地域農業의 成長

### 1. 課 題

農業發展이란 農業生産力の 증진을 통하여 實質生産 내지 實質所得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農業發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여러 가지 이용되지만 특정기간 동안의 生産量 혹은 所得 증가로서 나타내는 方法이 一般化되어 있는데, 이를 農業成長이라고 부르고 있다.

農業內部에서는 農業生産량의 절대적 성장이 중요하지만 農業과 非農業을 비교하여 農業의 상대적 貧困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勞動生産性 成長隔差를 이용한다. 즉, 農業從事者の 소득이 非農業分野 從事者の 소득에 비해 낮은 요인은 勞動生産性的 격차와 農家交易條件의 惡化이다. 물론 이때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生産性和 交易條件을 비교하게 된다.

또한 지역간에 農業所得의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勞動生産性を 이용한다. 그런데 土地利用型 작목일 경우 勞動生産性を 결정하는 요소는 土地生産性和 1인당 耕作規模이다. 土地生産性を 높이려면 耕地

基盤을 확충하고 生産技術을 혁신해야 한다. 아울러 1人당 耕作規模를 높이려고 할 때 우리 나라의 總耕作規模는 일정하므로 勞動投入量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勞動과 資本을 대체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營農機械化이다.

그러므로 農業內部에서 지역간 혹은 農業과 非農業分野間에 成長隔差를 비교할 때는 勞動生産性を 이용하여야 한다. 市·郡·道單位에서는 投入勞動量 資料를 얻기 어렵고 農業生産額을 예측하기도 현실상 많은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여기서는 農業成長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土地生産性を 제고시키는 요인으로서 農地基盤 擴充의 發展 水準, 勞動生産性 提高要因으로 耕地整理와 農業機械化의 進行過程을 고찰한다. 나아가 土地生産性を 나타내는 지표로서 單位當 收量變動, 經濟成長과 더불어 야기되는 植付面積變動, 이의 결과로 나타난 生産量變動 등을 고찰해 본다.

## 2. 農地基盤 擴充

### 가. 農地改良

土地生産性を 제고시키거나 農地の 總生産力을 높이기 위해 農地資源과 水資源의 形質을 변경하는 사업을 農地改良事業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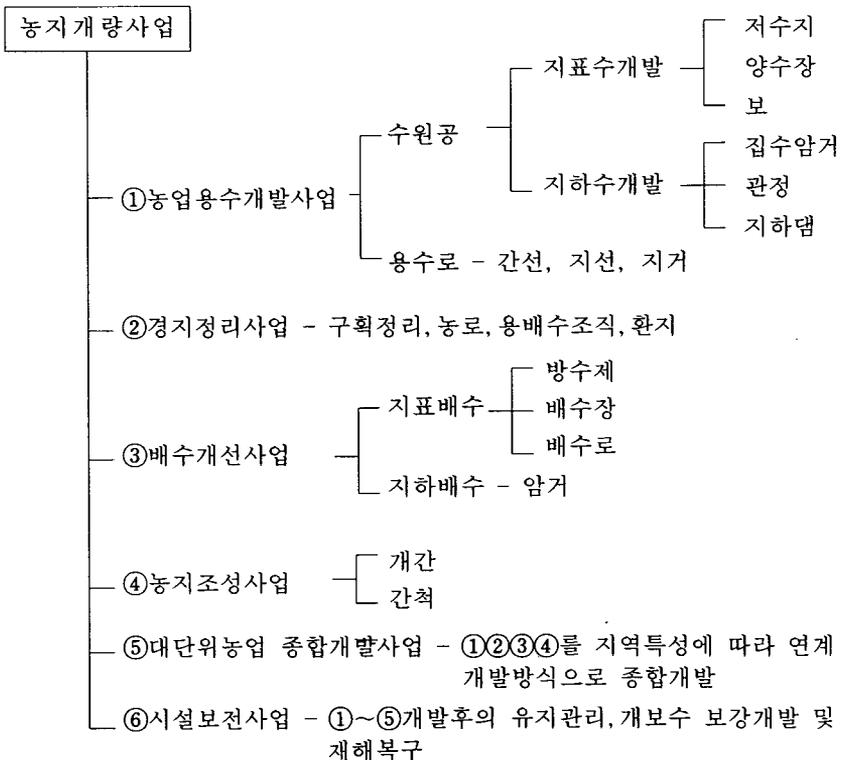
그러므로 農地改良事業은 ① 灌溉, 배수시설, 농업용 도로, 기타 農地の 保存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관리, 변경 또는 廢合, ② 구획정리, ③ 開畓 또는 開田, ④ 營農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 또는 개간, ⑤ 農地 또는 農地の 保全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⑥ 農地에 관한 권리와 農地の 이용에 필요한 권리 및 농업용 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交換分合, ⑦ 기타 農地の 개량 또는

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집약할 수 있다 (金聖昊 外 1989, 118-119). 이러한 農地改良事業을 內容別로 분류하면 <表 3-1>과 같다.

農地改良은 직접적으로 農業生産力 增大에 기여하게 되고 나아가 農業構造改善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므로 農業成長 내지 農業發展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農地改良事業에 관해 전반적으로 고찰하기에는 제약이 많아 여기서는 土地生産性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用水開發과 構造改善의 기반인 耕地整理에 관해 고찰하기로 한다.

表 3-1 農地改良事業의 內容別 分類



### 나. 農業用水 開發

農業用水를 개발에는 地表水를 이용하는 방법과 地下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地表水 開發에는 저수지 축조, 양수장 시설, 보 설치 등이 해당된다. 地下水 開發에는 집수암거, 관정, 지하댐 등이 있다. 개발한 用水를 農地까지 끌어오는 用水路 開發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는 관개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用水開發事業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결과, 1965년에는 水利畝 비율이 42%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에 72%로 늘어났다.

水利畝 비율을 市道別로 비교해 보면<表 3-2>, 慶南의 水利畝率은

表 3-2 市道別 水利畝 現況, 1988

單位: ha, %

	畝 面 積 (A)	水 利 畝			水利畝率 (B/A×100)
		農 組 畝	一 般 畝	小 計(B)	
서 울	1,438	1,286.2	1,164.2	122.0	89
부 산	4,721	4,255.2	4,154.7	100.5	90
대 구	4,075	3,295.6	1,729.1	1,566.5	81
인 천	2,455	1,653.2	872.4	780.8	67
광 주	13,444	10,879.8	5,985.1	4,894.7	81
경 기	195,785	120,374.1	72,768.2	47,605.9	61
강 원	66,528	45,150.8	13,694.9	31,455.9	68
충 북	82,615	61,301.3	29,680.5	31,620.8	74
충 남	204,750	157,953.1	74,856.3	83,096.8	77
전 북	185,509	135,348.6	99,475.2	35,873.4	73
전 남	213,713	152,933.3	79,321.9	73,611.4	72
경 북	209,139	159,676.3	61,140.1	98,536.2	76
경 남	172,702	126,028.7	57,185.1	68,843.6	73
제 주	983	890.3	15.6	724.7	91
전 국	1,357,857	981,026.5	502,193.3	478,833.2	72

資料: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1989.

73%로 전국 평균치 72%보다 높다. 總面積에서 차지하는 農耕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耕地의 基盤條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데 用水開發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되어 있다. 이는 洛東江과 南江이 관통하고 있어 用水開發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山間地域에는 大規模의 저수지를 개발하여 用水로 이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條件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用水開發에 수반되는 비용은 정부의 투융자사업으로 지원해 온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한편 慶南의 水利畝 現況이 <表 3-3>에 제시되어 있다. 用水開發方法과는 관계없이 農地改良組合에서 관리하는 用水의 管理답을 農組畝이라 하고 여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水利畝를 一般畝이라 한다.

1965년 水利畝率이 54.5%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8년에는 73.0%로

表 3-3 慶南의 水利畝 面積, 1965~88

單位: ha, %

	畝 面 積 (A)	水 利 畝			水利畝率 (B/A×100)
		農 組 畝	一 般 畝	小 計(B)	
1965	179,254	42,645	56,054	97,699	54.5
1970	172,601	48,537	94,752	143,289	83.7
1975	175,535	52,253	84,209	136,462	77.7
1980	167,417	52,547	93,309	145,856	85.0
1981	167,142	45,397	73,042	118,439	70.9
1982	166,918	46,370	71,903	118,273	70.9
1983	166,351	48,339	72,329	120,668	72.6
1984	165,925	48,301	73,021	121,322	73.2
1985	165,532	50,001	72,811	122,812	74.2
1986	165,023	55,315	68,674	123,989	75.2
1987	173,472	56,058	68,809	124,867	72.0
1988	172,702	57,185	68,844	126,029	73.0

資料: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각연도.

급증하였다. 農組畝는 크게 증가하고 一般畝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用水施設이 大規模化 내지 現代化하고 있기 때문이다.

慶南의 水利畝率은 높은 수준이지만 慶南道內 지역간에 격차가 크다 <表 3-4>, 물론 農地가 타용으로 전용될 市地域은 제외한다.

表 3-4 市郡別 水利畝 現況, 1988

單位: ha, %

	總 畝 面 積	水 利 畝 面 積	水 利 畝 率
창 원 시	580	249	43
울 산 시	2,022	1,678	83
마 산 시	437	133	30
진 주 시	776	395	51
진 해 시	1,251	373	30
충 무 시	91	29	32
삼 천 포	1,104	572	52
김 해 시	2,438	2,172	89
진 양 군	10,948	8,375	76
의 령 군	6,221	4,859	78
함 안 군	9,531	8,008	84
창 념 군	10,533	9,071	86
밀 양 군	13,746	10,598	77
양 산 군	8,115	4,878	60
울 주 군	11,393	6,737	59
김 해 군	11,786	10,366	88
의 창 군	8,489	7,183	85
통 영 군	1,902	836	84
거 제 군	4,706	2,685	57
고 성 군	9,256	7,262	78
사 천 군	6,620	4,005	61
남 해 군	5,314	3,399	64
하 동 군	9,002	8,137	90
산 청 군	8,373	5,912	71
함 양 군	7,570	4,584	61
거 창 군	8,887	6,397	72
함 천 군	11,611	7,135	61
합 계	172,702	126,028	73

資料: 慶尙南道 農地課.

첫째, 도서지역인 거제군의 水利畝率은 51%로 道內의 郡 중에서 가장 낮다. 이 지역에는 산기슭에 위치한 논이 많아 用水開發에 대한 內部投資收益率이 낮아 개발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많다. 南海郡의 水利畝率이 낮은 요인도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江이 관통하지 않고 구릉지대에 속하는 지역이 水利畝率이 낮다. 양산, 울주, 사천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江이 흐르지 않으므로 揚水場을 설치하기 어렵고 구릉지대가 많아 저수지를 축조하기도 어렵다. 이 세 郡은 農地條件은 유리하므로 앞으로 用水開發事業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山間地帶에 속하지만 農地面적이 적어 用水開發事業의 타당성이 낮은 지역에는 水利畝率이 낮다. 함양, 합천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산기슭에 소규모로 집단되어 있는 農地의 用水開發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畝은 주로 限界畝인데, 農地基盤을 확충해 나가기 보다는 限界畝를 논 이외 타용도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限界畝를 개발하여 地域特化作目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水利畝率이 높는데, 中規模 정도의 用水開發事業은 거의 완료되었고 앞으로는 小規模의 用水開發事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다. 耕地整理

經濟成長과 더불어 非農業分野에 就業機會가 증가하면 農業勞動力이 非農業分野에 유출되고 이에 따라 農村勞賃이 상승하게 된다. 勞賃이 상승하면 勞動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機械의 使用時間이 증가하게 된다. 水稻作과 麥作 農作業의 機械化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畝의 기반을 정비해야 하는데 이를 通常 耕地整理라 한다.

耕地整理 초창기에는 營農機械化를 통해 勞動生産性を 제고시키는

차원보다는 食糧增産政策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초창기에는 農民의 반발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지정리하게 되면 農路를 비롯한 공용시설이 설치되므로 감보가 많고 農地를 交換分合해야 하는데, 농민들이 이를 꺼려했다. 이것은 경지정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와 農業勞動力 流出이 가속화 됨에 따라 農作業의 機械化를 촉진시키기 위해 농가 스스로 耕地整理를 강력하게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농가의 요청과 정부의 食糧增産政策이 부합되어 耕地整理事業이 촉진되어 왔다.

〈表 3-5〉에는 慶南의 畓 耕地整理現況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耕地整理對象面積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理論上으로는 주어진 技術條件과 價格條件下에서 投資의 타당성이 있는 畓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政府當局이 제시한 對象面積을 그대로 인용하

表 3-5 慶南의 畓 耕地定理 現況, 1965~88

單位: ha, %

	畓 面 積 (A)	耕地整理對 象面積(B)	耕地整理 面積(C)	$C/A \times 100$	$C/B \times 100$
1965	179,254	98,373	3,881	2.2	4.0
1970	172,601	"	21,410	12.5	21.8
1975	175,535	"	36,068	20.6	36.7
1980	167,417	"	45,821	27.4	46.6
1981	167,142	"	47,652	28.5	48.5
1982	166,918	"	49,415	29.6	50.3
1983	166,351	"	51,064	30.7	51.9
1984	165,925	"	53,077	32.0	54.0
1985	165,532	"	54,882	33.2	55.8
1986	165,023	"	56,733	34.4	57.7
1987	173,472	"	59,821	34.5	60.9
1988	172,702	"	68,677	39.9	70.1

資料: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각연도.

였다. 新技術이 개발되고 價格條件이 바뀌면 대상면적도 변동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매년 일정하게 나타나 있다.

1965년까지 경지정리된 畝面積은 3,881ha로 總畝面積의 2.2%, 耕地整理對象 畝面積의 4.0%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매년 耕地整理事業이 가속되어 1980년에 와서는 경지정리된 畝의 총면적은 畝 總面積의 27.4%에 달하였고 耕地整理對象面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6%에 달했다.

1980년대에 와서는 農業勞動力 유출이 가속되어 農作業의 機械化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耕地整理事業이 촉진되었다. 8년간에 경지정리된 畝面積은 23千余ha에 달하였다. 1988년까지 경지정리된 畝面積은 全體 畝面積의 39.9%에 달했고 대상면적의 70.1%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지정리현황을 他道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耕地整理水準이 낮다. <表 3-6>에는 畝의 耕地整理現況이 道別로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慶南의 耕地整理對象面積이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다.

表 3-6 耕地整理畝의 道別 比較, 1988

單位: ha, %

	畝面積 (A)	耕地整理 對象面積(B)	耕地整理 面積 (C)	B/A	C/A	C/B
京畿	199	105	81	52.8	40.7	77.2
江原	66	23	17	34.9	25.8	74.0
忠北	83	43	29	51.8	35.0	62.5
忠南	201	104	78	51.8	38.8	75.0
全北	184	103	78	56.0	42.4	75.8
全南	225	128	85	56.9	37.8	66.4
慶北	215	96	78	44.7	36.3	81.3
慶南	179	103	70	57.6	39.1	68.0
濟州	1	1	-	100.0		
合計	1,352	706	516	52.3	38.2	73.1

資料: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1989.

우리 나라 總畝面積 중에서 차지하는 耕地整理對象面積의 비율은 52.3%인데 慶南의 그 비율은 59.9%로 약간 높다. 한편 전국의 경지정리된 면적은 총답면적의 38.2%에 달하는데, 耕地整理 對象面積의 73.1%가 경지정리 되었다.

慶南의 경우를 보면 경지정리된 면적은 대상면적의 68.0%에 지나지 않아 전국의 그 비율에 비해 낮다. 耕地整理現況은 慶南 道內의 각 郡間에 비교해 보기 위해 <表 3-7>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耕地整理의 對象面積은 각 地帶別로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지역에는 耕地整理 對象面積 비율이 낮다. 도서지역에는 平坦地에 있는 農地가 적고 주로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南海郡은 26%, 統營郡은 36%에 지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巨濟郡은 52%로 약간 높다.

둘째, 山間地帶에 속하는 각 郡에는 耕地整理 對象面積 비율이 비교적 낮다. 山間地帶에는 耕地基盤條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인데, 咸陽郡의 그 비율은 40%로 가장 낮고 山淸, 居昌, 陝川郡도 50% 미만이다.

셋째, 東部 구릉지대에 속하는 梁山郡과 蔚州郡에는 경지정리 대상면적 비율이 낮다. 이 2個 郡은 구릉지대가 많아 畝의 비율이 낮고 畝의 基盤條件이 불리하다. 蔚州郡의 경지정리 대상면적 비율은 41%에 지나지 않고 梁山郡은 45%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耕地整理 對象面積이 차지하는 정도는 各地帶別로 차이가 큰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런데 耕地整理 對象面積에서 차지하는 경지정리된 畝의 면적비율이 지역간에 격차가 크다.

물론 投資優先順位에 따라 耕地整理事業을 시행해 나간다면 平坦地에 위치하고 集團化된 畝의 규모가 큰 지역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補助事業은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投資優

先順位가 높은 지역이 먼저 경지정리 대상지역으로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耕地整理의 投資優先順位가 높다고 하더라도 用水가 확보되지 못하면 耕地整理를 할 수가 없고 또한 耕作者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경지정리를 수행할 수 없다.

表 3-7 市郡別 耕地整理畝 現況, 1988

單位: ha, %

	畝面積 (A)	耕地整理 對象面積(B)	耕地整理 面積 (C)	B/A×100	C/A×100	C/B×100
창원시	478	-	-	-	-	-
울산시	2,297	814	634	35	28	78
마산시	469					
진주시	773	496	336	64	43	68
진해시	1,226	-	-	-	-	-
충무시	108	-	-	-	-	-
삼천포	1,141	249	249	22	22	100
김해시	2,395	1,487	1,487	62	62	100
진양군	9,670	6,955	5,579	72	58	80
의령군	6,018	4,156	3,256	69	54	78
함안군	9,128	7,789	5,714	85	63	73
창녕군	10,184	8,700	5,944	85	58	68
밀양군	12,711	7,933	6,348	62	50	80
양산군	7,603	3,420	2,284	45	30	67
울주군	11,143	4,547	3,516	41	32	77
김해군	10,767	10,292	7,741	96	72	75
의창군	8,267	5,934	4,491	72	54	76
통영군	1,839	657	254	36	14	37
거제군	4,391	2,297	640	52	15	28
고성군	8,947	6,102	3,123	68	35	51
사천군	6,245	4,471	2,755	72	44	62
남해군	5,348	1,415	764	26	14	54
하동군	8,597	5,042	3,521	59	41	70
산청군	8,043	3,981	2,183	49	27	55
함양군	7,409	2,971	2,016	40	27	68
거창군	9,003	3,810	2,609	42	29	68
합천군	11,600	4,835	3,435	42	30	71
합계	165,000	98,373	68,879	60	42	70

資料: 慶尙南道 農地課.

島嶼地域인 統營郡과 巨濟郡에는 耕地對象面積에서 차지하는 耕地整理畝의 비율이 각각 37%, 28%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다. 이는 集團化된 畝의 규모가 적어 投資優先順位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또한 山間地帶의 耕地整理畝面積 比率이 낮는데 이는 投資優先順位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慶南의 耕地整理事業은 효율성에 기준을 둔다면 합리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農作業의 機械化를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當爲性의 입장에서, 投資의 효율성이 낮을지라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지정리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農地所有者가 耕地整理를 원하지 않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으로 있다. 畝의 基盤整理가 완료되면 優良農地로 보전해야 하므로 전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역에 따라서는 基盤整備된 優良農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農地保全方式은 筆地保全에서 圈域保全方式으로 바꾸고 있는데, 기반이 정비된 優良農地는 農業振興區域으로 지정되어 이 구역 안에 農地는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농지는 진흥구역 안에 들어 있지 않은 農地에 비해 地價가 떨어진다. 이것을 꺼려 農地所有者들은 耕地整理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農地保全方式이 바뀌게 되면 農業振興地域內에 있는 農地를 우선적으로 기반을 정비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미 耕地整理가 완료된 農地도 재차 규반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小型 農機械作業을 대상으로 경지정리하였기 때문에 農路가 좁아 트랙터, 콤바인의 進入이 어렵고 區劃의 規模가 600~900 평이므로 作業能率이 낮다. 따라서 農路를 넓히고 區劃을 확대시키는 耕地整理作業이 수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勞賃이 상승됨에 따라 用水路 管理費 負擔이 커지고 用水路 管理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人件費를 절감할 수 있도록 用水路를 개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再耕地整理事業을 착수해

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 3. 農業機械化

#### 가. 農業機械化 論理의 展開

經濟成長과 더불어 農業勞動力이 非農業分野로 유출되어 農業勞賃이 상승하게 되면 勞動과 資本의 代替가 일어난다. 즉, 農作業의 機械化가 촉진되어 가게 된다. 그런데 農業生産 主體가 農企業이라면 生産活動의 目的이 利潤極大化이므로 農業勞賃이 상승하게 되면 勞動과 資本의 대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農業의 生産主體인 농가는 生産活動과 消費活動이 분리되지 못한 家族經營體이고 農業構造面에서는 戶當 耕作規模가 1.0ha 내외인 典型的인 小農構造이다. 이러한 小農構造下에 놓여 있는 농가는 利潤極大化 혹은 所得極大化를 전제로 農作業의 機械化를 추진해 나가지 않는다. 더욱이 합리적으로 機械化하려면 각 機械別로 最小限의 作業規模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韓國의 農業機械化의 論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하나는 「小農構造下의 機械化論」이며, 또 하나는 「農業構造改善에 입각한 機械化論」이다(姜正一 外 1988, 13-20).

小農構造下의 機械化論에 의하면 農業機械化의 當위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農業機械化를 위해서는 개별 농가의 經營規模를 확대하여야 하지만 小農構造가 지배적이며 농가의 經濟剩餘가 낮고 아울러 農地의 유동이 촉진되지 않고 있어 經營規模 擴大는 어렵다. 그러므로 小農構造를 전제로 하고 農作業의 機械化를 촉진하여야 한다. 특히, 農業所得增大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農外就業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農作業의 機械化는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

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小農構造下의 機械化論에 따른다면 農作業의 協業化를 통한 規模擴大만이 機械化의 翫경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1981년부터 추진되어 온 '機械化 營農團' 조성사업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한편 構造改善에 입각한 機械化論에 의하면, 農業機械化는 農業構造改善을 위한 下位目標로 설정되고 있으며 「農業機械化는 零細經營構造를 전제한 단순한 勞動力 不足에 대처한 短期的이고 소극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農業構造改善의 촉진을 통한 産業으로서의 農業發展과 農業生産性을 높이기 위한 長期的이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을 따른다면 “農業人口流出→農業機械化”가 아니라 “農業機械化 → 農業人口流出”의 순서로 機械化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農業機械化를 촉진시키면 農家階層分化를 가져와 規模擴大를 이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大農은 機械化하여 地代負擔力을 높여 農地를 임대하여 규모를 확대하게 되고 中農과 小農 중에는 農地를 임대하고 農外就業하는 농가가 증가하게 되므로 農地流動이 촉진되어 規模擴大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機械化는 진행되고 있지만 規模擴大는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家族農의 機械化 要件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加用住文 1962).

첫째, 收益效果인데, 農業機械를 이용함에 따라 農業經營의 成果인 純收益에 미치는 효과를 들 수 있다.

둘째, 厚生效果로서, 農業機械의 利用에 의하여 肉體勞動에 대한 苦痛이 경감되고 餘暇가 증대되어 家族勞動의 效用이 증가된다. 즉, 농가라는 經濟主體의 經濟活動 목적이 效用極大化이므로 生産活動에만 국한시켜 農機械의 타당성을 분석한다면 小農構造下에서 일어나는 過渡機械化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營農機械化는 단순한 生産手段만이 아니고 生産活動에 투입되는 勞動을 절감시켜 效用을 높이는 수단으로

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心理的 效果를 들 수 있다. 農機械 導入에 따른 새로운 生産 體系에 대한 만족, 타농가에 우월하다는 만족, 農作業의 近代化에 따른 만족, 財産所有에 대한 만족 등의 효과가 크다. 生産主體가 農企業 이라면 이러한 만족은 성립되지 않지만 農家이므로 農機械가 耐久消費 財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農作業의 機械化에 대한 動機誘發, 農作業의 機械化의 효과는 家族農下에서는 간단하지 않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機械化 要因과 效果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하고 機械化의 展開過程을 간략하게 고찰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그친다.

#### 나. 主要 農機械 普及現況

農作業의 機械化 程度를 명확히 파악하려면 主要 作目別로 作業內容을 조사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資料를 구하기 어려워 農機械 普及 台數를 이용하여 農作業의 機械化를 추론해 내기로 한다.

〈表 3-8〉에는 慶南의 主要 農機械 普及台數와 각 農機械의 부담면적이 제시되어 있다. 트랙터의 負擔面積은 畓과 田의 耕耘과 整地作業을 트랙터만으로 수행한다고 할 때 할당되는 면적을 말한다. 물론 이 때는 農地 全部가 트랙터 작업이 가능하다는 前提를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콤바인의 부담면적은 水稻收穫作業을 전부 콤바인으로 수행한다고 할 때에 해당 부과되는 畓面積을 말한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1970년에는 主要 農機械 중에서 트랙터, 移秧機, 바인더, 콤바인은 보급되지 않았고 耕耘機의 總保有 台數도 1,539대에 불과하여 農家 100호당 保有台數는 0.5대에 지나지 않았다.

1970년 이후에는 農機械 普及가 가속되었는데, 1972년에는 트랙터 15대, 콤바인 4대, 移秧機 7대, 바인더 8대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農家 保有台數는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表 3-8 慶南의 主要 農機械 保有現況, 1970~88

單位: 台, ha

	동력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보유대수	보급률*	보유대수	부담면적	보유대수	부담면적		보유대수	부담면적
1970	1,539	0.5							
1975	12,301	4	27	9,568				9	19,503
1980	41,756	14	245	1,026	852	196	2,168	182	919
1981	50,594	18	424	590	1,090	153	2,484	371	450
1982	60,752	23	664	375	1,334	125	2,914	582	287
1983	72,014	27	836	296	1,544	108	3,772	869	191
1984	79,684	30	1,060	271	1,870	89	4,890	1,113	149
1985	84,818	33	1,278	190	2,205	75	5,515	1,282	129
1986	93,774	36	1,660	146	3,005	55	7,566	1,569	105
1987	95,465	38	1,970	124	4,064	43	9,289	1,914	91
1988	96,263	39	2,369	102	5,768	30	11,860	2,319	74

\*보급률 = (보유대수/농가호수) × 100.

資料: 경상남도, 「경남 통계연보」, 각연도.

1980년에는 耕耘機 普及率이 14%로 증가하였고 트랙터의 부담면적은 1,026ha이었고, 移秧機, 콤바인의 부담면적은 각각 96ha, 919ha이었다. 1980년대에는 機械化 營農團 事業 덕분에 트랙터, 移秧機, 콤바인의 普及台數는 급증하였다. 1988년의 트랙터 負擔面積은 102ha로 격감하였고 移秧機의 부담면적과 콤바인의 부담면적은 각각 30ha, 74ha로 격감하였다. 8년간에 각 農機械의 부담면적은 10분의 1 내외로 격감하였다.

動力耕耘機의 普及台數, 農地의 基盤條件, 作業面積을 감안한다면 트랙터는 적정 보유수준에 달했다 할 수 있다. 바인더의 보유대수를 감안하면 콤바인도 적정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農機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農機械의 普及台數를 증가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겠다. 물론 지역간에 격차가 큰 데 이 점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道別 主要 農機械의 普及率을 보면<表 3-9>, 慶南의 農業構造가 잘 반영되어 있다. 즉, 耕耘機의 普及率은 他道에 상대적으로 높고 트랙터의 보급률은 낮다. 이것은 戶當 耕作規模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小農地帶이고 農地基盤條件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移秧機의 보급률은 2.3%로 濟州道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고 收穫機의 보급률은 5.8%로 京畿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이다. 二毛作地帶이므로 二毛作畝의 이앙작업은 機械化가 곤란하다. 특히, 施設園藝를 재배한 二毛作畝에는 이앙이 늦어져 이앙기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앙기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에 水稻 收穫後에 곧바로 麥類를 파종하거나 施設園藝를 재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收穫期의 勞動需要 피크를 완화시키고 二毛作에 수반되는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 水稻作의 收穫作業機械化를 촉진하였기 때문에 收穫機 보급률이 他道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 났다.

表 3-9 道別 主要 農機械 普及率, 1988

單位:%

	耕耘機	트랙터	移秧機	防除機	收穫期	乾燥機
京畿	52.8	2.7	10.9	37.5	6.1	1.8
江原	42.8	0.8	6.4	30.0	4.2	0.5
忠北	44.7	1.1	6.1	32.8	2.4	0.8
忠南	37.4	1.5	6.4	35.9	3.6	0.7
全北	27.5	1.7	6.3	32.0	2.6	0.7
全南	28.1	1.1	2.8	36.8	2.0	0.2
慶北	49.9	0.8	3.7	40.5	4.4	0.3
慶南	37.4	1.0	2.3	38.7	5.8	0.3
濟州	44.1	0.7	0.1	39.6	1.9	0.03
全國	39.7	1.3	5.0	36.3	3.8	0.6

資料: 農林水産部, 「農林水産 主要統計」, 1989.

## 다. 機械化 營農團 育成

農業勞動力이 非農業分野로 유출되어 農村勞賃이 상승하고 일손이 부족하여도 小農構造下에서는 農作業의 機械化가 촉진되지 못한다. 특히, 水稻作에는 耕耘整地, 移秧, 防除, 收穫作業에는 각각 별도의 農機械를 필요로 하는데 각 農機械別로 적정 作業規模를 확보해야만 農機械를 구입할 수 있다.

한편 經濟成長을 가속시키려면 農業勞動力을 農業에서 빼내어 非農業分野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農作業의 機械化를 촉진시켜야 한다. 各 農機械의 적정 作業規模를 축소시켜 農作業의 機械化를 가속시킬 목적으로 農機械 補助事業을 수행해 왔다.

다른 한편에서 볼 때 小農經濟下에서 個別 農家單位로 農機械를 소유하고 이용하게 되면 過渡機械化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小農構造下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하여야만 農機械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機械化 營農團」을 조직케 하여 트랙터, 移秧機, 콤파인 등의 農機械를 보급하였다.

물론 「機械化 營農團」을 육성하기 이전에도 農作業의 機械化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이 있었다. 즉, 1970년대에는 「綜合 農業機械化 示範團地」와 「營農機械化 센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綜合 農業機械化 示範團地」는 1977~81년까지 7개가 조직되었는데, 3개는 單位組合에서 운영하고 4개는 農事組合에서 직영하였다. 한편 「營農機械化 센터」는 1977~81년까지 510개가 조성되어 單協에서 322개, 農事組合에서 128개를 운영하였다. 農機械의 작업을 수행하는 主體가 單位農事組合이었으므로 農機械의 이용률이 낮고 農機械의 管理 소홀로 修理費 부담이 높으며 運轉者 고용에 따른 人件費 負擔이 높아 經營收支 赤字가 누적되어 운영이 어려웠다.

이에 政策當局에서는 農機械의 普及方式을 바꾸어 「機械化 營農團」을 육성케 하였다. 1981년에 처음으로 전국에 612個 조성되었고<

表 3-10>, 1988년까지 총 4,066개가 조성되었다.

특히, 慶南의 경우 初期段階에는 「機械化 營農團」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매년 급증하여 1988년에는 총 600개에 달하고 있고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機械化 營農團」의 최저 農地規模는 10ha이고 참여 農家戶數는 최저 10호인데, 營農團을 조직하여 트랙터, 移秧機, 콤바인을 一組로 구입하면 정부에서 購入資金의 40%를 융자해 주고 農協에서 50%를 長期·低利로 융자해 주므로 購入者는 現金10%만 부담하면 된다. 1988년부터 購入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補助 50%, 長期·低利 융자 50%로 변경시켰다.

또한 「機械化 營農團」을 통한 農機械 普及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1987년부터는 大規模와 小規模로 분리하여 조성해 오고 있는데, 大規模의 資格要件은 증전과 같고 小規模의 要件은 耕地規模 5ha 이상, 참여농가 5호 이상이다.

表 3-10 市道別 機械化 營農團 育成 現況, 1988

單位: 個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京畿	55	160	150	146	176	159	438	705
江原	40	71	70	53	37	44	149	304
忠北	50	66	75	83	66	76	203	342
忠南	175	85	133	131	140	140	452	602
全北	35	159	184	180	180	161	454	524
全南	63	127	118	169	199	202	548	441
慶北	118	159	141	156	164	177	508	509
慶南	60	167	116	127	132	136	422	600
濟州	10	9	10	5	1	1	2	3
기타(5대도시)	6	7	8	8	5	4	-36	
全 國	612	1,010	1,005	1,058	1,100	1,100	3,176	4,066

資料: 農林水産部, 「農林水産 主要統計」, 1989.

이와 같이 共同所有, 共同利用이라는 目標下에 農機械를 보급해 왔는데, 이대로 실현되고 있는가가 의문시 된다. 즉, 共同所有, 共同利用은 理念上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慶南內에서 水稻作 지역을 선정하여 農機械의 所有와 利用實態를 조사분석한 研究(金秉鐸外 1986, 130-146)에 의하면 「機械化 營農團」을 조직하여 農機械를 구입한 후에는 개별적으로 각자 소유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1988년 현재 전국에 4,000여개의 「機械化 營農團」이 구성되어 있으나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機械化 營農團」은 거의 찾아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즉, 「機械化 營農團」은 農機械 購入資金을 보조하고 융자해 주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機械化 營農團」을 통하여 農機械를 구입한 농가는 自己所有農地만으로 作業面積이 확보되지 않으면 賃耕作業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機械化 營農團」을 통하여 大型 農機械를 공급하지 않고 農機械를 구입하는 농가에게 구입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주었다고 한다면 農機械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機械化 營農團」을 조직하여 조직을 통하여 農機械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耕作規模가 상대적으로 큰 中農階層 혹은 大農階層에 속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賃耕作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 만약 耕作規模가 영세한 영농후계자, 혹은 基幹農家に 「機械化 營農團」과 동일한 조건으로 農機械를 보급하였다면 이들 농가는 賃耕作業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賃耕料는 하락하고, 農作業의 機械化는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보급되어 있으나 이용률이 낮은 中古 農機械를 영농후계자나 基幹農家가 구입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장치와 자금지원체제를 마련할 것이 요망되고 있다.

### 라. 農機械 普及의 地域間 比較

慶南의 農機械普及은 전국에 비해 뒤지지 않고 있다. 특히, 機械化 營農團을 통하여 보급된 主要 農機械는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慶南道內에서는 지역간에 격차가 크다. 물론 農地基盤條件이 상이하고 호당 耕地規模의 격차가 크므로 農作業의 機械化 程度에는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表 3-11〉에는 機械化 營農團 育成 현황이 市郡別로 제시되어 있다.

表 3-11 地域別 機械化 營農團 育成現況, 1981~88

單位: 個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合 計
창원시	-	-	-	-	-	-	1	-	1
울산시	-	1	-	-	1	-	2	-	4
진주시	2	-	-	-	-	-	4	2	8
삼천포	-	1	-	-	-	-	2	1	4
김해시	2	4	4	4	6	6	13	18	57
진양군	6	9	10	12	9	10	38	43	137
의령군	2	5	7	7	6	8	15	36	86
함안군	2	10	10	16	3	15	25	43	124
창녕군	5	19	14	14	20	11	36	55	174
밀양군	2	11	10	12	21	15	38	49	158
양산군	2	10	4	6	5	5	9	21	62
울주군	2	7	2	2	2	8	19	42	84
김해군	8	16	12	16	15	10	33	30	140
의창군	4	16	7	12	8	9	21	32	109
통영군	1	1	1	-	-	-	3	5	11
거제군	3	4	-	1	-	-	6	4	18
고성군	5	10	7	3	5	4	14	25	73
사천군	2	8	4	3	4	5	20	32	78
남해군	1	3	2	2	2	3	13	25	51
하동군	3	8	6	4	6	6	29	42	104
산청군	1	6	4	4	8	6	25	32	86
함양군	1	6	2	1	1	4	11	19	45
거창군	3	5	4	-	2	3	18	18	53
합천군	3	7	6	8	8	8	27	26	93
합 計	60	167	116	127	127	136	422	600	1,760

資料: 慶尙南道 農産課.

營農團이 가장 많은 곳은 밀양군으로 49개이고 가장 적은 곳은 거제군으로 4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원한 機械化 營農團의 개수만으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각 郡마다 耕地의 基盤條件이나 農産物의 生産組織, 호당 耕地規模, 耕作規模別 農家分布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機械化 營農團을 조성할 초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郡에 안배하였으나, 현단계에서는 신청하는 機械化 營農團은 거의 전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支援配分에 따른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機械化 營農團을 통하여 보급된 農機械를 포함한 主要 農機械 保有台數와 農機械別 負擔面積이 市郡別로 <表3-12>에 제시되어 있다.

농가 100호당 耕耘機 保有台數가 가장 많은 곳은 晉陽郡으로 51대이고 가장 적은 곳은 統營郡인데 9대에 불과하다. 耕耘機의 보급률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地帶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트랙터의 부담면적은 지역간에 격차가 크다. 부담면적이 가장 적은 곳은 金海市로 30ha에 불과하고 郡 중에서 부담면적이 가장 많은 곳은 統營郡으로 342ha에 달한다. 準平野地帶에 속하는 각 郡에는 트랙터의 부담면적이 적고 山間地帶에 속하는 郡은 부담면적이 많다. 물론 도서지역의 각 郡의 耕地는 트랙터 작업이 불가능한 耕地가 많다.

한편 移秧機의 부담면적이 가장 낮은 곳도 역시 金海市인데, 그 규모는 10ha에 불과하고 가장 많은 郡은 咸陽郡으로 116ha에 이르고 있다. 準平野地帶에는 移秧機의 부담면적이 적고 山間地帶에는 많다.

콤바인의 부담면적을 보면 金海市의 부담면적이 29ha로 가장 적고 郡 중에서 부담면적이 가장 많은 곳은 統營郡으로 336ha에 달한다. 콤바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準平野地帶에는 부담면적이 적어 손익분기점에 가깝다.

콤바인이 진입하지 못하는 畝를 고려한다면 이미 보급된 콤바인을 잘 활용한다면 農作業의 機械化 수준을 높일 수 있다. 山間地帶에는

表 3-12 地域別 主要 農機械 保有台數, 1988

單位: 台, ha

	동력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보유 대수	100호당 대수	보유 대수	부담 면적	보유 대수	부담 면적		보유 대수	부담 면적
창원시	156	13	1	2,100	4	404	7	-	-
울산시	766	24	12	332	22	113	45	2	1,242
마산시	118	12	1	874	-	-	17	1	561
진주시	856	34	13	17	9	98	17	8	110
진해시	387	18	-	-	1	1,171	19	3	390
충무시	42	5	-	0	-	-	2	-	-
삼천포	801	25	7	241	12	94	228	4	283
김해시	687	24	95	30	139	18	38	86	29
진양군	8,133	51	136	110	369	27	562	237	64
의령군	3,436	32	103	101	191	32	227	193	31
함안군	4,788	34	184	78	437	21	342	240	38
창녕군	6,679	32	216	76	328	30	978	146	68
밀양군	8,467	40	263	71	664	20	1,475	235	56
양산군	4,106	32	134	86	429	19	695	54	150
울주군	6,403	42	84	190	574	20	1,247	60	190
김해군	5,071	39	248	57	598	18	301	182	60
의창군	4,313	38	144	77	286	30	551	172	49
통영군	660	9	1	342	20	101	46	6	336
거제군	1,608	13	47	161	81	60	127	35	139
고성군	5,001	36	174	74	284	32	1,342	114	80
사천군	4,303	42	66	124	416	16	975	89	74
남해군	4,420	31	88	98	160	32	192	45	115
하동군	4,789	39	73	163	227	38	375	100	87
산청군	4,875	49	80	143	199	41	628	92	89
함양군	3,381	33	39	288	64	116	182	39	190
거창군	5,621	41	53	251	108	80	309	38	228
합천군	6,395	36	93	191	146	80	933	138	85

資料: 경상남도, 「경남 통계연보」, 1989.

콤바인의 부담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콤바인으로 작업할 수 있는  
 畚의 규모가 밝혀지지 않아 普及台數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는지의 여  
 부를 진단할 수 없다.

平野地帶 내지 準平野地帶에는 바인더의 舊式化(economic obsolescence)  
 가 이미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인더의 普及台數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콤바인이 보급되기 전에 보급된 바인더의 내구년  
 한이 끝나지 않았는데 콤바인이 도입되어 바인더의 舊式化가 일어났  
 다. 그러나 山間地帶에는 基盤條件이 불리하여 콤바인으로 수확하기  
 어려운 畚이 많아 바인더의 舊式化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平野地帶 내지 準平野地帶에서 舊式化 되어 있는 바인더를  
 山間地帶에 판매할 수 있도록 農機械 中古品 매매센타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山間地帶에는 基盤條件이 불리하여 農作業의 機械化 수준이 낮  
 아 상대적으로 농업의 수익성이 낮다. 또한 在村農外就業機會가 거의  
 없어 農村勞動力이 都市로 유출되어 勞賃水準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러한 요인으로 農家所得은 地帶間에 그 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러므  
 로 지역간의 농가소득 격차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山間地帶에 農地基盤  
 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耕種作物 生産

##### 가. 植付面積 變動

慶南의 總植付面積은 1960년에는 398千ha이었으나 1988년에는 290千  
 ha로 감소하였다. 經濟成長과 더불어 非農業分野로 전용되는 農地가  
 개간, 간척 등에 의해 확대되는 農地보다 많기 때문에 總耕地規模는  
 감소해 왔다. 아울러 經濟成長과 더불어 二毛作 面積도 감소해 왔으며

로 總植付面積이 감소해 왔다.

그러나 作物間에는 植付面積의 변동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즉, 經濟成長과 더불어 소득이 증가하는 農産物, 이른바 成長農産物은 식부면적이 증대할 것이고 쇠퇴 농산물은 감소해 갈 것이다. 이를 生産構造改善이라 하는데 生産構造改善은 그 지역의 農業立地條件과 農地基盤 내지는 地域經濟與件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여기서는 주요 농산물의 식부면적의 변동추세를 고찰해 본다. 1960년부터 1988년까지 植付面積을 資料를 이용하여 3개년 移動平均値를 구하여 1961년을 기준으로 한 변동지수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 □ 食糧作物

쌀은 基本食糧이지만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1인당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쇠퇴작목이라 하겠다. 그러나 「二重價格制」로 價格을 지지하고 있고 水稻栽培期間 中에는 水稻보다 수익성이 높은 代替作物이 없어 (圖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水稻植付面積은 年次變動이 거의 없으며 長期的으로는 감소추세에 있다. <表 3-1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1962년에서 1987년까지의 연평균 식부면적 감소율은 0.25%이고 각 기간별로 큰 차이가 없다.

水稻의 植付面積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요인 중에는 制度的 要因도 포함된다. 즉, 지금까지는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에 의거하여 논에는 水稻를 재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쌀의 需給事情이 호전되고 生産過剩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최근에는 農地保全 및 利用體系를 바꾸었다. 絶對農地인 논에도 恒久的인 農業用 施設을 설치할 수 있고 永年生 作物을 재배할 수 있도록 農地利用規制를 완화하였다. 따라서 今後 慶南地域에는 水稻植付面積의 감소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형적인 衰退作物이라 할 수 있는 보리의 植付面積 변동추세를 보면 (圖 3-1), 1960년대 중반까지는 植付面積이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에는 식부면적이 격감하였다. 기간별 식부면적 증감률을 보면(表 3-13), 1960년대에는 연평균 3.63%씩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에 와서는 연평균 5.59%씩 감소하였고 1980년대에 와서는 연평균 감소율이 9.87%로 가속되었다.

表 3-13 期間別 主要 作物 植付面積 年平均 增減率

單位: %

품 목	1962~69	1970~79	1980~87	1962~87	품 목	1962~69	1970~79	1980~87	1962~87
쌀	-0.25	-0.38	-0.13	-0.25	호 박	8.45	0.57	-13.88	-1.45
맥류전체	3.67	-6.04	-7.03	-3.36	참 외	8.44	-4.65	-9.25	-2.04
보 리	3.63	-5.59	-9.87	-4.07	수 박	15.99	4.61	1.28	7.08
밀	5.59	-8.17	-24.22	-8.87	고 추	17.64	7.81	-2.67	7.61
잡곡전체	-10.36	-7.11	1.45	-5.57	마 늘	15.61	9.38	2.93	9.31
조	-16.32	-17.33	-9.75	-14.69	토 마 토	8.13	-3.41	-11.75	-2.43
수 수	1.50	-3.49	-14.76	-5.42	파	22.31	2.33	3.96	8.98
옥 수 수	13.05	0.30	-0.35	4.02	양 파	37.06	4.22	2.78	13.88
두류전체	-1.24	-1.19	-3.17	-1.81	시 금 치	36.15	-3.60	-1.43	9.29
대 두	-1.86	-1.34	-2.49	-1.85	과실류전체	12.58	4.86	2.35	6.46
소 두	-0.61	-3.31	-0.60	-1.65	사 과	12.59	12.67	-4.97	7.22
녹 두	11.97	-2.85	-7.51	0.28	배	5.72	4.87	-0.32	3.53
서류전체	13.06	-5.59	-8.08	-0.62	복 승 아	15.89	0.91	1.85	5.81
고 구 마	42.43	-6.95	-9.38	7.49	포 도	32.27	-3.54	9.97	11.63
감 자	-2.68	-0.67	-4.91	-2.60	감	9.21	5.17	7.94	7.27
무	6.11	-0.35	-5.42	-0.83	특작전체	10.22	-2.65	-1.66	1.57
배 추	6.72	1.62	-7.77	-0.30	참 깨	40.94	9.86	-1.12	15.66
양 배 추	14.33	-4.14	-7.42	0.54	들 깨	30.64	0.17	4.38	10.84
오 이	14.52	-3.94	-1.88	2.37	엽 연 초	3.64	-8.72	12.08	1.48

圖 3-1 主穀 植付面積 指數, 196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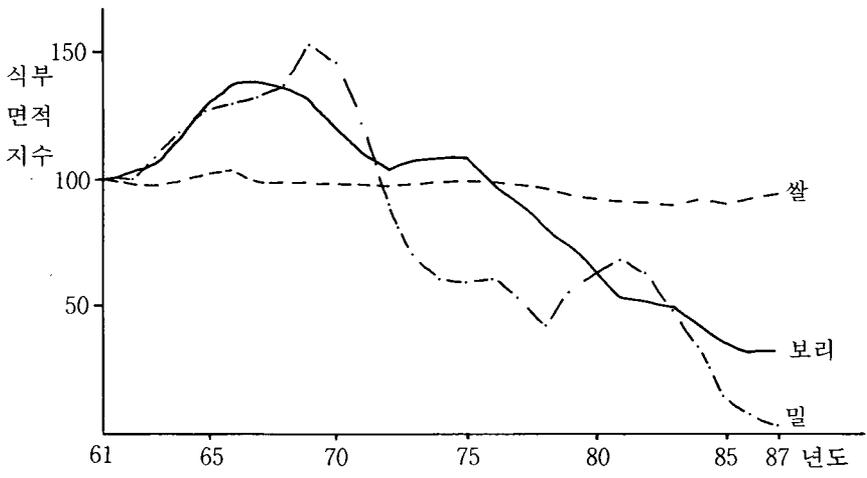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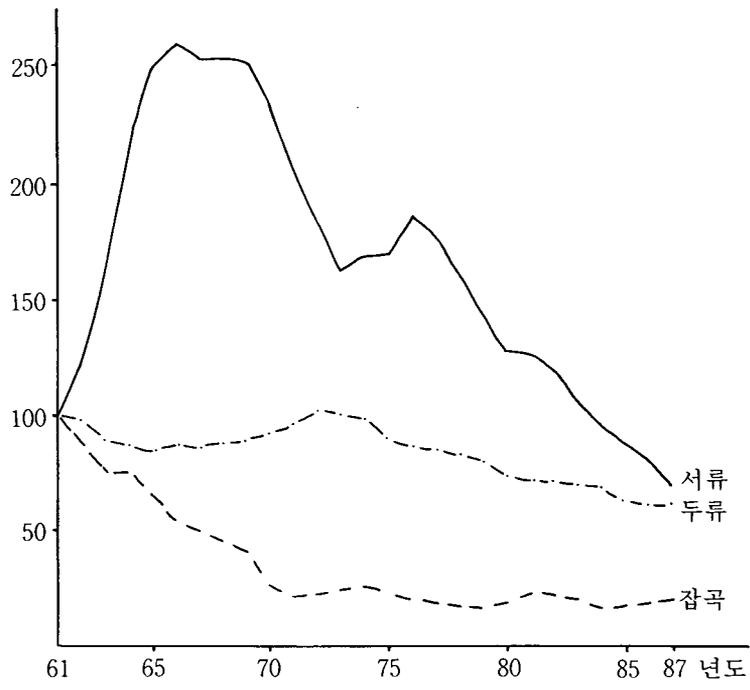


圖 3-2 雜穀, 豆類, 薯類 植付面積 指數, 1961~87



二毛作地帶인 慶南의 보리 植付面積이 감소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농가의 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보리의 植付面積을 축소시키고 있다. 農家の 經濟活動 目的은 效用極大化이므로 보리를 재배하여 얻은 소득이 가져다 주는 限界效用과 보리재배로 증가되는 勞動力의 限界苦痛과의 결합에서 最適조건을 찾게 되므로 소득이 증가하면 보리 栽培面積을 줄이게 된다.

둘째, 畚裏作으로 보리 대신에 單位時間當 報酬가 더 높은 施設園藝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셋째, 農家勞動力이 감소함에 따라 보리 收穫과 水稻 移秧作業, 그리고 水稻收穫과 보리 파종작업의 勞動需要 피-크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리재배를 포기하게 된다.

보리의 收益性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農業勞動力 부족은 심화되어 갈 것이므로 보리의 식부면적은 격감해 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밀도 보리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에는 식부면적이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격감하기 시작하여 1987년 현재 밀 식부면적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圖 3-2〉에는 쇠퇴작목인 서류, 두류, 잡곡의 植付面積 變動指數가 나타나 있다.

서류 植付面積은 1960년대에는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격감하였다. 서류 중에서 고구마는 1960년대에 연평균 42.43%씩 급증하였는데, 이는 주정원료로 이용하는 고구마의 증산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慶南의 도서지방은 고구마 특화지역이었으므로 증산정책의 영향으로 植付面積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는 식부면적이 연평균 9.38%씩 격감해 왔다.

두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잡곡은 1960년대에는 격감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감소율이 약간 둔화되었고 1980년대에 와서는 변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雜穀類의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으나 노동력이 감소함에 따라 耕地基盤條件이 열악한 밭에는 勞動粗放의인 雜穀類를 재배하는 면적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傳統的인 食糧作物의 植付面積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이는 慶南의 農業은 經濟成長에 부응하여 식부면적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 ② 菜蔬類

菜蔬類를 대표하는 노지 배추와 노지 무의 植付面積 변동추세가 <圖 3-3>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의 배추와 무는 거의 전부가 김장배추와 김장무이다.

김장배추는 1960년대에는 식부면적이 급증하였다가 1970년대에는 정체상태이고 1980년대에 와서는 격감하였다. 즉, <表 3-1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60년대에는 연평균 식부면적 증가율이 6.72%에 달했으나 1980년대에 와서는 연평균 7.77%씩 감소해 왔다.

김장무도 김장배추와 유사한 변동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변동폭이 작다. 1960년대에는 연평균 6.11%씩 증가하였다가 1970년대에는 연평균 0.35%씩 감소해 왔고 1980년대에 와서는 감소율이 가속되었다.

經濟成長 初期段階인 1960년대에는 김장배추 김장무의 수요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植付面積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와서 식부면적이 격감하였는데, 이 요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즉, 慶南에 있어 김장배추와 김장무의 主産地域은 洛東江 및 南江流域의 강변 平野地帶이다. 이 地帶에 施設園藝 栽培面積이 증가함에 따라 김장배추와 김장무의 식부면적은 감소하였다. 菜蔬類 중에서 상대적으로 쇠퇴작목에 속하는 채소의 식부면적은 감소해 왔다고 하겠다.

한편 果菜類 중에서 副食類에 속하는 노지 오이와 노지 호박의 植付面積은 1970년대 후반에 와서 감소해 왔다 <圖 3-4>. 즉 오이의 경우, 1960년대에는 연평균 14.52%로 급증하였다가 1970년대에는 연평균

圖 3-3 김장채소 植付面積 指數, 196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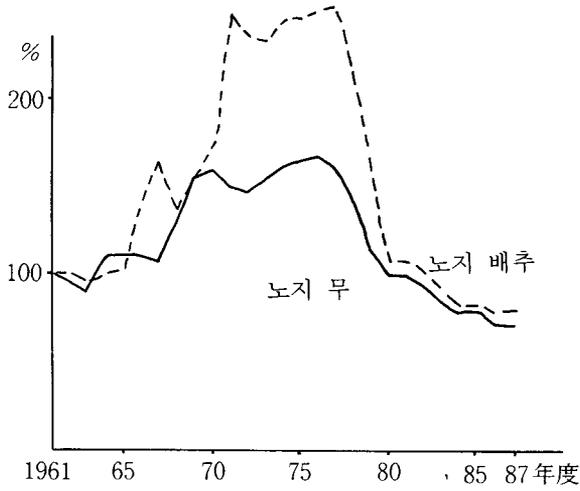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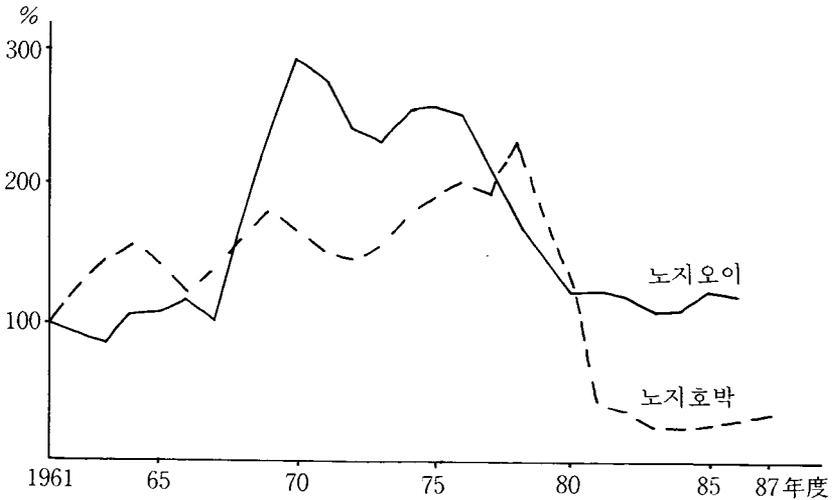


圖 3-4 노지오이, 노지호박 植付面積 指數, 1961~87



3.94%씩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1980년대에 와서는 감소율이 둔화되었다. 노지 호박은 1970년대 후반부터 植付面積이 격감하였는데 식부면적의 구성비로 판단할 때 농가의 所得作目에서 탈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지 수박, 노지 참외, 노지 토마토의 植付面積 변동추세가 <圖 3-5>에 나타나 있다. 노지 수박의 植付面積은 196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고 198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08%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노지 참외와 노지 토마토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식부면적이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격감하였다.

즉, 참외의 植付面積은 1980년대에 들어와 年平均 9.26%씩 감소해 왔고 同期間에 있어 토마토의 식부면적 감소율은 11.75%에 달하고 있다. 植付面積의 절대치를 두고 판단한다면 두 작목은 慶南의 所得作目에 탈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설 참외와 시설 토마토 植付面積이 증가함에 따라 노지 참외와 노지 토마토는 식부면적이 감소해 왔다. 즉, 노지 참외와 노지 토마토는 여름과일로서의 중요도가 낮아졌다. 반면에 수박은 여름과일로서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노지 수박의 식부면적이 급증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양념류 채소인 고추, 마늘, 양파의 식부면적 변동추세가 <圖 3-6>에 제시되어 있다. 양파의 식부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에 와서는 1961년에 비해 150배 이상 증가하였다. 마늘 植付面積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대에는 基準年度에 비해 5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노지 고추의 식부면적은 1980년초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 감소해 오고 있다. 노지 고추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嶺南초 主産地域에서 嶺南초가 고추로 대체되고 있어 慶南의 노지 고추는 比較優位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圖 3-5 主要 果菜類 植付面積 指數, 196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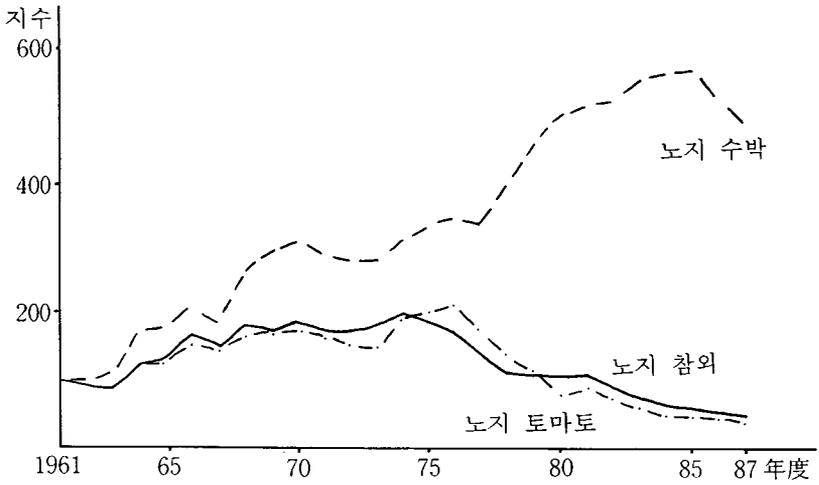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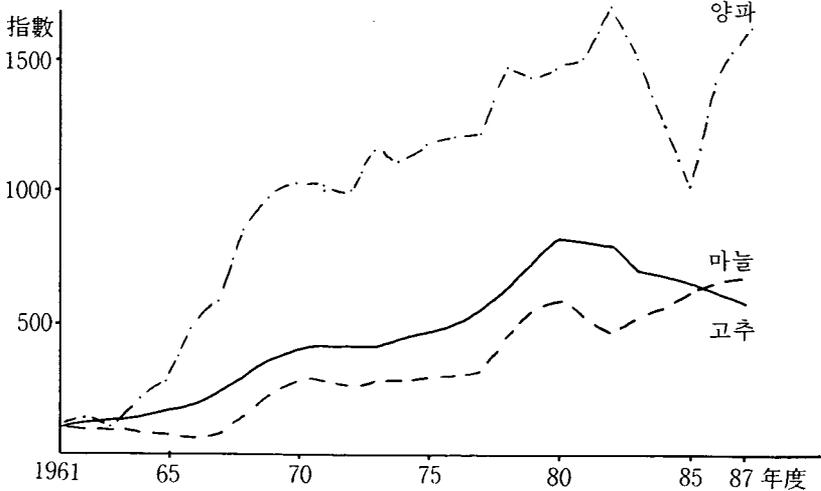


圖 3-6 主要 양념 菜蔬類 植付面積 指數, 1961~87



### ③ 果實類와 特用作物

사과, 복숭아, 배의 식부면적 변동추세가 <圖 3-7>에 나타나 있다. 사과의 植付面積은 1960年初에는 200여ha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 급증하였다. 이는 거창, 함양 등의 西部慶南地域이 사과 主産地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과의 식부면적이 1980년대에 와서는 감소해 온 추세인데, 이는 재래 品種이 新品種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收益性이 낮은 果園이 도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숭아와 배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정체 상태에 있는데, 배 栽培 主産地를 확대하기 어렵고 기존의 主産地域에는 勞動力 부족으로 식부면적을 확대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포도와 감의 植付面積 변동추세가 <圖 3-8>에 제시되어 있다. 1960년대 초 포도의 植付面積은 100ha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식부면적이 급증하였다가 다시 격감해 왔고 1980년대 와서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도의 식부면적 변동폭이 큰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經濟成長과 더불어 과일로 소비하는 포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慶南에도 포도의 植付面積이 증가하였다.

둘째, 1970년대에 와서 慶南의 포도는 比較優位가 약화되어 식부면적이 격감하였다.

셋째, 1980년대에는 식품가공회사에서 양조용 포도단지를 조성하였고 주변 농가에도 보급하여 계약재배체제를 갖추게 되어 포도의 식부면적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포도주의 수입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양조용 포도의 계약재배가 해지되고, 행정당국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타작목으로 대체시키고 있다. 이에 慶南의 포도 植付面積은 또 다시 격감해 갈 것이다.

감은 식부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70년대 중반부터 식부면적이 증가한 요인은 단감의 植付面積 증가이다. 단감은 慶南과

圖 3-7 主要 果實類 植付面積 指數, 196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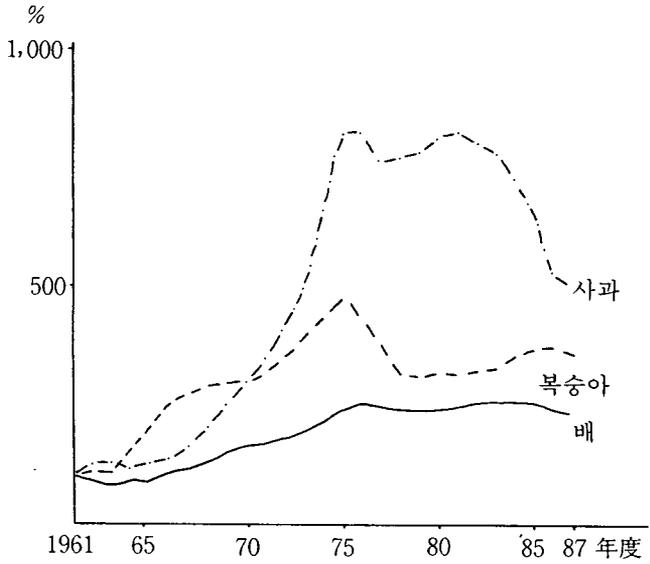


圖 3-8 포도, 감 植付面積 指數, 196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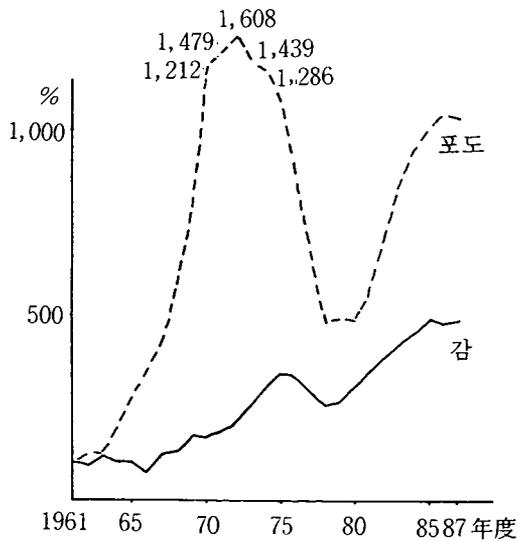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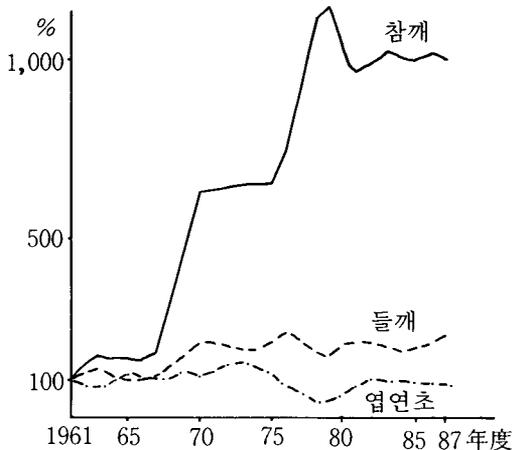


圖 3-9 主要 特用作物 植付面積 指數, 1961~87



全南의 南部地域에만 재배 가능하므로 1970년대 이후에 식부면적이 급증하였고 慶南의 特化作目으로 정착되었다.

참깨 식부면적은 정부의 增産政策에 힘입어 基準年度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들깨 식부면적은 1960년대 이후 정체상태이며, 엽연초의 植付面積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圖 3-9).

#### 나. 單位當 收量 變動

##### ① 土地生産性 제고 요인

小農經濟下에 놓여 있는 농가는 經濟成長過程에서 經濟活動의 목적이 변하게 된다. 주어진 農地로 많은 家族을 부양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生産活動의 목적은 食糧生産 極大化이다. 이 때는 土地生産性的의 극대화를 통해 總生産量의 극대화를 도모하려 한다.

한편 經濟成長과 더불어 農業과 非農業間에 소득격차가 심화된 경우, 이를 해결하려면 農業勞動生産성을 제고시켜야 하는데, 土地生産성은 勞動生産성을 제고시키는 방편으로 전략하게 된다. 즉, 勞動增投를

수반하는 土地生産性 제고는 勞動生産性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土地生産性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서 ① 農地의 基盤擴充, ② 農業用水 開發, ③ 生物 化學的 技術開發, ④ 集約度 提高 등이 있다.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분석하기는 어렵고 여기서는 長期的으로 土地生産性이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를 고찰한다.

## ② 主穀

〈圖 3-10〉에는 쌀, 大麥, 옥수수 단수의 변동추세가 나타나 있다. 쌀 단수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1980년대에 와서는 증가추세가 둔화되었다. 쌀은 1970년대까지는 統一系 新品種의 단수 증가율이 높았으나 1980년대에 와서는 둔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의 쌀 단수 연평균 증가율은 1.45%에 지나지 않고 있다(表 3-14).

表 3-14 主要 作物 段收의 期間別 年平均 增減率

單位: %

품 목	1962~69	1970~79	1980~87	1962~87	품 목	1962~69	1970~79	1980~87	
쌀	4.65	2.64	1.45	2.90	노지호박	3.30	2.31	0.78	2.14
대 맥	12.61	1.90	-0.19	4.55	노지참외	9.26	-0.16	-0.66	2.58
나 맥	9.51	1.18	-1.29	2.98	노지수박	7.11	1.53	-0.75	2.54
소 맥	12.13	2.09	0.74	4.77	마 늘	4.82	-0.63	3.81	2.41
조	-2.92	1.38	2.23	0.31	토 마 토	12.01	1.95	-0.51	4.29
옥 수 수	1.43	3.85	4.70	3.36	파	0.37	2.66	6.56	3.15
대 두	4.11	5.27	3.51	4.37	양 파	8.89	3.02	2.40	4.64
소 두	2.38	3.86	2.62	3.02	당 근	0.55	5.37	0.15	2.28
녹 두	-0.10	1.72	2.62	1.44	사 과	7.98	-3.41	10.07	4.24
감 자	13.93	0.84	6.90	6.73	배	9.16	-8.85	15.38	4.15
고 구 마	21.39	3.15	0.19	7.85	복 승 아	14.53	-4.56	5.33	4.36
무	1.95	12.39	1.56	5.85	포 도	9.03	-2.95	4.87	3.14
배 추	9.75	0.61	0.46	3.38	참 깨	1.23	-3.12	8.28	1.72
양 배 추	7.21	0.61	0.46	2.60	들 깨	8.27	-2.99	1.75	1.93
노지오이	13.89	1.24	0.17	4.80					

한편 大麥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에는 연평균 12.61%씩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에 증가율이 둔화되었다가 1980년대에는 감소해 왔다. 農業勞動力이 감소함에 따라 보리 재배의 勞動集約도가 낮아져 土地生

圖 3-10 主要 穀類의 段數 指數, 196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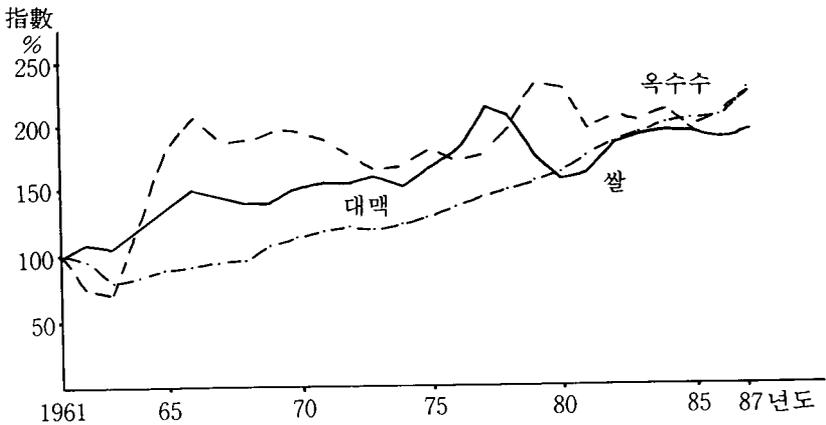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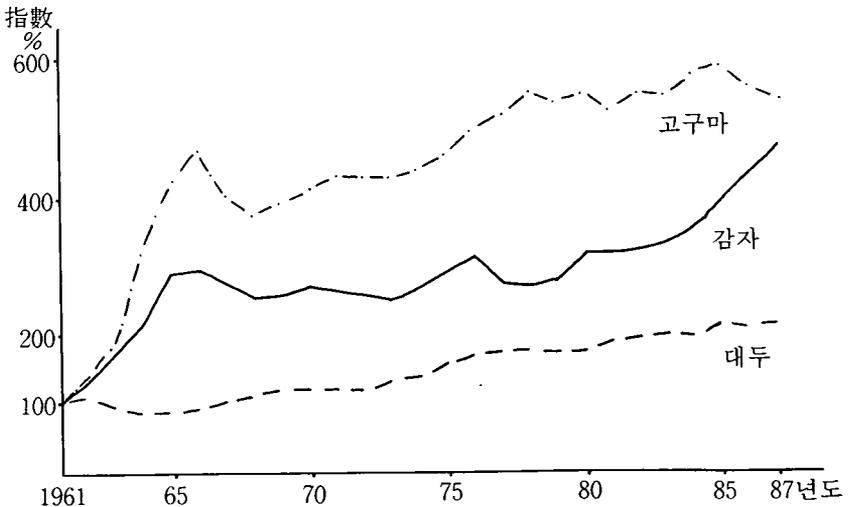


圖 3-11 薯類, 大豆의 段數 指數, 1961~87



産性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옥수수의 단위당 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品種改良과 더불어 栽培技術이 개선되어 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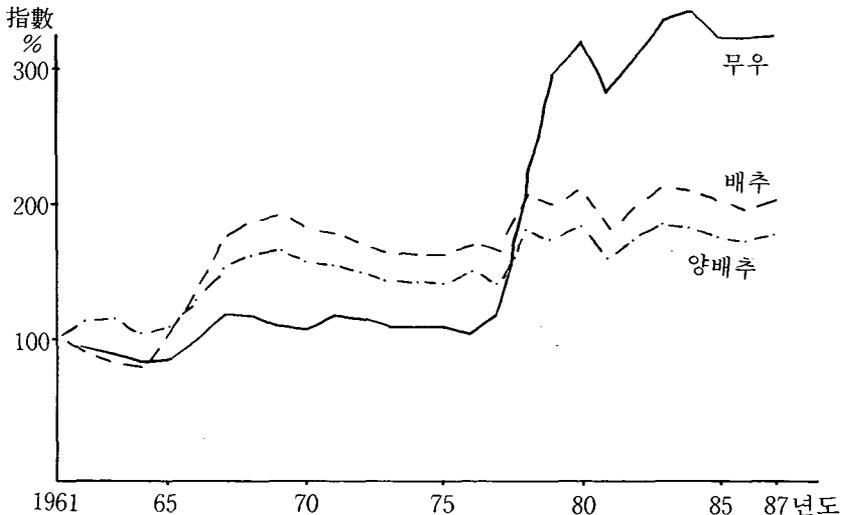
品種改良에 힘입어 고구마, 감자의 大豆 단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圖 3-11>. 특히, 1960년대에 있어 감자 단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3.93%에 달하고 同期間 고구마의 단수 증가율은 21.39%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穀類와 서류의 단위당 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특히 연평균 증가율을 기간별로 보면 1960년대에 가장 높았다. 이 시기에 食糧增産政策에 힘입어 農地基盤整備 및 農地改良投資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品種改良을 포함한 技術革新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③ 菜蔬類

무, 배추, 양배추의 단수 變動指數가 <圖 3-12>에 나타나 있다. 배추와 양배추의 단수는 1960년대 후반에 급증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증

圖 3-12 主要 葉菜類의 段數 指數, 1961~87



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1960년대 연평균 증가율은 배추가 9.75%, 양배추가 7.21%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무의 경우를 보면, 1970년대 전반까지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70년대 후반에 급증하였다. 1960년대의 연평균 증가율은 1.95%에 불과하나 1970년대의 증가율은 12.39%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배추와 무의 단수 增加類型이 상이한데, 이는 新品種을 개발하여 보급한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1970년대 후반에 단위당 수량은 획기적으로 증수시키는 무 品種이 대두한 것으로 간주된다.

노지오이, 노지참외, 노지수박의 경우 단위당 수량이 1961년에 비해 1980년대에는 2배 정도 증가하였다. 1965년대에 단수가 급증하였는데 <圖 3-13 참조>, 이 시기에 新品種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1960년대의 연평균 단수 증가율이 13.89%에 달했다. 그러나 세 品目の 단수는 1970년대 이후에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圖 3-13 主要 果菜類의 段數 指數, 196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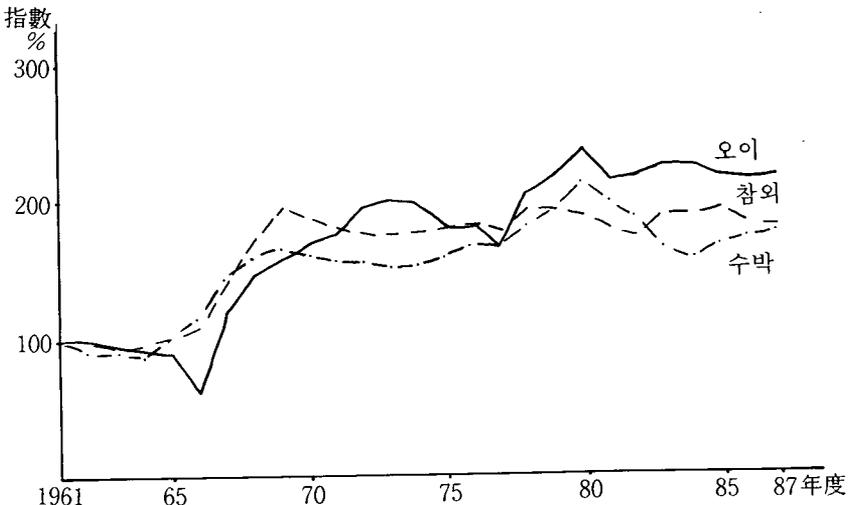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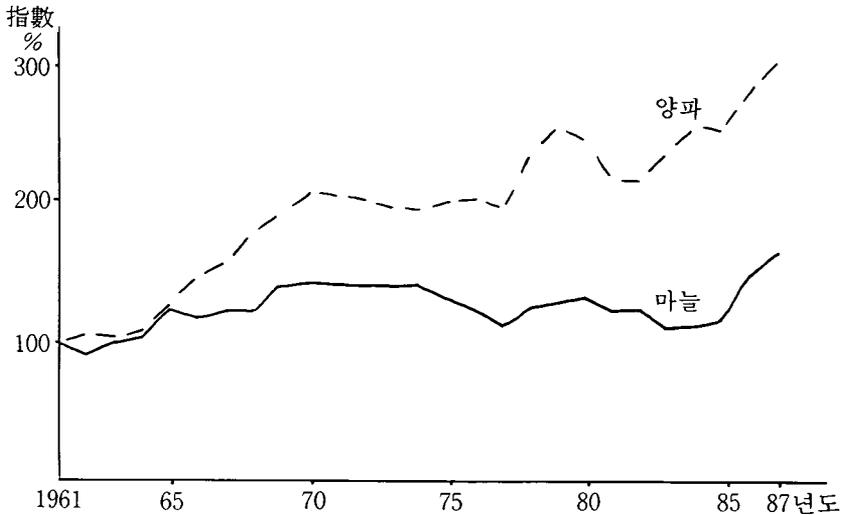


圖 3-14 양념채蔬의 段數 指數, 1961~87



양파의 단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7년에 와서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圖 3-14 참조). 특히, 1960년대에는 연평균 8.89%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마늘은 양파에 비해 단수의 증가율이 낮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는 品種改良에 기인하고 있다.

#### ④ 果實類와 特用作物

사과, 배, 복숭아의 단수 변동추세가 <圖 3-15>에 제시되어 있다. 세 品目 모두 1970년초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였다가 1980년대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일종의 週期變動을 나타내고 있는 이 요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氣象要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特用作物 중 참깨의 단수 변동추세를 보면 <圖 3-16>, 1961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1962~1987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1.72%에 불과하여 타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즉, 技術革

圖 3-15 主要 果實類의 段數 指數, 196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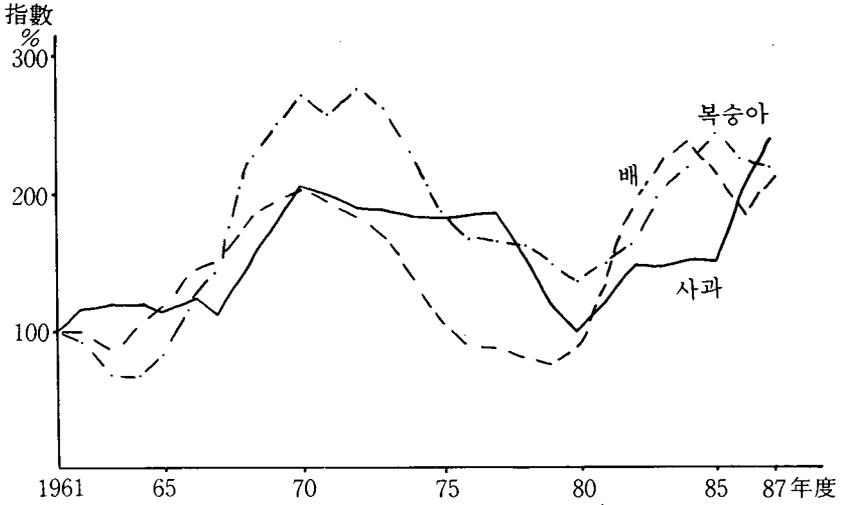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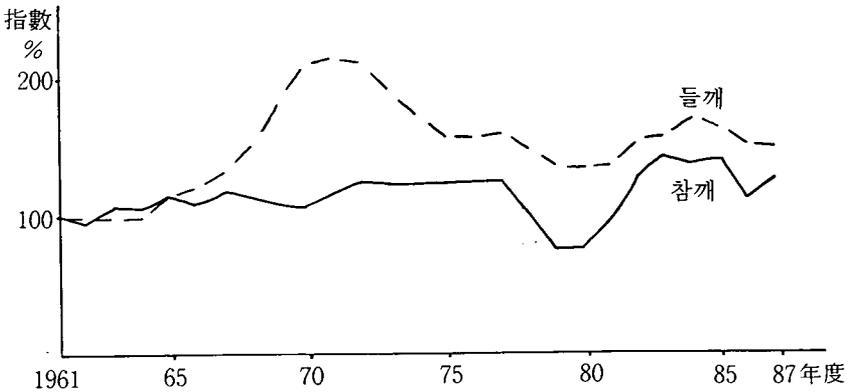


圖 3-16 참깨, 들깨의 段數 指數, 1961~87



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들깨의 경우는 1970년대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약간 감소하여 정체상태에 있다. 1970년대까지는 들깨를 집약적으로 재배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農村勞動力 부족으로 粗放的으로 경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들깨는 상대적으로 勞動粗放的인 작목이므로 耕地基盤條件이 불리하여 타작목을 재배하기 어려운 農地에 粗放的으로 재배되고 있다.

#### 다. 生産增加

植付面積에 면적당 수량을 곱하면 생산량이 된다. 개별 농가는 價格順應者(price-taker)이므로 주어진 價格下에서 이윤 혹은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생산량을 결정한다. 그런데 市場價格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요가 일정한 短期에 있어서는 공급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農業生産者 전체의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이느냐 줄이느냐에 따라 총수익이 달라진다. 즉,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수익이 감소하는 이른바 “豐富 속의 貧困”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때는 全生産農家를 한 생산자라 간주하고 獨占市場理論을 적용하여 最適 生産量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長期的으로 보면 수요가 변동하게 되므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의 공급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단수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植付面積을 조절하게 된다. 한편 수요가 줄어드는 품목은 공급을 줄여야 하는데 단수는 꾸준히 증가해 온 추세이므로 식부면적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

植付面積을 조절한 결과와 단위당 수량이 결합하여 생산량이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生産量의 변동추세를 검토해 본다.

#### 1 食糧作物

쌀의 植付面積은 감소해 왔으나 단위당 수량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총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추세이다. 특히, 新品種의 植付面積比率이 높았던 1977년에는 쌀의 總生産량이 피-크에 달했다. 1980년대 凶作으로 生産량이 일시 격감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平年作이 지속되어 왔다<圖 3-17>.

한편 보리와 밀의 경우를 보면 總植付面積의 변동추세와 동일한 類型으로 總生産물이 격감해 왔다. 특히, 1980년대에 생산량이 격감하였는데, 연평균 감소율을 보면 <表 3-15>, 보리쌀은 10.29%, 밀은 무려 21.36%에 달하고 있다. 輸入開放으로 밀 生産基盤은 완전히 무너졌고

表 3-15 主要 作物 生産量의 期間別 年平均 增減率

單位: %

품 목	1962~69	1970~79	1980~87	1962~87	품 목	1962~69	1970~79	1980~87	1962~87
쌀	4.53	2.32	1.32	2.69	오 이	24.17	-4.16	-0.36	5.73
맥류전체	16.56	-4.43	-7.23	1.16	호 박	10.84	-3.21	-7.68	-0.26
보 리	10.06	-4.07	-10.29	0.21	참 외	18.38	-5.11	-9.83	0.67
밀	19.04	-4.30	-21.36	-2.37	수 박	23.25	6.73	0.16	9.79
잡곡전체	-3.82	-5.01	4.94	-1.58	고 추	12.11	1.83	4.58	5.84
조	-9.02	-15.83	-7.81	-11.27	마 늘	20.73	9.75	6.60	12.15
수 수	5.02	-2.73	-11.72	-3.11	토 마 토	22.91	-2.81	-11.04	2.57
옥 수 수	14.30	4.37	4.29	7.40	과	18.87	8.83	4.19	12.22
두류전체	2.47	2.95	1.03	2.21	양 과	50.91	13.49	4.93	20.18
대 두	2.37	3.76	0.82	2.43	시 금 치	105.14	-4.25	-1.72	31.22
소 두	1.78	0.45	2.01	1.34	과실류전체	15.23	1.03	12.25	8.85
녹 두	11.34	-0.68	-5.06	1.67	사 과	9.84	17.29	4.16	10.91
서류전체	16.75	-3.47	-7.30	1.57	배	10.56	-1.19	15.32	7.47
고 구 마	18.82	-3.85	-8.91	1.57	복 승 아	27.36	-3.33	7.37	9.41
감 자	5.94	0.80	1.46	2.58	포 도	26.09	-1.31	7.54	12.92
채소류전체	10.49	7.50	-1.02	5.80	감	10.87	-1.30	20.67	9.59
무	8.72	10.90	-3.25	5.88	특작전체	0.26	-5.49	3.75	-0.88
배 추	9.66	12.78	-1.53	7.42	참 깨	32.66	7.46	7.23	15.14
양 배 추	21.33	-4.01	-7.07	2.84	들 깨	28.86	-3.18	6.81	9.75

圖 3-17 主穀의 生産量 指數, 196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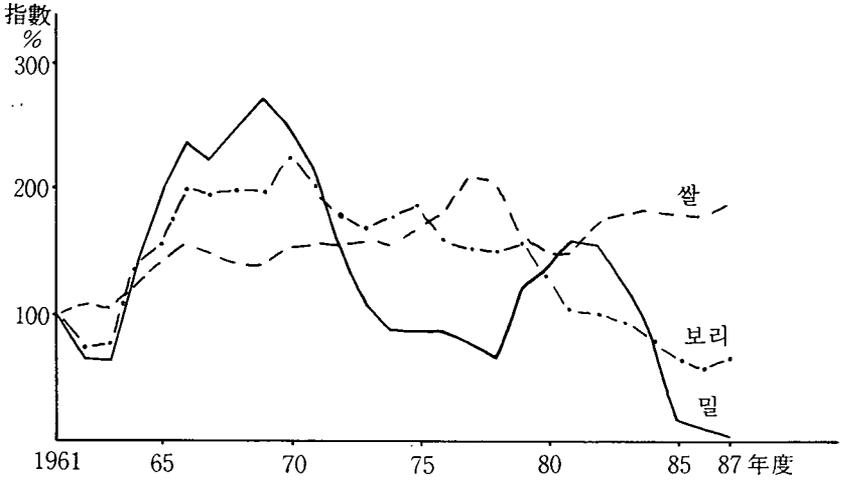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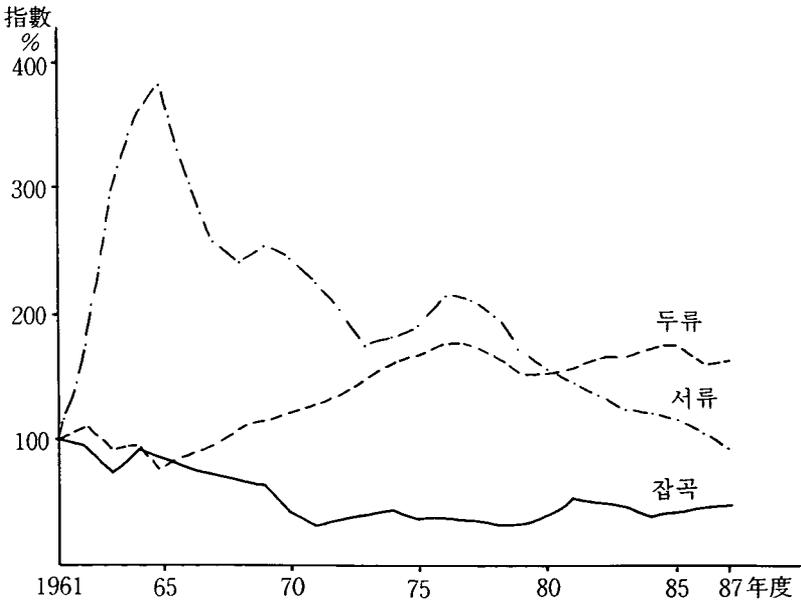


圖 3-18 雜穀, 豆類, 薯類의 生産量 指數, 1961~87



보리는 쇠퇴작목이므로 生産量이 격감하였다.

쇠퇴작목인 서류의 生産量은 1960년대 후반부터 격감해 왔다(圖 3-18 참조). 잡곡은 1961년부터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1960년대 초반까지 서류는 칼로리 섭취원으로서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豆類는 1970년대부터 생산량이 증가해 왔는데, 植付面積은 감소하였으나 單位當 收量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덕분에 총 생산량이 증가해 왔다.

## ② 菜蔬類

菜蔬類 전체의 총생산량 변동추세가 <圖 3-19>에 나타나 있다. 總生産量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준연도에 비해 4배 정도 늘어났다.

김장무와 김장배추의 총생산량 증가추세를 보면, 1975년 이후에 급증하였는데 이는 단수 증가에 기인한다(圖 3-20). 1987년 현재 배추의 생산량은 기준연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고 무의 생산량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노지오이와 노지호박의 총생산량 변동 패턴은 植付面積의 그것과 유사한데 <圖 3-21>, 이는 단수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지수박의 生産量 變動을 보면 <圖 3-22>, 1961~87년내에 총 생산량은 9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변동의 패턴은 植付面積의 그것과 유사하다.

아울러 노지 토마토와 노지참외의 生産量 變動類型은 植付面積과 유사하다. 그러나 1987년에 와서는 식부면적이 기준연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총생산량은 기준연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단수증가에 기인한다.

양파의 경우 植付面積 增加와 反收增加와의 상승효과로 총생산량은 급증하였다. 1987년에 와서는 총생산량이 기준연도에 비해 400배 정도 늘어났다. 마늘의 총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1~87년 기간에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추의 生産量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植付面積과 단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특히, 단수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圖 3-23>.

圖 3-19 菜蔬類 및 果實類의 生産量 指數, 196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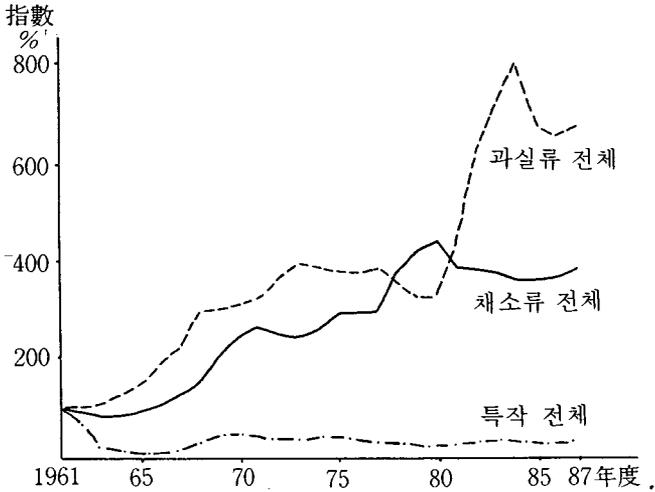


圖 3-20 김장채소의 生産量 指數, 196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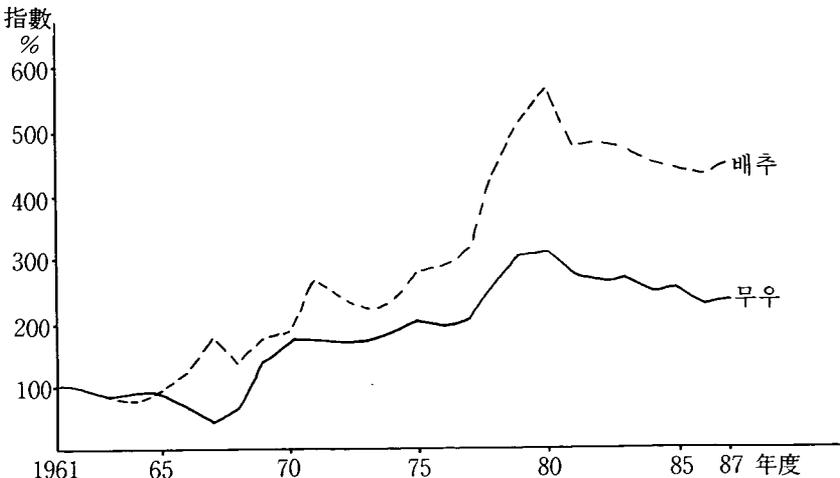


圖 3-21 오이, 호박의 生産量 指數, 196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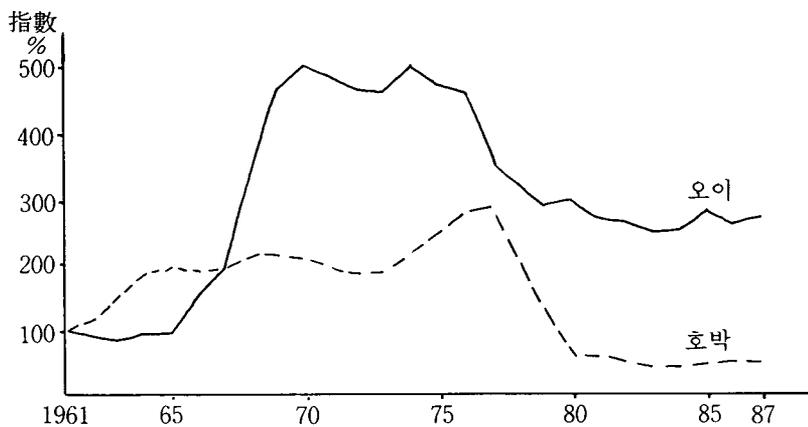


圖 3-22 主要 果菜類의 生産量 指數, 196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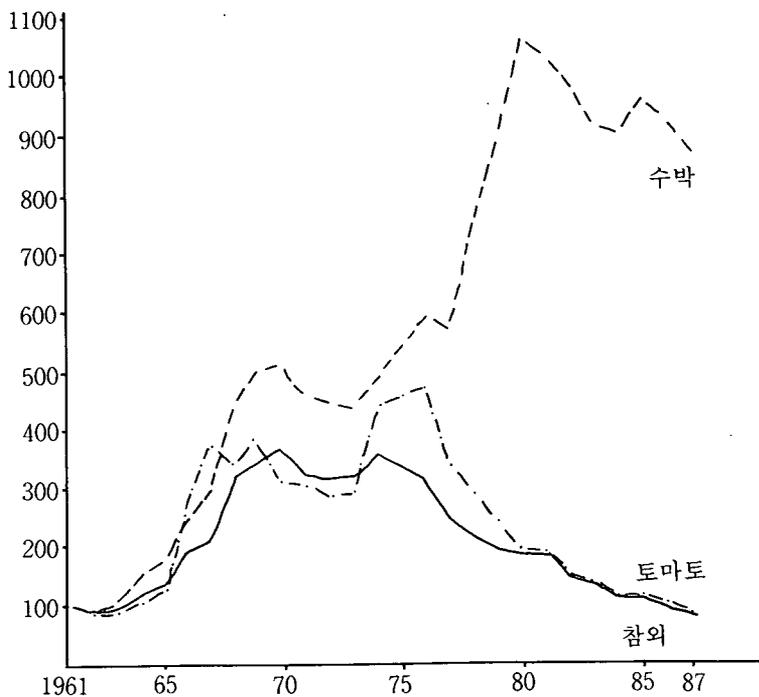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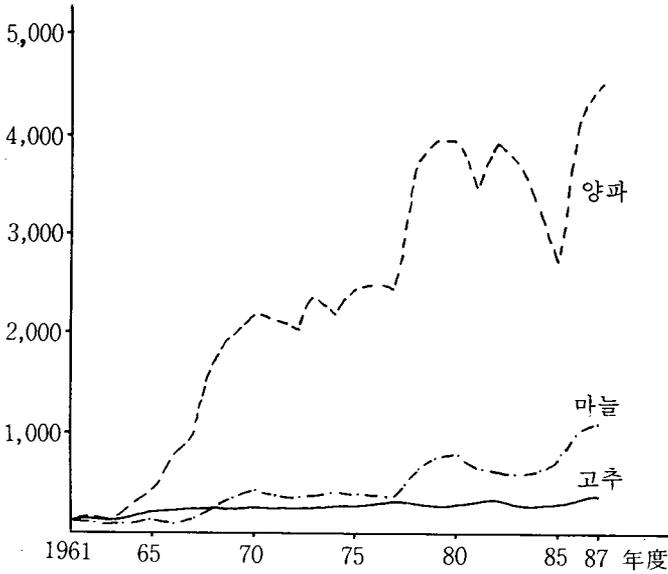


圖 3-23 양념채소의 生産量 指數, 1961~87



## ③ 果實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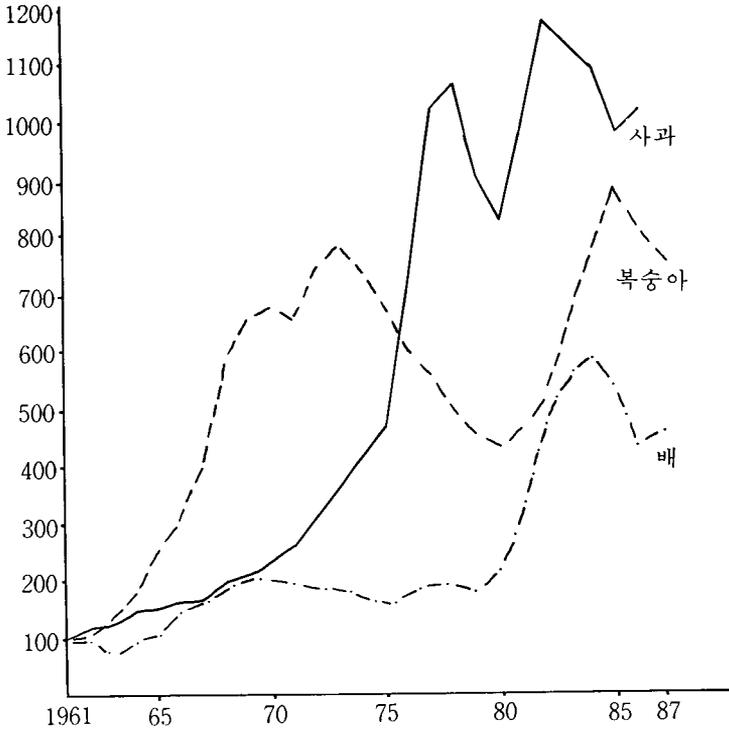
〈表 3-1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果實類의 總生産量은 1962~87년 기간에 9배 정도 늘어났다.

각 品目別로 보면 〈圖3-24〉, 사과는 1970년대 중반부터 생산량이 급증하였고 1961~87년 기간에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1970년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29%에 달한다.

반면에 배의 경우를 보면 1980년대까지는 總生産量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1980년대 이후에 급증하였다. 1980년대에 와서 反收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복숭아의 總生産量은 年次變動幅이 큰데 이는 單位當 收量の 年次變動에 영향을 받고 있다.

圖 3-24 主要 果實類의 生産量 指數, 1961~87



## 5. 畜産 發展

### 가. 韓牛

農作業의 機械化가 이룩되기 전에는 韓牛는 役牛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한 固定資本이었고 농가에서는 農業 副産物과 山野草를 이용하여 勞動集約的으로 사육하였으며 戶當 飼育頭數가 1頭 内外인 傳統的인 飼育體系였다고 하겠다.

1950년의 韓牛 飼育農家는 155,928호로 總農家戶數의 43.0%에 달했

다.

총농가호수가 증가함에 따라 韓牛 飼育農家戶數도 증가하였고, 총농가호수가 감소하자 飼育農家도 감소하였다. 아울러 農機械의 普及台數가 증가함에 따라 韓牛 飼育戶數도 감소하였다.

飼育農家は 감소하였으나 총사육두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60년의 총사육두수는 179,176頭이었으나 1975년에는 254,087頭로 15년간에 41.8% 증가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와서 韓牛는 役牛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어지고 육우로서의 기능이 중요시 되어 飼育戶數는 감소하였지만 戶當 飼育戶數가 증가하여 총사육두수는 급증하였다(表3-16).

특히, 1980년대 초반에는 複合營農事業의 일환으로, 慶南地域에는 山地를 草資源으로 활용하여 農家所得을 증대시키고자 草食家畜 入殖事業을 전개해 왔다. <表 4-1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草食家畜

表 3-16 慶南의 主要 家畜 飼育現況, 1975~88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한우	飼育戶數	197,892	153,205	149,141	150,865	159,855	168,339	166,794	155,499	138,337	120,779
	總頭數	254,087	241,610	258,472	267,330	331,376	386,821	418,590	374,128	304,831	250,819
	戶當頭數	1.3	1.6	1.7	1.8	2.1	2.3	2.5	2.4	2.2	2.1
젖소	飼育戶數	398	1,188	1,359	1,695	2,257	2,809	3,571	3,664	3,270	2,922
	總頭數	5,091	13,260	15,904	17,658	21,920	27,041	31,496	36,413	39,350	39,643
	戶當頭數	13.0	11.1	11.7	10.4	9.7	9.6	8.8	9.9	12.0	13.6
돼지	飼育戶數	101,108	63,525	71,585	62,936	72,514	47,027	36,288	39,739	44,879	37,491
	總頭數	180,827	252,725	306,384	279,100	456,564	335,028	329,546	414,300	558,665	602,020
	戶當頭數	1.8	4.0	4.3	4.4	6.3	7.1	9.1	10.4	12.4	16.1
닭	飼育戶數	144,903	190,670	84,259	112,610	96,022	66,980	52,098	46,253	40,500	28,821
	總頭數	1,912,359	3,903,145	4,242,327	4,683,000	4,526,723	4,724,815	5,281,300	5,718,310	6,110,075	5,853,878
	戶當頭數	13.2	35.6	50.3	41.6	47.1	70.1	101	123.6	151.1	2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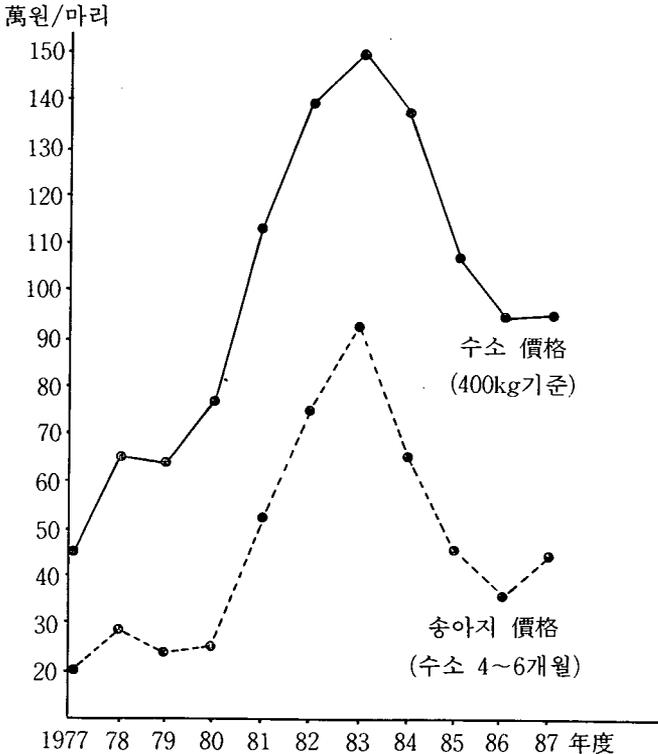
資料:경상남도, 「경남 통계연보」, 각연도.

入殖事業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82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에는 總農家戶數는 감소하였지만 韓牛 飼育農家戶數는 증가하였다. 특히, 複合經營農家は 韓牛의 飼育規模를 증가시켰으므로 戶當 飼育頭數가 늘어나 韓牛의 總飼育頭數는 급증하여, 1986년에는 418,590頭に 달했다.

〈圖 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4년부터 소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1985년에 폭락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韓牛의 飼育戶數는 격감하여 1988년에는 120,779戶에 이르고 있다. 소값 폭락이후에 總養肉두수도 감소하였다. 아울러 1985년 이후에는 戶當 飼育頭數도 약간 감소하였다.

韓牛 飼育은 1985년까지 급성장하였으나 소값과동 이후에 후퇴하여

圖 3-25 송아지와 成牛의 價格變動, 1977~87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단안이 내려지지 않아 미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韓牛의 飼育體系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오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환언하면 構造改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飼育規模別 農家戶數 構成비를 <表 3-17>에 제시하였다. 1975년에는 2頭 이하의 규모, 즉 전통적인 飼育體系에 머무르고 있는 農家戶數의 構成比가 97.5%에 달했다. 아울러 基幹 複合經營農家라 할 수 있는 7~14頭的 규모와 15~29頭的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각각 235호, 25호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1980년에 와서는 규모확대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2頭 이하의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구성비는 91%로 떨어졌고 3~6頭的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는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基幹 複合經營農家에 속하는 7~14頭的 규모로 사육하는 農家戶數는 1,187호로 급증하였다. 아울러 韓牛肥育 專門經營農家라 할 수 있는 30頭 이상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도 총48호로 급증하였다.

韓牛의 飼育頭數가 가장 많았던 1985년의 경우를 보면, 3~6頭的 규

表 3-17 韓牛 飼育規模別 農家戶數 分布, 1975~88

單位: 戶, %

	1~2두	3~6두	7~14두	15~29두	30~39두	40~49두	50~	合 計
1975	179,208 (97.5)	4,171 (2.2)	235 (0.2)	25 (0.1)	6 (0.0)	1 (0.0)	7 (0.0)	183,653 (100.0)
1980	159,000 (91.0)	14,191 (8.1)	1,187 (0.6)	214 (0.2)	20 (0.1)	25 (0.1)	3 (0.0)	174,640 (100.0)
1985	117,989 (70.6)	40,806 (24.4)	6,625 (4.0)	1,062 (0.7)	167 (0.1)	81 (0.1)	177 (0.1)	166,907 (100.0)
1988	101,101 (83.6)	15,628 (13.0)	2,888 (2.3)	821 (0.7)	144 (0.2)	68 (0.1)	129 (0.1)	120,779 (100.0)

資料: 경상남도, 축정과.

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구성비는 24.5%에 달했고 7~14頭の 규모에 속하는 농가는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韓牛飼育體系의 現代化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값 폭락 이후인 1988년에 와서는 韓牛 飼育農家の 構造改善이 후퇴하였다. 2頭 이하의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구성비는 1985년의 70.6%에서 1988년에는 83.6%로 급증하였고 3~6頭の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의 구성비는 同期間에 24.5%에서 13.0%로 격감하였다. 基幹農家라 할 수 있는 7~14頭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는 6,625호에서 2,888호로 줄었다.

生産物 價格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가가 유리한 것이 상식이나 韓牛 飼育에서는 그렇지 않다. 즉, 耕種과 補完 내지 補合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2頭 이하의 규모가 경쟁력이 강하고 濃厚飼料에 의존하는 補合經營規模가 生産物 價格下落에서 오는 충격에 가장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草地를 보유하지 않고 濃厚飼料에 주로 의존하는 韓牛肥育産業은 發展의 한계가 크다고 하겠다.

#### 나. 乳牛

成長産業에 속하는 乳牛는 1960년대초에 도입되었다. 初期에는 都市近郊 착유업의 형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東部丘陵地帶인 蔚州郡과 梁山郡에 草地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酪農業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表 3-1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1975년에는 飼育戶數는 398호, 總 飼育頭數는 5,091頭に 불과하나 호당 頭數는 13.0頭に 이르고 있다. 즉, 이 때는 都市近郊 착유업 형태의 소규모로 사육하는 다수의 農家와 梁山郡과 蔚州郡 內에 있는 대규모로 경영하는 소수의 농가가 양립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호당 평균 飼育規模는 가장 크게 나타나 있다.

1980년에는 乳牛飼育農家가 1,188호로 급증하고 總飼育頭數는 13,260頭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호당두수는 11.1頭로 줄어들었다. 즉, 1980년에 와서는 乳牛飼育農家は 慶南道內의 전 지역에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에는 複合營農事業의 일환으로 草食家畜入殖事業이 시작되었고 아울러 草地造成事業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草地를 보유한 농가에 한해서 海外에서 도입하는 乳牛를 배정하였으므로 草地를 조성하여 乳牛를 사육하는 농가가 급증하였다. 소값 파동 직후인 1986년에는 乳牛飼育農家は 3,664戶로 급증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1980년 이후 飼育農家戶數가 증가함에 따라 戶當 飼育頭數는 감소해 왔다.

한편 乳牛의 飼育體系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추론해 내기 위해 飼育規模別 農家戶數의 구성비를 <表 3-18>에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1975년 자료를 구할 수 없어 1976년 자료를 제시하였다. 1976년의 경우를 보면 소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와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가 양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表 3-18 乳牛 飼育規模別 農家戶數 分布, 1976~88

單位: 戶, %

	1~2두	3~6두	7~14두	15~29두	30~39두	40~49두	50~	合 計
1976	147 (25.3)	195 (33.5)	141 (24.2)	55 (9.5)	16 (2.8)	10 (1.4)	19 (3.3)	583 (100.0)
1980	201 (15.6)	413 (32.0)	413 (32.0)	189 (14.7)	24 (1.9)	17 (1.4)	35 (2.4)	1,292 (100.0)
1985	679 (19.1)	1,358 (38.1)	995 (27.8)	406 (11.3)	67 (1.8)	29 (0.8)	37 (1.1)	3,571 (100.0)
1988	242 (8.3)	635 (21.7)	1,103 (37.7)	711 (24.4)	108 (3.7)	60 (2.1)	63 (2.1)	2,922 (100.0)

資料: 경상남도, 축정과.

즉 6頭 이하의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구성비는 58.8%에 이르고 40頭 이상의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구성비는 4.7%로 그 이후의 어느 시기보다 월등히 높다.

1980년에 와서는 6頭 이하의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구성비와 30頭 이상의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7~14頭, 15~19頭的 中規模로 경영하는 농가의 구성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85년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소값 파동 이후인 1988년에 와서는 大規模化가 다시 일어났다. 즉, 1980년에 비해 6頭 이하 小規模로 경영하는 농가의 구성비는 작아졌고 30頭 이상 규모로 경영하는 농가의 구성비가 커졌다. 즉, 韓牛 飼育의 경우와 달리 生産物 價格의 하락은 規模擴大를 촉진시켜 效率性 提高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慶南의 酪農은 濃厚飼料와 飼料圃에서 생산한 粗飼料에 의존하는 낙농이 지배적이므로 낙농의 構造改善이 선행되지 않는 한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慶南은 基盤與件으로 볼 때 草地開發은 한계가 크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다. 中小家畜

〈表 3-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75년의 돼지 飼育農家は 101,108호, 總 飼育頭數는 180,827頭に 달하나 戶當 飼育頭數는 1.8頭に 지나지 않은 傳統的인 飼育體系에 머무르고 있었다. 즉, 農家の 副産物을 이용하여 1~2頭를 사육하는 형태이었다. 이 때의 돼지 사육은 勞動力 利用에 있어 耕種部門과는 補合關係이었다고 하겠다.

1980년의 돼지 사육호수는 63,525호로 격감하였으나 總飼育頭數는 252,725頭로 급증하였다. 즉, 호당 사육규모가 급증해 왔다고 하겠는데, 基幹 複合 養豚農家 혹은 專門 養豚農家가 증가하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1988년에는 養豚農家가 37,491호로 줄었고 호당 사육규모는 16.1두로 증가하였다.

表 3-19 돼지 飼育規模別 農家戶數 分布, 1975~88

單位: 戶, %

	1~4두	5~9두	10~19두	20~29두	30~49두	50~99두	100~	合 計
1975	130,356 (94.0)	4,903 (3.5)	2,381 (1.9)	196 (0.2)	193 (0.2)	102 (0.2)	87 (0.1)	138,618 (100.0)
1980	62,950 (90.1)	3,190 (4.5)	2,550 (3.6)	296 (0.5)	320 (0.5)	284 (0.4)	286 (0.4)	69,876 (100.0)
1985	30,109 (83.0)	2,099 (5.7)	2,116 (5.8)	400 (1.1)	410 (1.1)	477 (1.4)	677 (1.9)	36,288 (100.0)
1988	26,785 (71.5)	2,924 (7.7)	3,328 (8.8)	1,229 (3.3)	1,087 (2.9)	1,104 (3.0)	1,034 (2.8)	37,491 (100.0)

資料: 경상남도, 축정과.

한편 飼育規模別 돼지 飼育農家の 분포를 보면〈表 3-19〉, 1975년에는 1~4두 이상의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가 94.0%이었으나 1988년에 와서는 71.5%로 떨어졌다. 아울러 30두 이상의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구성비는 1975년의 경우 0.4%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에는 8.7%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養豚은 大規模化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規模擴大로 인해 畜産公害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닭은 돼지와 마찬가지로 1975년에는 호당 飼育規模가 13.2수에 불과한 傳統的인 사육 형태이었으나 1988년에 와서는 호당 규모가 203.1수에 이르고 있다〈表 3-16〉.

#### 라. 草地 開發

經濟成長과 더불어 畜産物의 需要가 증대함에 따라 畜産物의 國內供給量을 확대하기 위해 畜産物 增産政策을 지속해 왔다. 畜産중에서 養豚과 養鷄는 濃厚飼料에 의존하는 畜産인데, 國內의 飼料生産基盤이 취

약하여 海外에서 도입하는 濃厚飼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乳牛와 肉牛 등 草食家畜은 土地利用型 家畜이지만 生産調整에 한계가 크다.

草지를 이용하는 畜産의 國內供給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草地開發을 추진해 왔다. 1970년대까지는 乳牛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草地開發資金을 지원해 오다가 1980년대에 와서는 肉牛의 生産基盤을 확충하여 쇠고기의 國內供給을 확대하기 위해서 肉牛를 사육하는 농가에게도 草地造成資金을 지원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 複合營農事業의 일환으로 草食家畜 入殖事業을 전개하였는데, 山地를 개발하여 草지를 조성하는 농가에 草地造成資金을 보조 내지 융자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海外에서 도입하는 젓소 혹은 肉牛를 우선적으로 배분하였다. 導入價格과 國內市場과는 격차가 컸으므로 海外에서 導入한 소를 배정받으면 價格差 만큼의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國公有林이 草지로 개발할 수 있는 林野이면 개인에게 임대하고 草地造成事業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1980년대에 들어와 草地造成支援을 확대하였는데, 특히 慶南地域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慶南은 山地基盤條件으로 볼때 草地開發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東部地域을 제외하고는 草地開發이 낙후된 실정이었는데, 複合營農事業 덕택에 山地를 草지로 개발한 규모가 급증하였다.

〈表 3-20〉에는 慶南에서 每年 조성한 草地面積과 總草地面積이 제시되어 있다. 1980년까지 總草地面積은 2,983ha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1981년부터 1988년까지 8년간 조성된 草地面積은 3,040ha에 달한다. 특히, 複合營農事業이 최전성기를 이룬 1982년, 1983년, 1984년, 3개년에 걸쳐 草地造成은 절정을 이루었다. 그런데 〈圖 3-25〉에서 보았듯이 1983년에는 수송아지 가격이 가장 높았는데, 이 송아지가 成牛가 되어 시장에 출하한 시기인 1985년에는 成牛價格이 2년 전에 구입한 송아지 價格水準으로 폭락하였다.

表 3-20 慶南의 草地造成 現況, 1976~88

單位: ha

	新規造成面積 <sup>1)</sup>	轉用面積 <sup>2)</sup>	累計面積 <sup>3)</sup>	轉用目的
1976	200	-	2,074	
1977	275	-	2,349	
1978	400	-	2,749	
1979	134	3	2,880	
1980	113	10	2,983	공원묘지
1981	120	-	3,103	
1982	754	-	3,587	
1983	627	8	4,477	학교부지
1984	752	-	5,229	
1985	256	-	5,485	
1986	252	6	5,731	댐수몰
1987	200	3	5,928	댐수몰
1988	102	7	6,023	공단편입

1) 1976년부터 간이초지와 산야초 개량초지는 초지면적에서 제외시킴.

2) 他用途로 전용된 초지면적.

3) 累計面積 = 기존 草地面積 + 新規造成面積 - 轉用面積.

資料: 경상남도 축정과.

그러나 1982년에서 1984년 기간에 草地를 조성하여 송아지를 도입하여 肥肉牛를 경영한 농가의 經營收支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소값이 폭락한 1985년부터 草地造成面積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8년에 조성된 규모는 102ha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慶南 全體를 기준으로 하여도 草地畜産經營에 많은 과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더욱이 慶南內 각 지역별 草地造成現況를 보면 草地開發이 農家經濟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었는지에 대해 짐작할 수 있게 된다.

<表 3-21>에는 慶南內 각 지역별 總草地面積과 1982년 이후의 年度別 草地造成面積이 제시되어 있다.

慶南의 草地는 東部 구릉지대에 편중되어 있다. 梁山郡의 草地面積은 1,172ha로 總 草地面積의 21.3%를 차지하고 있고 울주군은 855ha로 15.6%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山淸, 咸陽, 居昌, 陝川 등 西部 山間地帶에 草地面積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他郡에는 약간의 격차가 있으나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表 3-21 地域別 草地造成 現況, 1982~88

單位: ha,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2~88 조성합계(A)	總 草 地 面積 (B)	A/B ×100
市合計	-	3	-	-	-	-	-	3	78( 1.5)	3.9
진양군	28	6	3	3	2	2	3	47	124( 2.3)	37.9
의령군	32	25	3	6	3	2	-	71	79( 1.5)	89.9
함안군	12	51	40	1	6	6	5	121	246( 4.5)	49.2
창녕군	15	6	13	2	-	-	2	38	41( 0.8)	92.7
밀양군	30	30	13	-	-	3	-	76	101( 1.9)	75.3
양산군	160	64	84	28	36	19	23	414	1,172( 21.3)	35.4
울주군	20	45	38	23	14	11	4	155	855( 15.6)	18.2
김해군	23	10	17	3	4	9	6	72	78( 1.5)	92.3
의창군	18	22	12	2	9	1	-	66	124( 2.3)	53.3
통영군	5	3	1	-	-	-	-	9	19( 0.4)	47.4
거제군	10	9	3	-	2	-	-	24	119( 2.2)	20.2
고성군	42	12	83	3	26	10	1	177	189( 3.5)	93.7
사천군	15	12	20	29	20	20	16	132	270( 4.9)	48.9
남해군	5	12	26	10	13	9	-	75	83( 1.5)	90.4
하동군	30	13	25	8	8	1	-	85	212( 3.9)	40.1
산청군	115	69	27	19	44	62	4	340	545( 9.9)	62.4
함양군	80	40	42	26	12	3	5	208	279( 5.1)	74.6
거창군	29	36	43	30	26	19	14	197	227( 4.2)	86.8
합천군	84	130	260	62	27	24	19	606	662( 12.1)	91.6
合計	753	598	753	255	252	201	102	2,914	5,503(100.0)	53.0

( )속은 合計에 대한 구성비임.

資料: 경상남도 축정과.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草地 造成時期의 差異이다. 즉, 東部구릉지대인 梁山郡, 蔚州郡은 주로 1980년대 이전에 草地를 조성하였고 西部 慶南 山間地帶에는 1980年代에 조성하였다. 즉, 1982~88년 기간에 조성된 草地面積이 總草地面積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역간에 비교해 보면, 梁山郡과 蔚州郡의 그 비율은 각각 35.4%, 18.2%에 지나지 않지만 居昌郡과 陝川郡의 그 比率은 각각 86.8%, 91.6%에 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草地造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梁山郡, 蔚州郡과 都市近郊地域에는 1980年代 以前에 조성한 草地가 많고 西部 山間地帶를 포함한 지역에는 주로 1980년대에 草地를 조성하였다.

草地造成과 송아지 入殖은 동일 기간이므로 주로 1980년에서 1984년 기간에 草地에 조성한 西部慶南 山間地帶에서는 비싼 송아지를 구입하였고 반면에 都市近郊地域과 東部 구릉지대에서는 이 시기에 생산한 송아지를 비싸게 판매한 셈이 된다.

第2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西部 山間地帶와 東部地域間에는 소득 격차가 컸었는데, 複合營農事業의 결과 住民所得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하겠다.

山지를 草地로 개발하여 乳牛나 肉牛를 도입한 西部慶南의 畜産農家を 調査分析한 研究에 의하면 (金厚根 1988, 137-155), 조사시점인 1986년에는 經營收支가 악화되어 畜産農家は 自家勞動에 대한 報酬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畜産經營이 포기되고 草地가 황폐화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있다. 특히, 調査地域인 西部慶南地域에는 國公有林을 임차하여 草地를 조성한 사례가 많은데, 이 중에서 畜産經營經驗이 없는 都市資本家が 國公有林을 임차하여 조성한 草地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다.

慶南地域에는 겨울에 積雪量이 적어 草地生育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草地를 조성한 직후에 소값이 폭락하여 草地管理와 利用이 부실해졌고 草地畜産이 위기에 직

表 3-22 地域別 草地利用 現況, 1988

單位: ha, %

	草 地 利 用				飼料圃利用	기 타	總草地 造成面積
	上 級	中 級	下 級	小 計			
市合計	44(44.0)	19(19.0)	15(15.0)	78( 78.0)	17(17.0)	5(5.0)	100(100.0)
진양군	10( 8.1)	21(17.0)	93(75.0)	124(100.0)	-	-	124(100.0)
의령군	32(40.0)	43(53.8)	4( 5.0)	79( 98.8)	1( 1.2)	-	80(100.0)
함안군	95(37.7)	58(23.1)	92(36.5)	245( 97.3)	1( 0.4)	6(2.2)	252(100.0)
창녕군	41(48.3)	-	5( 5.9)	49( 54.2)	36(45.8)	-	85(100.0)
밀양군	3( 3.0)	21(20.8)	77(76.2)	101(100.0)	-	-	101(100.0)
양산군	264(20.1)	610(46.4)	299(22.8)	1,173( 89.3)	110( 8.4)	33(2.3)	1,316(100.0)
울주군	394(41.0)	229(23.6)	232(24.2)	855( 89.1)	106(10.9)	-	961(100.0)
김해군	44(51.8)	14(16.5)	21(24.7)	79(100.0)	-	-	79(100.0)
의창군	16(12.3)	53(40.8)	55(42.3)	124( 95.4)	3( 2.3)	3(2.3)	130(100.0)
통영군	-	2(10.5)	17(89.5)	19(100.0)	-	-	19(100.0)
거제군	5( 4.2)	99(83.2)	15(12.6)	119(100.0)	-	-	119(100.0)
고성군	60(26.7)	34(15.2)	95(42.3)	189( 84.2)	32(14.3)	4(1.5)	225(100.0)
사천군	40(14.4)	119(42.8)	112(40.3)	271( 97.5)	6( 2.2)	1(0.3)	278(100.0)
남해군	47(56.0)	15(17.9)	21(25.0)	83( 98.9)	1( 1.1)	-	84(100.0)
하동군	35(15.1)	52(22.5)	125(53.9)	212( 91.5)	20( 8.5)	-	232(100.0)
산청군	80(14.3)	167(29.8)	299(53.3)	546( 97.4)	12( 2.2)	3(0.4)	561(100.0)
함양군	59(20.1)	163(55.5)	58(19.8)	280( 95.4)	14( 4.6)	-	294(100.0)
거창군	76(30.3)	116(46.3)	34(13.6)	226( 90.2)	25( 9.8)	-	251(100.0)
합천군	206(30.4)	353(52.1)	102(15.1)	661( 97.6)	6( 0.9)	11(1.5)	678(100.0)
합 계	1,551(26.0)	2,188(36.7)	1,771(29.7)	5,513( 92.4)	390( 6.6)	66(1.0)	5,969(100.0)

資料: 경상남도 축정과.

면해 있다고 하겠다. 소값이 회복된 1988년에 와서도 草地를 이용하는 畜産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草地를 조성한 初期에서 부터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즉, 市場價格보다 값싼 해외 도입소를 배정받기 위한 방편으로 부실초지를 조성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表 3-22〉에는 1988년 현재 慶南內의 각 지역의 草地 管理狀態가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行政機關에서 작성한 자료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下級草地는 방치된 草地로 간주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

여기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慶南의 總草地面積중 6.6%에 해당하는 草地는 靑刈粗飼料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草地法에 의하면 草地는 牧草生産에 이용하여야 하나 基盤條件이 양호한 草地는 粗飼料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飼料圃로 이용하고 있다.

草地利用實態를 기준으로 보아 下級에 해당하는 草地面積은 慶南 全體 草地面積의 29.7%에 이르고 있다. 東部 구릉지대인 울주와 양산군에는 下級草地의 비율이 낮고 山間地帶에는 下級草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慶南地域에는 草地畜産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의 解決策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草地畜産이 정착될 수 있는 方案을 찾아내어 政策的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 第 4 章

# 慶南 地域 農業構造의 特殊性

### 1. 課 題

農業從事者의 소득이 非農業分野 從事者의 소득에 비해 낮은 요인은 勞動生産性 격차와 農家交易條件의 惡化이다. 연간 소득을 비교할 때는 兩者間에 연간 勞動日數가 같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간 農業勞動日數는 150일에 지나지 않고 있다. 農業勞動生産性이 낮고 農家交易條件이 惡化되어 시간당 혹은 하루를 기준으로 비교하여도 소득격차가 큰데 勞動日數마저 적으니 兩者間에 소득격차는 심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농가의 農業所得을 증가시키려면 勞動生産性을 제고시키고 農家交易條件을 개선해 주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거니와 연간 勞動日數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營農組織을 개선해야 한다. 결국, 農業經營活動의 목표를 利潤極大化에 둘 수 없는 小農經濟下의 家族經營體가 農業所得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당 家族勞動報酬를 늘리고 연간 勞動日數를 늘릴 수 있도록 生産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즉, 經濟成長과 더불어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중에서 輸入自由化 對象品目이 아닌 農産物을 생산하는 營農組織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章에서는 經濟成長과 더불어 慶南의 農業生産 構造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生産構造의 특질이 무엇인가를 고찰해 본다. 나아가 特化係數를 계측하여 地域特化作目的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地域 特化作目 開發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제공한다. 각 作目別로 1970, 1988년의 特化係數를 계측하는데 이용한 植付面積과 家畜飼育頭數 資料가 상이하다. 즉 1970, 1980년 資料는 農業센서스 資料이고 1988년의 資料는 行政統計이므로 兩者間에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 2. 農産物 生産構造

### 가. 植付面積 構成比

慶南 農業이 안고 있는 生産構造의 특질을 밝힐 수 있는 바람직한 지표는 각 품목의 附加價値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자료를 계측하기 어려워 편법으로 植付面積을 이용하여 生産構造의 변천과정과 특수성을 고찰한다.

〈表 4-1〉에는 慶南의 主要 農産物 植付面積의 變動이 類別로 제시되어 있다.

總植付面積의 변동을 보면, 1960年代에는 연평균 2.7%씩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평균 4.2%씩 감소해 왔다. 總耕地規模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나 經濟成長과 더불어 二毛作面積이 크게 감소하여 總植付面積이 감소하였다.

米穀의 植付面積은 감소추세이나 總植付面積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1960년에는 42.5%이었으나 1988년에는 54%로 증가하였다. 즉,

表 4-1 慶南의 主要 作物別 植付面積 變動, 1960~88

單位: ha, %

	米穀	麥類	雜穀	豆類	薯類	菜蔬類	果實類	特用作物	桑田	合計
1960	166,042 (42.5)	142,534 (36.5)	16,112 (4.1)	33,470 (8.6)	10,625 (2.7)	16,008 (4.1)	2,358 (0.6)	4,703 (1.2)	6,219 (1.6)	398,071 (100.0)
1965	173,330 (35.0)	193,636 (39.2)	11,391 (2.3)	31,521 (6.4)	36,361 (7.4)	21,171 (4.3)	3,084 (0.6)	21,595 (4.4)	2,508 (0.5)	494,600 (100.0)
1970	163,314 (32.2)	184,505 (36.3)	35,748 (7.0)	30,855 (6.0)	29,481 (5.8)	38,244 (7.5)	7,970 (1.6)	10,114 (2.0)	7,764 (1.5)	507,998 (100.0)
1975	164,906 (37.1)	149,255 (33.6)	3,020 (0.7)	31,166 (7.0)	23,549 (5.3)	41,113 (9.3)	11,736 (2.7)	9,541 (2.2)	9,775 (2.2)	444,091 (100.0)
1980	154,954 (47.0)	76,349 (23.2)	2,756 (0.1)	22,419 (6.8)	16,177 (4.9)	31,485 (9.6)	10,101 (3.1)	9,538 (2.9)	5,824 (1.8)	329,607 (100.0)
1985	151,482 (51.6)	59,636 (20.3)	2,048 (0.7)	20,273 (6.9)	11,489 (3.9)	25,655 (8.8)	11,682 (4.0)	8,852 (3.0)	2,248 (0.8)	293,375 (100.0)
1988	156,744 (54.0)	53,862 (18.5)	2,387 (0.8)	21,139 (7.3)	7,557 (2.6)	26,440 (9.1)	11,660 (4.0)	8,584 (3.0)	2,116 (0.7)	290,489 (100.0)
年 平 均 增 減 率										
1960 ~70	-0.2	2.6	8.3	-0.8	10.7	9.1	13.0	8.0	2.2	2.7
1970 ~80	-0.5	-8.4	-22.6	-3.1	-5.8	-1.9	2.4	-0.6	-2.8	-4.2
1980 ~88	0.1	-4.3	-1.7	-0.7	-9.1	-2.2	1.8	-1.3	-11.9	-1.6

資料: 경상남도, 「경남통계연보」 각연도.

米穀의 植付面積은 絶對值로는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으나 相對的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飼料作物에 속하는 麥類의 植付面積은 1960년대에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에 와서는 연평균 8.4%씩 감소해 왔다. 植付面積의 구성비도 격감하였는데 1960년에는 36.5%이었으나 1988년에는 18.5%로 떨어졌다.

農産物 중에서 所得彈力值가 가장 먼저 負值로 전환된 雜穀類의 植

植付面積 變動을 보면 1960년대에는 연평균 8.3%씩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연평균 22.6%씩 감소하였다. 植付面積의 감소율을 기준으로 보아도 雜穀類가 첫번째의 쇠퇴작목이라 할 수 있다. 總植付面積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1970년에는 7.0%까지 증가하였으나 1988년에는 0.8%로 떨어졌다. 植付面積의 구성비로 볼 때 雜穀類는 主要 農産物에서 탈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豆類의 植付面積은 매년 감소해 왔으나 總植付面積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즉, 農産物 生産構造上으로 보면 豆類의 중요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薯類는 1960년대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서는 植付面積이 격감해 왔다. 즉, 1970년대의 연평균 감소율은 5.8%이고 1980년대의 그것은 9.1%에 달했다.

菜蔬類의 植付面積은 1970년대 이후부터 감소해 왔으나 구성비는 증가하였다. 즉, 成長作目이라 할 수 있는 菜蔬類의 植付面積 절대치는 감소해 왔지만 상대적으로는 증가해 왔다.

成長作目인 果實類의 植付面積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總植付面積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급증하였다. 즉, 1960년의 구성비는 0.6%로 主要作目이라 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1988년에 와서 구성비는 4.0%로 급증하였다.

桑田面積은 1960년대에는 연평균 2.2%씩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연평균 2.8%씩 감소하였고 1980년대에 와서는 감소율이 11.9%로 가속되었다. 이에 따라 植付面積의 구성비는 1960년의 1.6%에서 1988년에는 0.7%로 떨어졌다 植付面積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慶南의 主要作目이라 할 수 없으나, 農家の 農外就業機會가 낮고 農業生産基盤도 열악한 西部慶南地域에 桑田이 특화되어 있어 이 지역의 농가로서는 중요한 所得作目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類別로 植付面積의 變動現況을 고찰해 본 결과 慶南의 농업은 經濟成長에 부응하여 植付面積이 탄력적으로

조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慶南 農業이 안고 있는 生産構造上의 특질을 밝히기 위한 방안으로 類別 植付面積의 구성비를 타지역과 대비시켜 <表 4-2>에 제시하였다.

總植付面積에서 차지하는 米穀의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慶南은 48.7%로 全南의 49.8% 수준과 유사하다. 그러나 麥類 植付面積 구성비는 16.7%로 全南의 19.1%에 이어 全國에서 두번째이다. 이는 二毛作 地帶의 生産組織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雜穀 植付面積 구성비는 0.8%이고 豆類의 그것은 1.6%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것은 生産構造改善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農業基盤條件이 生産構造를 개선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류 植付面積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菜蔬類의 植付面積 구성비는 8.9%로 全國에서 가장 낮다. 그러나 施設菜蔬가 주종인 施設作物의 植付面積 구성비는 2.3%로 道 중에서 濟州의 2.4%에 이어 두번째이고 全國의 구성비 1.3%에 비해 월등히 높다.

果實類 植付面積 구성비는 3.6%로 全國의 구성비 4.7%에 비해 낮다. 이는 農地의 基盤條件이 果樹生産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桑田面積은 2,116ha로 全國에서 가장 많고 桑田面積 구성비는 0.7%로 全國에서 가장 높다.

타 지역에 비해 桑田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는데, 西部慶南地域에는 農地基盤條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양잠보다 수익성이 더 높은 작목이 적어 양잠이 特化品目으로 정착되어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慶南의 生産構造를 타지역과 비교하여도 生産構造改善은 뒤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타지역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營農立地條件의 有利性を 충분히 활용하여 타지역에 비해 比較優位에 있는 作目的 植付面積을 확대해 왔다.

植付面積 구성비를 두고 판단하면 麥類와 施設園藝作목이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화도는 다음 節에서 고찰한다.

表 4-2 主要農産物 植付面積의 地域間 比較, 1988

單位: ha, %

	米穀	麥類	雜穀	豆類	薯類	菜蔬類	果實類	特用作物	桑田	施設作物	其他	合計
서울	1,322 (34.5)	-	10 (0.3)	46 (1.2)	21 (0.6)	1,458 (38.1)	105 (2.8)	58 (1.6)	-	480 (12.5)	328 (8.4)	3,823 (100.0)
부산	3,350 (40.3)	1 -	13 (0.2)	45 (0.6)	21 (0.3)	3,278 (39.4)	56 (0.7)	17 (0.2)	-	855 (10.3)	660 (8.0)	8,296 (100.0)
대구	3,608 (36.8)	493 (5.1)	26 (0.3)	223 (2.3)	17 (0.2)	2,942 (30.1)	1,551 (15.8)	288 (3.0)	-	277 (2.8)	350 (3.6)	9,775 (100.0)
인천	2,314 (61.1)	-	5 (0.1)	115 (3.0)	83 (2.2)	591 (15.6)	129 (3.4)	36 (1.0)	-	124 (3.3)	392 (10.4)	3,789 (100.0)
광주	12,550 (54.4)	1,843 (8.0)	67 (0.3)	910 (4.0)	122 (0.5)	3,782 (16.4)	514 (2.2)	564 (2.5)	57 (0.3)	1,344 (5.8)	1,290 (5.6)	23,043 (100.0)
경기	182,602 (61.2)	767 (0.3)	1,653 (0.8)	16,713 (5.6)	1,813 (0.6)	37,783 (12.6)	8,435 (2.8)	16,530 (5.6)	463 (0.2)	3,590 (1.2)	27,724 (9.3)	298,073 (100.0)
강원	61,083 (40.0)	1,113 (0.7)	15,242 (10.0)	15,582 (10.2)	8,400 (5.5)	27,820 (18.2)	1,658 (1.1)	12,997 (8.5)	385 (0.3)	504 (0.4)	7,802 (5.1)	152,586 (100.0)
충북	76,555 (43.6)	1,302 (0.8)	3,508 (2.0)	20,635 (11.6)	931 (0.5)	23,300 (13.3)	8,347 (4.8)	20,748 (11.8)	830 (0.5)	344 (0.2)	19,053 (10.9)	175,553 (100.0)
충남	188,421 (59.4)	4,383 (1.4)	1,176 (0.4)	20,288 (6.4)	1,953 (0.6)	37,121 (11.7)	10,404 (3.3)	23,012 (7.3)	620 (0.2)	3,832 (1.2)	25,984 (8.2)	317,194 (100.0)
전북	176,329 (64.9)	9,973 (3.7)	1,935 (0.7)	12,229 (4.5)	2,819 (1.0)	29,455 (10.9)	3,268 (1.2)	14,585 (5.4)	843 (0.3)	1,985 (0.7)	18,235 (6.7)	271,656 (100.0)
전남	203,623 (44.4)	87,414 (19.1)	2,707 (0.6)	50,176 (11.0)	12,813 (2.8)	50,691 (11.0)	7,673 (1.7)	18,063 (4.0)	878 (0.2)	5,030 (1.1)	18,697 (4.1)	457,765 (100.0)
경북	190,717 (46.0)	23,772 (5.8)	4,953 (1.2)	27,664 (6.7)	3,787 (0.9)	56,467 (13.7)	47,303 (11.5)	28,369 (6.9)	1,924 (0.5)	4,801 (1.2)	23,652 (5.6)	413,409 (100.0)
경남	156,744 (48.7)	53,862 (16.7)	2,387 (0.8)	21,139 (6.6)	7,557 (2.4)	28,758 (8.9)	11,660 (3.6)	9,644 (3.0)	2,116 (0.7)	7,320 (2.3)	20,704 (6.3)	321,891 (100.0)
제주	911 (1.3)	11,623 (16.0)	1,586 (2.2)	12,245 (16.9)	5,841 (8.1)	10,140 (14.0)	18,441 (25.4)	8,171 (11.3)	-	1,712 (2.4)	1,895 (2.5)	72,529 (100.0)
合計	1,260,129 (49.8)	196,546 (7.8)	35,268 (1.4)	198,010 (7.8)	46,178 (1.8)	313,586 (12.4)	119,544 (4.7)	153,082 (6.1)	8,116 (0.3)	32,198 (1.3)	166,725 (6.6)	2,529,382 (100.0)

資料: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1989.

## 나. 園藝作物

植付面積의 구성비를 道間에 비교한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慶南은 施設園藝가 특화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施設園藝作物의 植付面積을 市道別로 <表 4-3>에 제시하였다.

施設園藝作物의 總栽培規模를 보면, 慶南은 7,320ha로 全國에서 가장 많고 全國 總面積의 22.7%를 차지하고 있다.

施設菜蔬類 중에서 葉菜類와 根菜類 植付面積은 상대적으로 적고 果

表 4-3 施設 園藝作物 植付面積의 地域間 比較, 1988

單位: ha, %

	葉菜類		根菜類		果菜類		菜蔬類合計		花卉類		其他		施設合計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서울	141	2.8	51	2.8	89	0.5	281	1.1	161	12.6	38	0.8	480	14.9
부산	216	4.3	48	2.7	301	1.6	565	2.2	82	6.4	204	4.1	855	2.7
대구	57	1.2	7	0.4	163	0.9	227	0.9	12	0.9	38	0.8	277	0.9
인천	21	0.4	20	1.1	12	0.1	53	0.2	56	4.4	15	0.3	124	0.4
광주	336	6.7	249	13.9	627	3.3	1,212	4.7	36	2.8	96	19.5	1,344	4.2
경기	1,132	22.7	340	18.9	870	4.5	2,342	9.0	452	35.4	796	16.1	3,590	11.2
강원	46	0.9	8	0.5	280	1.5	334	1.3	4	0.3	166	3.4	504	1.6
충북	68	1.4	24	1.3	240	1.3	332	1.3	1	0.1	11	0.2	344	1.1
충남	742	14.9	301	16.7	2,608	13.6	3,651	14.1	21	16.5	178	3.6	3,832	11.9
전북	284	5.7	227	12.6	876	4.6	1,387	5.3	3	0.2	595	12.0	1,985	6.2
전남	1,124	22.5	248	13.8	2,984	15.5	4,356	16.8	134	10.5	540	10.9	5,030	15.6
경북	236	4.7	37	2.1	4,363	22.7	4,636	17.8	11	0.9	154	3.1	4,801	14.9
경남	537	10.8	239	13.3	5,710	29.7	6,486	25.0	244	19.1	590	11.9	7,320	22.7
제주	51	1.0	-	-	81	0.3	132	0.5	59	4.6	1,521	30.7	1,712	5.3
합계	4,991	100.0	1,799	100.0	19,204	100.0	25,994	100.0	1,276	100.0	4,942	100.0	32,198	100.0

資料: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1989.

채류에 특화되어 있다. 慶南의 葉菜類 면적은 537ha로 京畿, 全南의 절반 수준이고 全國의 總面積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8%이다.

그러나 果菜類의 栽培面積은 5,710ha로 市道 중에서 가장 많고 總面積의 29.7%를 차지하고 있다. 氣候條件이 유리하여 果菜類가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채류가 특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유사한 氣候條件에 처해 있는 全南地域은 葉菜類의 栽培面積이 상대적으로 많다, 과채류가 葉菜類에 비해 상대적으로 技術集約인 품목이므로 施設園藝 栽培技術은 慶南地域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화훼류 재배면적을 보면 京畿道가 452ha로 가장 많고 다음은 慶南인데, 규모는 244ha이고 總面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1%에 이르고 있다. 慶南內에서는 施設園藝가 특화되어 있는 정도가 地域間에 차이가 크다.

〈表 4-4〉에는 施設菜蔬의 재배면적을 慶南內의 市郡別로 제시하였다.

慶南內에서 施設園藝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곳은 密陽郡으로 그 규모는 1,226.4ha에 달하고 慶南 전체 면적의 22.4%를 차지한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施設園藝는 晉州, 晉陽, 宜寧 등 南江 지역의 江邊 平野地帶와 密陽, 昌寧, 咸安, 金海市, 金海郡 등 낙동강 지역의 강변 平野地帶에 특화되어 있다.

氣候條件과 土壤條件 및 灌溉條件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施設園藝의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類別 分布를 보면 果菜類는 江邊 平野地帶에 특화되어 있고 葉菜類는 大都市 近郊地域인 金海市, 金海郡, 梁山郡에 특화되어 있으나 과채류에 비해 全市郡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葉菜類에 비해 技術集約의 이며, 엽채류보다 더 까다로운 土壤條件과 관배수 조건을 요구하는 과채류는 比較優位를 갖고 있는 地域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果菜類는 江邊 平野地帶에 집중되어 있으나,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품목이 다르다. 〈表 4-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오이는 전 지

表 4-4 慶南의 施設菜蔬 栽培面積, 1988

單位 : ha, %

	葉菜類		根菜類		果菜類		合 計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창원시	0.9	0.2	0.4	0.2	6.6	0.1	7.9	0.1
울산시	25.8	5.2	10.6	4.1	17.6	0.4	54.0	0.1
마산시	0.2	0.04	-	-	2.0	0.04	2.2	0.04
진주시	14.0	2.8	8.1	3.2	441.1	9.3	463.2	8.5
진해시	2.0	0.4	-	-	7.0	0.1	9.0	0.2
충무시	0.7	0.1	0.5	0.2	1.8	0.04	3.0	0.1
삼천포	9.0	1.8	9.3	3.6	23.2	0.5	41.5	0.1
김해시	36.0	7.2	4.8	1.9	82.9	1.8	123.7	2.3
진양군	15.8	3.2	0.8	0.3	698.6	14.8	715.2	13.1
의령군	10.9	2.2	3.9	1.5	364.5	7.7	379.3	6.9
함안군	0.9	0.2	0.6	0.2	420.1	8.9	421.6	7.7
창녕군	40.1	8.1	6.1	2.4	303.5	6.4	349.7	6.4
밀양군	10.7	2.1	133.7	52.3	1,082.3	22.9	1,226.7	22.4
양산군	39.3	7.9	18.5	7.2	181.0	3.8	238.8	4.4
울주군	74.8	15.0	10.3	4.0	55.9	1.2	141.0	2.6
김해군	102.8	20.0	18.1	7.1	442.5	9.4	563.4	10.3
의창군	17.1	3.4	1.0	0.4	278.7	5.9	296.8	5.4
통영군	0.4	0.1	0.1	0.04	3.8	0.1	4.3	0.1
거제군	2.9	0.6	0.5	0.2	10.5	0.2	13.9	0.3
고성군	5.2	1.0	0.2	0.08	49.3	1.0	54.7	0.1
사천군	3.9	0.8	-	-	51.9	11.1	55.8	0.1
남해군	1.2	0.2	0.7	0.3	5.9	0.1	7.8	0.1
하동군	32.0	6.4	13.7	5.4	38.3	0.8	84.0	1.5
산청군	23.0	4.6	12.0	4.7	26.0	0.6	61.0	1.1
함양군	2.7	0.5	-	-	1.8	0.04	4.5	0.1
거창군	12.2	2.4	1.2	0.5	38.1	0.8	51.5	0.1
합천군	13.5	2.7	0.4	0.2	83.3	1.8	97.2	1.8
합 計	498.6	100.0	255.5	100.0	4,718.2	100.0	5,472.3	100.0

資料 : 경상남도 잠업특작과.

역에 걸쳐 재배되고 있으나 晉州市, 晉陽郡, 昌寧郡에 집중되어 있다. 즉, 晉陽郡의 오이 植付面積은 132.3.ha로 慶南 全體의 25.0%를 차지하고 있다. 上記 세 지역의 오이 재배면적은 335.1ha로 전체의 63.4%를 차지하고 있다.

호박은 晉陽郡이 41.5%, 宜寧이 27.7%, 固城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참외는 宜寧과 咸安에 특화되어 있고, 수박은 咸安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의 34.6%를 차지하고 있다.

토마토는 金海郡에 특화되어 있는데 金海郡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30.8%에 달한다. 그러나 타품목에 비하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에는 상대적으로 타품목에 비해 技術粗放의이라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고추는 昌寧郡과 晉陽郡에 특화되어 있다. 昌寧郡의 고추 재배면적은 425.3ha를 慶南 전체의 43.2%를 차지하고 있고 晉陽郡의 그것은 261ha로 전체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즉, 2개 郡이 전체 고추면적의 69.7%를 차지하고 있다.

딸기는 密陽郡과 金海郡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높으나 타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것은 딸기 재배기술이 상대적으로 전수받기 쉽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채류 중에서도 지역에 따라 특화되어 있는 품목이 상이한데, 特化品目を 결정하는 요인은 栽培技術이며 한 지역에 한 품목이 특화됨에 따라 商品差別化가 가능하여 農家受取價格을 높이는 지역도 많다.

〈表 4-6〉에는 주요 果實類의 재배면적이 市道別로 제시되어 있다. 慶南의 사과 재배면적은 1,190ha로 총면적의 2.8%에 불과하다. 반면에 慶北은 총면적의 66.4%를 차지하고 있다.

慶南의 배 재배면적은 1,418ha로 전체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복숭아와 포도의 재배면적 구성비는 각각 10.2%, 6.8%로 상대적으로 구성비가 작다. 그러나 감의 재배면적은 5,126ha로 전체의 46.6%를

表 4-5 主要 施設果菜類 栽培面積의

	오 이		호 박		참 의		수 박	
	面 積	構 成 比	面 積	構 成 比	面 積	構 成 比	面 積	構 成 比
창 원 시	1.4	0.3	-	-	-	-	1.3	0.2
울 산 시	1.1	0.2	4.2	1.4	-	-	-	-
마 산 시	-	-	0.5	0.2	-	-	-	-
진 주 시	106.7	20.2	31.7	10.4	56.5	14.0	110.7	13.1
진 해 시	2.0	0.4	-	-	-	-	-	-
충 무 시	0.7	0.1	-	-	-	-	-	-
삼 천 포	1.5	0.3	0.2	0.1	0.2	0.05	1.0	0.1
김 해 시	13.5	2.6	5.3	1.7	22.9	5.7	2.3	0.3
진 양 군	132.3	25.0	126.1	41.5	19.1	4.7	31.1	3.7
의 령 군	4.2	0.8	84.2	27.7	69.0	17.2	187.9	22.2
함 안 군	12.2	2.3	2.3	0.8	93.1	23.1	292.2	34.6
창 념 군	96.1	18.2	1.9	0.6	11.6	2.9	78.1	9.2
밀 양 군	6.3	1.2	-	-	23.0	5.7	8.0	0.9
양 산 군	13.0	2.5	2.5	0.8	6.0	1.5	34.0	4.0
울 주 군	3.6	0.7	0.7	0.2	-	-	-	-
김 해 군	47.9	9.0	8.7	2.9	42.7	10.6	2.4	0.3
의 창 군	52.4	9.9	1.7	0.6	48.1	12.0	44.5	5.3
통 영 군	-	-	-	-	-	-	0.4	0.05
거 제 군	1.8	0.3	0.2	0.1	-	-	-	-
고 성 군	2.9	0.5	22.2	7.3	0.6	0.1	0.3	0.04
사 천 군	6.8	1.3	2.2	0.7	-	-	11.2	1.3
남 해 군	0.3	0.1	0.8	0.3	-	-	-	-
하 동 군	9.0	1.7	1.0	0.3	0.1	0.02	16.8	2.0
산 청 군	1.7	0.3	1.0	0.3	0.7	0.2	0.9	0.1
함 양 군	1.4	0.3	-	-	-	-	-	-
거 창 군	4.8	0.9	0.9	0.3	-	-	-	-
합 천 군	4.8	0.9	5.6	1.8	8.6	2.1	22.0	2.6
합 계	528.4	100.0	303.9	100.0	402.2	100.0	845.1	100.0

資料 : 경상남도 잠업특작과.

## 地域別 分布, 1988

單位: ha, %

토마토		고추		딸기		기타		합계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面積	構成比
0.7	0.2	0.1	0.01	2.8	0.2	0.3	0.7	6.6	0.1
3.0	1.0	1.7	0.2	7.6	0.6	-	-	17.6	0.4
1.4	0.5	0.1	0.01	-	-	-	-	2.0	0.04
39.1	12.9	76.6	7.8	19.5	1.5	0.3	0.7	441.1	9.3
2.5	0.8	0.5	0.1	2.0	0.2	2.0	4.4	7.0	0.1
-	-	-	-	1.1	0.1	0.7	1.6	1.8	0.04
12.3	4.1	4.6	0.5	3.3	0.3	0.1	0.2	23.2	0.5
19.4	6.4	0.7	0.1	18.8	1.4	-	-	82.9	1.8
11.2	3.7	261.0	26.5	116.8	8.9	1.0	2.2	698.6	14.8
2.8	0.9	6.8	0.7	9.2	0.7	0.4	0.9	364.5	7.7
0.7	0.2	7.7	0.8	10.7	0.8	1.2	2.7	420.1	8.9
30.7	10.2	67.6	6.9	12.1	0.9	5.4	12.0	303.5	6.4
20.4	6.7	425.3	43.2	599.3	45.9	-	-	1,082.3	22.9
10.0	3.3	41.0	4.2	73.0	5.6	1.5	3.3	181.0	3.8
12.2	4.0	10.7	1.1	28.7	2.2	-	-	55.9	1.2
93.1	30.8	9.1	0.9	230.2	17.6	8.4	18.7	442.5	9.4
11.9	3.9	24.6	2.5	75.3	5.8	20.2	44.9	278.7	5.9
0.1	0.03	-	-	3.0	0.2	1.0	2.2	3.8	0.1
4.7	1.6	0.5	0.1	3.3	0.3	-	-	10.5	0.2
12.0	4.0	4.2	0.4	6.7	0.5	0.4	0.9	49.3	1.0
7.3	2.4	17.3	1.8	5.7	0.4	1.4	3.1	51.9	1.1
0.4	0.1	1.2	0.1	0.7	0.1	2.5	5.6	5.9	0.1
0.5	0.2	3.6	0.4	7.2	0.6	0.1	0.2	38.3	0.8
2.0	0.7	10.5	1.1	9.1	0.7	0.1	0.2	26.0	0.6
0.4	0.1	-	-	-	-	-	-	1.8	0.04
1.4	0.5	8.0	0.8	23.0	1.8	-	-	38.1	0.8
2.2	0.7	2.2	0.2	36.5	2.8	1.4	3.1	83.3	1.8
302.4	100.0	985.6	100.0	1,305.6	100.0	45.0	100.0	4,718.0	100.0

表 4-6 果實類 植栽面積의 地域間 比較, 1988

單位 : ha, %

	사 과		배		복숭아		포 도		감		과수합계	
	面 積	構 成 比	面 積	構 成 比								
서울	2	0.005	86	1.0	11	0.1	6	0.04	-	-	105	0.1
부산	-	-	41	0.5	-	-	3	0.02	11	0.1	56	0.05
대구	349	0.8	-	-	364	2.7	666	4.1	1	0.01	1,551	1.3
인천	19	0.04	11	0.1	2	0.02	97	0.6	-	-	129	0.1
광주	-	-	79	0.9	19	0.1	199	1.2	197	1.8	514	0.4
경기	2,250	5.2	2,585	30.8	890	6.7	2,600	16.1	21	0.2	8,435	7.1
강원	559	1.3	177	2.1	476	3.6	163	1.0	40	0.4	1,658	1.4
충북	4,494	10.4	204	2.4	1,103	8.3	1,952	12.1	95	0.9	8,347	7.0
충남	4,727	10.9	1,543	18.4	1,623	12.2	1,989	12.3	236	2.1	10,404	8.7
전북	719	1.7	314	3.7	1,334	10.0	399	2.5	367	3.3	3,268	2.7
전남	214	0.5	1,471	16.9	777	5.8	721	4.5	3,352	30.4	7,673	6.4
경북	28,670	66.4	452	5.4	5,346	40.2	6,225	38.6	1,528	13.9	47,303	39.6
경남	1,190	2.8	1,418	1.9	1,363	10.2	1,099	6.8	5,126	46.6	11,660	9.7
제주	-	-	-	-	-	-	-	-	36	0.3	18,441	15.4
합계	43,190	100.0	8,381	100.0	13,308	100.0	16,119	100.0	11,010	100.0	119,544	100.0

資料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1989.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단감은 南部 慶南地域에만 재배가 가능하므로 특화도가 높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단감은 慶南에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단감 외에 타지역에 비해 比較優位가 있다고 할 수 있는 果樹는 없다고 하겠다.

#### 다. 畜 産

대표적인 成長品目は 畜産인데, 飼料穀物 生産基盤이 불리하고 草食 家畜의 기반이 열악하여 畜産開發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畜産基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이긴 하지만 慶南의 畜産이 전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表 4-7〉에는 主要 家畜에 대한 지표가 市道別로 제시되어 있다.

慶南의 韓牛 飼育農家は 120,779戶이고, 總飼育頭數는 250,810頭로 둘 다 전국에서 두번째이다. 이를 두고 판단할 때, 韓牛 飼育基盤은

表 4-7 全國 地域別 主要 家畜 飼育現況, 1988

單位：戶，頭

	韓 牛			젓 소			돼 지			닭		
	飼育 戶數	總 頭數	戶當 頭數	飼育 戶數	總 頭數	戶當 頭數	飼育 戶數	總 頭數	戶當 頭數	飼育 戶數	總 頭數	戶當 頭數
서울	87	673	7.7	39	813	20.8	83	2,527	30.4	354	47,116	133.1
부산	512	1,020	2.0	149	2,177	14.6	615	17,997	29.3	469	1,310,502	2,794.2
대구	1,155	8,309	7.2	168	2,697	16.1	839	35,829	42.7	430	295,603	687.4
인천	271	1,858	6.9	426	7,534	17.7	471	49,990	106.1	219	765,918	3,497.3
광주	3,644	9,189	2.5	347	3,575	10.3	1,165	17,196	14.8	1,409	493,179	350.0
경기	48,661	175,343	3.6	16,558	234,467	14.2	38,006	1,557,418	41.0	21,360	22,742,718	1,064.7
강원	56,960	133,752	2.3	1,456	18,047	12.4	5,760	199,303	34.6	16,830	2,887,395	171.6
충북	55,573	111,976	2.0	1,868	18,641	10.0	9,543	177,488	18.6	13,240	1,713,433	129.4
충남	89,033	210,636	2.4	5,215	63,475	12.2	53,196	749,857	14.1	26,045	6,190,227	237.7
전북	61,209	116,217	1.9	1,864	23,106	12.4	31,007	400,596	12.9	18,904	2,963,162	156.7
전남	115,605	209,377	1.8	1,786	24,395	13.7	56,779	379,879	6.7	41,662	2,515,055	60.4
경북	138,213	296,538	2.1	2,783	39,041	14.0	20,098	552,828	27.5	23,681	10,028,449	423.5
경남	120,779	250,810	2.1	2,922	39,643	13.6	37,491	602,620	16.1	28,821	5,853,878	203.1
제주	10,653	33,254	3.1	132	2,628	19.9	5,707	109,113	19.1	623	660,331	1,059.9
합계	761,755	1,558,952	2.0	35,713	480,239	13.4	260,760	4,852,641	18.6	194,047	58,466,966	301.3

資料：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1989.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戶當 飼育規模는 2.1頭로 平均 值로서는 전통적인 飼育體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전국 평균치보다는 높다.

한편 지역간 韓牛 飼育 規模別 農家分布를 보면 表 4-8, 慶南의 韓牛 飼育은 傳統的인 飼育體系가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즉, 1~2頭的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구성비는 83.7%로 전국의 77.1%에 비해 높다.

飼育規模가 50頭 이상인 企業經營形態의 농가를 지역간에 비교해 보면, 京畿道는 300호로 그 구성비는 0.6%에 이르고 있으나 慶南은 129호로 구성비는 0.1%에 불과하다.

아울러 複合經營規模라 할 수 있는 7~14頭 혹은 15~29頭的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구성비도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慶南에는 韓牛 사육농가와 총사육두수는 많으나 전통적인 사육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인데 山間地帶 내지 準山間地帶의 農業經營構造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慶南의 젓소 사육농가는 2,922호로 전국의 총사육농가 35,713호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젓소 사육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戶當 飼育規模는 13.6頭로 전국의 13.4頭보다 많다.

젓소 飼育規模의 農家分布를 보면 <表 4-9 참조>, 慶南의 경우 젓소 사육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즉, 총농가호수는 적으나 酪農專門經營農家라 할 수 있는 30~49頭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구성비와 企業形態의 經營規模라 할 수 있는 50頭 이상의 규모로 사육하는 農家の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東部慶南에 속하는 蔚州郡과 梁山郡은 耕地率이 낮지만 구릉지대가 많아 草地造成適地가 상대적으로 많다. 1960년대, 1970년대에 이 지역에 대규모로 경영하는 乳牛 飼育農家 혹은 農企業의 출현으로 飼育規模가 큰 농가의 구성비가 타지역에 비해 높다. 그러나 近年에 들어와 兩郡에는 工業化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酪農基盤이 위축되어 酪農

表 4-8 韓牛 飼育規模別 農家戶數의 地域間 比較, 1988

單位: 戶, %

	1 ~ 2두	3 ~ 6	7 ~ 14	15 ~ 29	30 ~ 50	50이상	합 계
서울	19 (21.8)	36 (41.4)	18 (20.7)	10 (11.5)	4 (4.6)	-	87 (100.0)
부산	457 (89.3)	31 (6.1)	20 (3.9)	2 (0.4)	1 (0.2)	1 (0.2)	512 (100.0)
대구	530 (45.9)	273 (23.6)	249 (21.6)	55 (4.8)	27 (2.3)	21 (1.8)	1,155 (100.0)
인천	180 (66.4)	24 (8.9)	40 (14.8)	30 (11.1)	11 (4.1)	7 (2.6)	271 (100.0)
광주	2,743 (75.3)	635 (17.4)	182 (5.0)	108 (3.0)	7 (0.2)	1 (0.03)	3,644 (100.0)
경기	35,998 (74.0)	7,410 (15.2)	3,410 (7.0)	2,285 (4.7)	409 (0.8)	300 (0.6)	48,661 (100.0)
강원	42,802 (75.1)	12,004 (21.1)	1,784 (3.1)	828 (1.5)	59 (0.1)	43 (0.1)	56,960 (100.0)
충북	48,158 (86.7)	5,392 (9.7)	1,436 (2.3)	817 (1.5)	123 (0.2)	69 (0.1)	55,573 (100.0)
충남	73,246 (82.3)	10,836 (12.2)	3,515 (4.0)	2,254 (2.5)	235 (0.3)	146 (0.2)	89,003 (100.0)
전북	53,941 (88.1)	5,486 (9.0)	1,273 (2.1)	775 (1.3)	107 (0.2)	81 (0.1)	61,209 (100.0)
전남	102,952 (89.1)	9,612 (8.3)	2,141 (1.9)	1,326 (1.2)	150 (0.1)	108 (0.1)	115,605 (100.0)
경북	118,354 (85.6)	14,098 (10.2)	3,783 (2.7)	2,817 (2.0)	332 (0.2)	254 (0.2)	138,213 (100.0)
경남	101,101 (83.7)	15,628 (12.9)	2,888 (2.4)	1,769 (1.5)	212 (0.2)	129 (0.1)	120,779 (100.0)
제주	6,876 (64.6)	2,661 (25.0)	384 (3.6)	162 (1.5)	22 (0.2)	42 (0.4)	10,653 (100.0)
합 계	587,357 (77.1)	84,126 (11.0)	21,143 (2.8)	13,336 (1.8)	1,707 (0.2)	1,202 (0.2)	761,755 (100.0)

資料: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1989.

表 4-9 젓소 飼育規模別 農家戶數의 地域間 比較, 1988

單位: 戶, %

	1~19	20~49	50~ 499	500~ 999	1,000~ 1,999	2,000~ 4,999	5,000~ 9,999	10,000 이 상	합 계
서울	344 (97.2)	6 (1.7)	1 (0.3)	-	-	1 (0.3)	-	2 (0.6)	354 (100.0)
부산	436 (93.0)	24 (5.1)	-	-	-	4 (0.9)	1 (0.2)	4 (0.9)	469 (100.0)
대구	344 (80.0)	26 (6.1)	1 (0.2)	-	5 (1.2)	30 (7.0)	22 (5.1)	2 (0.5)	430 (100.0)
인천	156 (71.2)	1 (0.5)	1 (0.5)	-	-	27 (12.3)	25 (11.4)	9 (4.1)	219 (100.0)
광주	1,295 (91.9)	-	25 (1.8)	1 (0.1)	25 (1.8)	23 (1.6)	27 (1.9)	13 (0.9)	1,409 (100.0)
경기	19,055 (89.2)	317 (1.5)	132 (0.6)	63 (0.3)	124 (0.6)	350 (1.6)	612 (2.9)	707 (3.3)	21,360 (100.0)
강원	16,146 (95.9)	232 (1.4)	141 (0.8)	11 (0.1)	66 (0.4)	118 (0.7)	73 (0.4)	43 (0.3)	16,830 (100.0)
충북	12,557 (94.8)	211 (1.6)	146 (1.1)	35 (0.3)	86 (0.7)	112 (0.9)	59 (0.5)	34 (0.3)	13,240 (100.0)
충남	24,975 (95.9)	199 (0.8)	53 (0.2)	31 (0.1)	44 (0.2)	272 (1.0)	291 (1.1)	180 (0.7)	26,045 (100.0)
전북	18,359 (97.1)	175 (0.9)	76 (0.4)	-	14 (0.1)	98 (0.5)	102 (0.5)	80 (0.4)	18,904 (100.0)
전남	41,114 (98.7)	142 (0.3)	29 (0.1)	27 (0.1)	34 (0.1)	124 (0.3)	130 (0.3)	62 (0.2)	41,662 (100.0)
경북	21,851 (92.3)	465 (2.0)	200 (0.8)	122 (0.5)	83 (0.4)	382 (1.6)	429 (1.8)	149 (0.6)	23,681 (100.0)
경남	27,797 (96.5)	293 (1.0)	68 (0.2)	34 (0.1)	95 (0.3)	214 (0.7)	187 (0.7)	133 (0.5)	28,821 (100.0)
제주	534 (85.7)	-	-	-	-	36 (5.8)	28 (4.5)	25 (4.0)	623 (100.0)
합 계	184,936 (95.3)	2,091 (1.0)	873 (0.5)	324 (0.2)	576 (0.3)	1,791 (0.9)	1,986 (1.0)	1,443 (0.7)	194,047 (100.0)

資料: 농림수산부, 「농림 통계연보」, 1989.

가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모가 큰 농가의 구성비도 높지만 1~4頭, 5~9頭의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구성비도 상대적으로 높다. 즉, 慶南의 젓소 飼育農家 分布는 상대적으로 兩極分化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東部慶南의 酪農先進地域과 西部慶南의 後進地域이 양립하고 있다고 하겠다. 前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西部慶南地域에는 1980년대에 들어와 낙농이 도입되었는데, 소값 파동으로 젓소 사육을 포기한 농가가 속출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慶南의 돼지 飼育農家は 37,491호로 全國 總飼育農家の 14.4%를 차지하고 있다. 總飼育頭數는 602,620頭로 全國 總頭數의 12.4%를 차지하고 있고 戶當 頭數는 16.1頭로 전국 평균에 비해 영세하다. 즉, 飼育戶數는 상대적으로 많지만 규모는 영세하다.

飼育規模別 農家戶數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表 4-10> 傳統的인 飼育體系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상대적으로 많다. 즉, 10頭 이하의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구성비는 79.2%에 달하는데, 특히, 4頭 이하의 규모인 농가는 71.4%에 이른다.

즉, 農家 副産物을 이용하고 家族勞動의 配分에 있어 타 작목과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副業의인 養豚이 지배적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傳統類型이 수익성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基幹 複合經營 養豚, 혹은 專業經營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慶南의 養豚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하겠다.

닭 飼育農家は 28,821호로 전국 總飼育農家の 14.9%를 차지하고, 戶當飼育頭數는 2,031호로 전국 평균에 비해 영세하나 타지역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대규모이다.

飼育規模別 農家戶數의 분포를 보면, 120首 미만의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가 전체의 96.5%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전국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즉, 傳統的인 飼育體系에 머무르고 있는 多數의 농가와 近代的인 飼育體系를 갖추고 大規模로 경영하는 소수의 농가가 병존하고

表 4-10 돼지 飼育規模別 農家戶數의 地域間 比較, 1988

單位: 戶, %

	1 ~ 4두	5 ~ 9	10 ~ 19	20 ~ 29	30 ~ 49	50 이상	합 계
서울	-	7 (18.0)	12 (30.1)	13 (33.3)	7 (18.0)	-	39 (100.0)
부산	15 (10.1)	45 (30.2)	59 (39.6)	14 (9.4)	11 (7.4)	5 (3.4)	149 (100.0)
대구		34 (20.2)	93 (55.4)	28 (16.7)	12 (7.1)	1 (0.6)	168 (100.0)
인천	27 (6.3)	54 (12.7)	195 (45.8)	96 (22.5)	44 (10.3)	10 (2.4)	426 (100.0)
광주	62 (17.9)	171 (49.3)	78 (22.5)	24 (6.9)	8 (2.3)	4 (1.2)	347 (100.0)
경기	2,194 (13.3)	5,166 (31.2)	5,775 (34.9)	2,165 (13.1)	942 (5.7)	316 (1.9)	16,558 (100.0)
강원	349 (24.0)	499 (34.3)	433 (29.7)	97 (6.7)	53 (3.6)	27 (1.9)	1,456 (100.0)
충북	451 (24.1)	767 (41.1)	465 (24.9)	118 (6.3)	46 (2.5)	21 (1.1)	1,868 (100.0)
충남	1,075 (20.6)	2,033 (39.0)	1,319 (25.3)	500 (9.6)	198 (3.8)	90 (1.7)	5,215 (100.0)
전북	428 (8.2)	603 (11.6)	510 (9.8)	200 (3.8)	95 (1.8)	28 (0.5)	1,864 (100.0)
전남	359 (20.1)	514 (28.8)	557 (31.2)	208 (11.7)	116 (6.5)	32 (1.8)	1,786 (100.0)
경북	416 (15.0)	866 (31.1)	919 (33.0)	375 (13.5)	153 (5.5)	54 (1.9)	2,783 (100.0)
경남	493 (16.9)	962 (32.9)	896 (30.7)	340 (11.6)	168 (5.8)	63 (2.2)	2,922 (100.0)
제주	2 (1.5)	32 (24.2)	57 (43.2)	30 (22.7)	7 (5.3)	4 (3.0)	132 (100.0)
합 계	5,871 (16.3)	11,753 (32.9)	11,366 (31.8)	4,208 (11.8)	1,860 (5.2)	655 (1.8)	35,713 (100.0)

資料: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1989.

表 4-11 닭 飼育規模別 農家戶數의 地域間 比較, 1988

單位: 戶, %

	1 ~ 4두	5 ~ 9	10 ~ 29	30 ~ 49	50 ~ 99	100 이상	합 계
서울	24 (28.6)	6 (7.1)	29 (34.5)	7 (8.3)	12 (14.3)	5 (6.0)	83 (100.0)
부산	322 (52.4)	92 (15.0)	117 (19.0)	14 (2.3)	46 (7.5)	24 (3.9)	615 (100.0)
대구	205 (24.4)	104 (12.4)	215 (25.6)	69 (8.2)	179 (21.3)	67 (8.0)	839 (100.0)
인천	76 (16.1)	60 (12.7)	101 (21.4)	31 (6.6)	103 (21.9)	100 (21.2)	471 (100.0)
광주	883 (75.8)	55 (4.7)	120 (10.3)	29 (2.5)	42 (3.6)	36 (3.1)	1,165 (100.0)
경기	18,802 (49.5)	4,473 (11.8)	7,610 (20.0)	2,089 (5.5)	2,257 (5.9)	2,771 (7.3)	38,006 (100.0)
강원	2,649 (46.0)	701 (12.2)	1,151 (20.0)	341 (5.9)	567 (9.8)	351 (6.1)	5,760 (100.0)
충북	6,222 (65.2)	763 (8.0)	1,470 (15.4)	377 (4.0)	397 (4.2)	314 (3.3)	9,543 (100.0)
충남	36,216 (68.1)	4,650 (8.7)	8,239 (15.5)	1,586 (3.0)	1,500 (2.8)	1,005 (1.9)	53,196 (100.0)
전북	22,474 (72.5)	2,826 (9.1)	3,836 (12.4)	797 (2.6)	836 (2.7)	465 (1.5)	31,007 (100.0)
전남	49,456 (87.1)	2,611 (4.6)	3,223 (5.7)	590 (1.0)	504 (0.9)	395 (0.7)	56,779 (100.0)
경북	10,350 (51.5)	2,324 (11.6)	3,927 (19.5)	1,381 (6.9)	1,118 (5.6)	998 (5.0)	20,098 (100.0)
경남	26,780 (71.4)	2,924 (7.8)	4,557 (12.2)	1,087 (2.9)	1,104 (2.9)	1,034 (2.7)	37,491 (100.0)
제주	4,798 (84.1)	126 (2.6)	277 (4.9)	56 (1.0)	181 (3.2)	269 (4.7)	5,707 (100.0)
합 계	179,035 (68.7)	21,715 (8.3)	34,872 (13.4)	8,454 (3.2)	8,846 (3.4)	7,838 (3.0)	260,760 (100.0)

資料: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1989.

있는 실정이다〈表 4-11〉.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慶南의 畜産은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農業基盤條件이 畜産經營에 불리하여 畜産外 所得作目에 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地域別 特化作目

#### 가. 特化作目的 定義

生産組織을 개선하려 할 때, 그 지역이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는 작목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다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작목은 그 지역에 生産이 집중되게 마련이다.

어떤 작목이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생산되는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特化度를 이용하는데, 特化度을 計測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수단으로 特化係數가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LQ = \frac{X_{ij}/X_{i\cdot}}{Y_{ij}/Y_{\cdot j}}$$

여기서  $X_{ij}$ 는  $i$  地域의  $j$  作目 植付面積이고,  $X_{i\cdot}$ 는  $i$  地域의 총식부면적이다. 또한  $Y_{ij}$ 는 全國의  $j$  作目 식부면적이며,  $Y_{\cdot j}$ 는 全國의 총식부면적을 나타낸다.

作物의 경우에는 植付面積 資料를 이용하지만 畜産의 特化係數를 구하고자 한다면 飼育頭數와 農家戶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한 特化係數가 1보다 크면 그 지역의 특화 작목이라고 하거나 그 작목이 특화된 지역이라고 한다. 그 수치가 크면 클수록 特化度가 높다고 하는데, 이는 전지역 平均置를 나타내는 特化

係數로부터의 偏倚度에 의해 지역의 特化度を 測定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特化係數가 1보다 큰 지역을 그 作目の 特化지역 혹은 그 지역의 特化작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각 작목마다 偏倚도가 다르기 때문에 係數의 어느 特定値를 기준으로 特化지역 혹은 特化작목을 세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特化係數와 그 標準偏差의 결합에 의해 다음과 같이 作目空間을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하는 方案도 있다(姜奉淳 外 1984, 14-15).

特化地域 核心地域:  $LQ \geq Ma + S.D$

主産地域:  $Ma \leq LQ < Ma + S.D$

非特化地域:  $LQ < Ma$

여기서  $LQ$ 는 特化係數이고,  $Ma$ 는 特化계수의 平均值인데 일반적으로 1의 값을 가지며,  $S.D$ 는 特化계수의 標準偏差이다. 어떤 지역의 特化作目を 세분하고자 할 때는 核心地域을 核心作目으로, 主産地域을 主産作目으로, 非特化地域을 非特化作目으로 대치하면 된다.

이 연구에서는 慶南內 각 市郡을 기준으로 각 작목별로 全國對比 特化係數를 계측하였으나 慶南 이외 타지역의 特化계수는 자료의 제약으로 계측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標準偏差( $S.D$ )를 계측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는 편법으로 特化作目を 다음과 같이 세분하였다.

特化地域 核心作目:  $LQ \geq 2$

主産作目:  $1 \leq LQ < 2$

非特化作目:  $LQ < 1$

特化作目の 變遷과정을 高찰하기 위하여 1970, 1980, 1988년 자료를 이용하여 特化係數를 산출하였다. 1970년과 1980년 자료는 농업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였고 1988년 자료는 각 市郡에서 발표한 行政統計資料를 이용하였다.

## 나. 각 地域別 特化作目

앞에서 제시한 特化係數 算出方式에 의거하여 각 市郡別로 특화계수를 구하였는데 여기서는 각 市郡別로 1988년 현재의 特化作目만 고찰한다.

### □ 都市 地域

馬山市의 特化作目は 都市農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大麥(特化係數 2.05), 小麥(2.50)이 特化作目으로 정착되어 있는데, 이는 南部 二毛作地帶의 農業生産構造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大豆(1.56), 고구마(1.07)도 特化作目인데, 이는 開發制限區域內의 耕地 基盤條件이 불리한 農地에는 勞動粗放의인 작목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菜蔬類로는 상치(2.90), 시금치(1.44) 등의 葉菜類와 시설토마토(2.00)가 특화되어 있다. 馬山市에 특화계수가 가장 높은 작목은 시설화훼(133.00)인데 菊花의 主產地이다. 사과(2.88), 배(3.56), 복숭아(1.58), 포도(17.45) 등의 主要 果實類가 特化作目으로 정착되어 있다.

蔚山市의 특화작목으로는, 露地 葉菜類와 施設 葉菜類가 정착되어 있는데, 都市地域이라는 立地條件上의 특수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露地 葉菜類 중에서 상치(1.76), 시금치(2.26) 등이 특화작목이고 施設 葉菜類로는 무(5.18), 배추(4.16), 상치(4.56), 시금치(6.86) 등이 特化作目이다.

晋州市에는 主要 露地 果菜類와 시설채소류가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 있다. 특히, 시설오이의 특화계수는 45.83에 이르고 있다. 시설채소류 중에서도 葉菜類의 특화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果菜類의 특화도가 높다. 施設 花卉도 중요한 特化作目으로 정착되어 있다. 果實類 중에서 배(9.59), 복숭아(5.07)가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 있다.

昌原市는 都市化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農地는 非農業用으로 전

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農業은 일정 형태의 生産類型으로 정착될 수 없어 주로 菜蔬類가 생산되고 있는데, 노지 토마토(6.39)의 특화도가 높고 시설토마토, 시설딸기, 시설참외 등 果菜類의 특화계수가 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있다. 特化度가 가장 높은 품목은 施設花卉(47.50)이고, 果實類 중에서는 포도(16.78)와 감(3.67)이 特化作目으로 정착되어 있다. 즉, 都市內의 구릉지에 포도와 단감이 植栽되어 主產品目으로 정착되어 있다.

鎭海市에는 大麥, 大豆, 고구마 등의 특화계수가 1보다 큰데 이는 都市內 산기슭 지역에 勞動粗放的인 작목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치(2.53), 토마토(4.52), 오이(2.42) 등의 露地菜蔬類가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 있다.

忠武市에는 大麥(2.11), 大豆(2.40), 小豆(1.42), 감자(2.42), 고구마(11.80) 등의 食糧作物의 특화계수가 높는데, 都市內의 산비탈에 위치한 밭은 耕地基盤條件의 불리하여 粗放的인 食糧作物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露地 菜蔬類 중에서 김장무, 김장배추, 상치, 시금치, 노지오이, 노지참외 등이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 있다.

三千浦市에는 大麥의 특화계수가 5.86으로 가장 높고, 他都市와 마찬가지로 大豆, 小豆, 고구마 등 食糧作物의 특화도가 높다. 露地菜蔬의 특화도는 낮고 施設菜蔬類 중에는 무(4.35), 배추(1.81), 토마토(5.44) 등이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 있다.

金海市는 慶南內에서 耕地比率이 가장 높고 耕地基盤條件이 양호하며 農業의 經濟的 立地條件이 가장 유리한 지역이다. 農業을 둘러싼 諸般條件이 特化作目에 잘 반영되어 있다. 食糧作物 중에는 水稻(1.34), 감자(1.34), 고구마(1.29) 등이 특화작목인데, 平野地帶이므로 水稻는 당연히 특화작목에 포함되고 고구마와 감자는 他都市와 마찬가지로 基盤條件이 불리한 農地에 粗放的으로 재배되고 있다.

露地菜蔬類 중에서는 상치(12.76), 토마토(12.95), 오이(5.75), 참외(14.06) 등이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 있고 施設果菜類는 전품목이

특화작목이다. 特化度가 가장 높은 품목은 화훼인데 특화계수는 23.80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都市地域은 農業이 처해 있는 立地條件과 農地內部條件이 특화작목에 잘 반영되어 있다. 특히, 勞動粗放인 食糧作物이 都市地域에 특화되어 있다.

## 2] 準平野 地帶

耕地率이 25~40%인 郡을 準平野地帶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에 속하는 지역은 咸安郡, 昌寧郡, 金海郡, 義昌郡, 泗川郡 등이다. 이 중에서 泗川郡을 제외하고는 南江 혹은 洛東江이 관류하는 江邊平野地帶가 놓여 있다.

우선 南江流域인 咸安郡의 특화작목을 보면, 食糧作物로는 大麥(2.08), 大豆(1.08), 고구마(1.03) 등이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 있고 露地菜蔬類 중에서는 노지수박(6.74), 노지참외(1.89)의 特化度가 높고 他作目은 특화계수가 낮다. 施設菜蔬類에는 수박(12.40), 참외(3.19)의 특화도가 높으며, 재배되는 작목은 많으나 특화작목으로 정착된 품目は 적다. 果實類 중에서는 복숭아(2.17), 포도(2.35), 감(5.61) 등이 特化作目에 속한다. 포도는 양조용 포도의 식재면적이 많은데 최근에 競爭力이 약화되어 타작목으로 대체시키고 있다. 家畜 중에는 특화작목이 없는 실정인데, 이는 畝作 準平野地帶의 農業基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昌寧郡의 特化作目으로 보면, 水稻(1.02), 大麥(3.72), 大豆(1.19), 감자(4.83), 고구마(1.52) 등 主要 食糧作物의 특화도가 높는데, 이는 混作 準平野地帶라는 農業基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菜蔬類 중에서는 調味料 菜蔬인 고추(1.46), 마늘(1.61), 양파(14.87) 등이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 있는데, 양파는 이 지역의 核心作物이다. 混作地帶이므로 田作物 중에서 땅콩(1.30), 참깨(2.23) 등이 특화작목에 속하고 洛東江이 관류하고 있어 노지토마토(7.99), 노지오이

(4.00), 노지수박(3.61) 등의 露地果菜類와 시설토마토(2.25), 시설오이(4.92), 시설고추(4.31), 시설수박(3.58) 등의 施設果菜類가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 있다.

果實類 중에서는 봉숭아(1.64), 감(6.35) 등이 특화되어 있고 畜産 중에서 韓牛(1.18)는 특화품목이라 하겠으나 他家畜의 특화계수는 아주 낮다.

洛東江 유역인 金海平野를 안고 있는 金海郡은 특화작목이 다양하다. 水稻(1.00), 大麥(1.13), 감자(3.29) 등 主要食糧作物의 특화도가 높고, 露地, 施設을 불문하고 菜蔬類는 거의 모든 품목이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 있다. 菜蔬類 중에서도 技術集約的인 果菜類의 특화도가 높다. 노지토마토(25.9), 노지오이(3.53), 노지참외(4.83), 노지딸기(18.88) 등은 露地菜蔬 중에서 核心作目에 속하고 시설토마토(6.23), 시설오이(2.27), 시설딸기(6.29) 등은 核心的인 施設果菜類이다. 施設花卉(5.67)도 중요한 特化作目이며, 果實 중에는 봉숭아(1.45), 감(19.31)이 특화되어 있고 畜産 중에서는 韓牛(1.07), 돼지(3.22), 닭(1.70) 등의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義昌郡은 都市近郊地域으로 農業基盤條件이 다양하다. 즉, 洛東江 유역의 平野地域, 海岸地域, 山間地帶 등으로 세분된다. 大麥(3.40)과 감자(1.19) 등의 食糧作物과 노지 토마토(1.61), 노지오이(1.32), 노지참외(1.15) 등의 露地菜蔬類는 特化作目이긴 하지만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시설오이(3.05), 시설딸기(2.54), 시설참외(2.04), 시설고추(1.81), 시설수박(2.36) 등은 강변 平野地帶에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 있고 施設花卉(2.67)는 馬山市와 인접한 지역에 主産地를 이루고 있다. 果實類 중에서는 감이 특화작목에 속하고 畜産 중에는 특화되어 있는 家畜이 없다.

準平野地帶에 속하는 지역으로 유일하게 江邊平野가 없는 泗川郡에는 大麥(4.17), 大豆(1.09), 小豆(1.00), 고구마(2.74) 등 傳統的인 食糧作物 외는 이렇다 할 특화작목이 없는 실정이다. 菜蔬類 중에서

특화작목에 속하는 품목은 상치(1.17), 시금치(1.54), 노지토마토(1.24), 시설고추(1.41) 정도에 불과하다.

泗川郡은 畚作 準平野地帶에 속하고 畚의 基盤條件이 施設園藝栽培에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生産構造改善의 한계가 크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는 水稻作+農外就業이 결합된 類型의 농가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③ 準山間 地帶

準山間地帶에 속하는 郡 중에서 晉陽郡, 宜寧郡에는 南江이 흐르고 있어 江邊平野地帶를 안고 있고 蔚州, 梁山郡은 畚作比率이 높은 畚作地帶이나 경사가 완만하여 草地開發에 적합한 구릉지가 많은 지역이다. 南海, 統營, 巨濟郡은 島嶼地域이며 河東, 居昌, 咸陽, 陝川郡은 山間地帶에 가깝다.

江邊流域을 포함하고 있는 晉陽郡의 特化作目を 보면, 상치(1.54), 시금치(1.28), 노지 토마토(1.22) 등의 露地菜蔬가 特化作目に 속한다. 시설오이(5.84), 시설딸기(2.99), 시설고추(14.29), 시설수박(1.23) 등의 施設果菜類는 이 지역의 核心作目이다. 果實類 중에는 배(4.62), 감(5.37)의 특화도가 높고 복숭아(1.52)도 특화작목에 속한다. 그러나 특화도가 높은 家畜은 없는 실정이다.

南江이 관류하고 있는 宜寧郡의 경우를 보면, 상치(1.12), 시금치(1.32), 노지수박(2.76), 노지참외(4.16), 양파(3.34) 등 露地菜蔬類 중에서 특화작목이 많다. 施設菜蔬類 중에는 참외(3.02), 수박(10.18)이 核心作目이나 他施設作目은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이 지역에는 施設園藝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되어 확산되어 가는 과정이다.

密陽郡에서는 大麥(3.36)과 감자(2.32)의 특화도가 높고 노지토마토(3.77), 노지딸기(29.37), 시설딸기(11.53), 시설고추(17.54) 등의 果菜類가 핵심 작목으로 정착되어 있다. 果實類 중에서는 복숭아(1.98),

포도(1.23), 감(4.53) 등이 특화작목에 속한다. 家畜 중에서는 특화품목은 없다.

梁山郡과 蔚州郡은 東部 구릉지대에 속하는데 우선 梁山郡의 특화작목을 보면, 畚作地帶이므로 水稻(1.17)의 특화도가 높고 大麥(1.35), 감자(1.48), 고구마(1.15) 등의 食糧作物이 特化作目이다. 大都市 近郊地域이므로 시금치(1.77), 노지토마토(14.55), 노지오이(1.17) 등 葉菜類의 특화도가 높고 施設菜蔬類는 전품목이 특화되어 있다. 타지역에 비해 菜蔬類의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大都市 近郊農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果實類에서는 배(2.05)와 감(2.31)이 특화되어 있고 畜産에서는 乳牛(1.63)와 돼지(1.21)가 특화되어 있다. 구릉지대이므로 草地開發에 적합한 野山이 많아 慶南에서는 울주와 더불어 유일한 酪農地帶로 발전했다. 또한 大都市 近郊農業으로 養豚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蔚州郡은 梁山郡과 유사한 畚作地帶이므로 水稻(1.11)의 특화도가 높고, 都市近郊地域이므로 시금치(1.16)와 노지 토마토(1.67)가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어 있다. 施設菜蔬類 중에서 유일하게 시설상치(5.40)가 특화작목이다. 果實類에서는 배(12.54)가 핵심작목으로 정착되어 있다. 구릉지대이므로 野山을 개발하여 草地를 조성하고 乳牛를 도입하여 1980년까지는 乳牛가 특화되어 있었으나 工業化의 영향으로 특화작목에서 탈락되었다. 반면에 韓牛(1.23)와 닭(1.18)이 특화되어 있다.

固城郡은 畚作地帶이나 大麥(5.72)의 특화도가 가장 높고 상치(1.12), 시금치(1.35) 외는 특화작목이 없는 실정이다.

露地菜蔬類는 전품목이 재배되고 있고 施設園藝도 도입되었으나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畜産 중에서는 韓牛의 특화도가 높다. 이 지역은 畚作地帶로서 米麥中心의 전통적인 生産組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生産構造改善의 한계도 크다. 農工地區를 개발하여 水稻作과 農外就業이 결합된 農家類型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

이다.

河東, 咸陽, 居昌, 陝川郡은 山間地帶에 가깝다. 河東郡에는 大麥(4.69), 고구마(1.50) 등 전통적인 食糧作物의 특화도가 높고 成長作物 중에서는 시금치(1.06), 배(1.22)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특화작목이 없다. 山地의 비율이 높아 草食家畜인 소(1.10)와 산양(1.93)이 특화품목으로 나타나 있다.

咸陽郡도 河東郡과 유사하게 大麥(2.58), 大豆(1.11), 감자(2.53), 고구마(1.58) 등 전통적인 食糧作物의 특화도가 높고 성장작목 중에는 유일하게 시금치(1.33)의 특화도가 높다. 이러한 사실은 農業基盤條件이 불리하여 生産構造改善의 한계가 크다는 점을 나타낸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勞動集約的인 작목인 養蠶이 所得作目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居昌郡의 경우도 咸陽郡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食糧作物의 특화도가 높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사과(2.92)가 核心作目으로 정착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陝川郡도 咸陽郡, 居昌郡과 마찬가지로 大麥(4.35), 大豆(1.09), 고구마(1.26) 등 쇠퇴작목의 특화도가 높고 성장작목 중에는 참깨(1.31)가 유일한 특화작목이다. 近年에는 施設園藝作目이 도입되어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巨濟, 南海, 統營郡은 도서지역으로 特化作目的 분포가 유사하다. 大麥, 大豆, 고구마 등의 쇠퇴작목의 특화도가 높은데, 특히 고구마는 핵심작목으로 정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서지역의 밭은 경사도가 높아 生産構造改善의 한계가 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세 지역은 마늘의 특화도가 높고 소득작목으로 정착되어 있다.

#### ④ 山間 地帶

耕地率을 기준으로 구분한 山間地帶에는 유일하게 山淸郡이 속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大麥(4.73), 고구마(1.25) 등의 쇠퇴작목의 특화

도가 높고 성장작목으로는 유일하게 시설무(1.05), 시설배추(1.22)가 특화되어 있다. 南江의 上流 畝作地帶에 勞動粗放의이고 技術粗放의인 시설무우 시설배추가 특화되어 있다. 山間地帶이므로 生産構造改善의 한계가 크므로 아직도 養蠶이 所得作目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4. 特化作目的 變動

### 가. 特化地域 變動要因

어떤 작목이 特定地域에 특화하게 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姜奉淳 外 1984, 100-101).

첫째, 自然的 要因이다. 自然的 立地條件이 변동하거나 作物立地變動의 原因이 되는 天災, 病蟲害 발생 등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자연적 요인은 氣象的 要因, 土地的 要因, 生物的 要因 등으로 세분된다.

둘째, 社會的 要因이다. 즉, 社會的 立地條件의 변화가 作物立地變動의 요인이 된다. 여기에는 傳統이나 流行과 같이 農業經營의 純收益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과 都市擴大에 따른 農地轉用 등과 같이 農業의 限界를 벗어난 非經濟的 要因을 들 수 있다. 또한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嗜好의 변화나 消費人口의 增減 등과 같은 經濟的 要因도 포함된다.

셋째, 技術的 要因이다. 農業生産技術을 포함하여 生産要素 生産技術, 輸送技術 등 各種 技術革新이 立地變遷의 요인이 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農業經營의 純收益에 영향을 주는 經濟的 要因이다.

넷째, 政策的 要因을 들 수 있다. 制度, 政策 등의 변화는 作物立地의 변천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食糧增産政策, 生産構造改善政策, 生産調整政策, 農村工業化政策 등이다. 이러한 政策要因들은 經濟的

變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作物의 經營收益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市場 要因이다. 景氣의 變動, 價格의 變動 등 모든 經濟的 요인이 포함된다.

여섯째, 經營的 要因이 있다. 農業經營의 내부에서 作物立地變動의 요인이 되는 經營規模, 經營組織, 收益性 등을 말한다. 즉, 作付體系의 변동, 勞動組織의 변화, 競爭作物이나 競爭品種의 出現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農業經營利潤의 변화를 가져온다.

일곱째, 作物的 要因을 들 수 있다. 作物自體가 가지고 있는 특질이 立地變遷의 요인이 되는데, 自然的 環境에 대한 適合性, 肥料要求度, 耐病性 등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諸要因은 作物의 立地變遷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로 작용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나. 地域別 特化作目的 變動

앞에서는 特定作目이 生産立地를 이동하게 되는 요인을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生産立地가 이동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즉, 市郡을 기준으로 特化作目的 變遷과정을 고찰해 본다.

前 節에서 밝힌 바와 같이 特化係數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核心作目, 2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主産作目, 1보다 작으면 非特化作目으로 규정하여 고찰한다. 1970년, 1980년, 1988년의 특화계수를 이용하여 특화작목의 변천 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서는 全市郡을 대상으로 고찰하지 않고 특화작목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타지역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附表에 제시하였다.

#### □ 第1期 移動

1970년에서 1980년까지 期間을 第1期라 한다. 全市郡의 特化作目 移

動經路를 분석하였으나 여기서는 移動이 심한 대표적인 지역만 고찰하고 나머지는 附表로 제시하였다.

1970년에 비해 1980년에 特化作目的 이동이 비교적 많았던 지역은 晉陽郡, 金海郡, 蔚山市, 梁山郡이다.

우선 晉陽郡부터 고찰해 보면 <表 4-1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主要作目 중에서 1970년에 晉陽郡의 核心作目이었던 품목은 시설오이, 시설참외, 고구마이었다. 이 중에서 成長作目인 시설오이와 시설참외는 핵심작목으로 남아 있고 쇠퇴작목인 고구마는 主産作目으로 밀려났다.

또한 1980년의 주산작목은 6개이었는데, 이 중 4개는 1980년에 와서도 主産作目으로 남아 있었고 노지고추와 땅콩은 非特化作目으로 밀려났다.

한편 1979년에는 비특화작목이었으나 1980년에 핵심작목으로 부상한 작목은 小麥, 시설고추, 배, 감 등 5개 품목에 달하고 복숭아는 비특화작목으로 이동했다.

이와 같이 經濟成長에 따른 農産物 需要構造의 變動으로 각 품목의

表 4-12 晉陽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시설오이, 시설참외	고구마	
주 산		대맥, 참깨, 소, 산양	고추, 땅콩
비 특 화	밀, 시설고추, 배, 감	복숭아	수도, 대두, 소두, 감자, 김장무, 김장배추, 양파, 마늘, 옥수수, 양배추, 들깨, 담배, 시설토마토, 사과, 포도, 젓소, 돼지, 토끼, 닭, 꿀벌

상대적 수익성이 달라짐에 따라 平陽의 農産物 生産構造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金海郡에 있어 特化作目的 移動이 <表 4-13>에 나타나 있다. 1970년의 核心作目이 1980년에도 핵심작목으로 남아 있는 작목은 양배추, 시설토마토, 시설오이, 시설참외, 시설상치, 시설쭈갓, 화훼류, 감 등이다. 김장배추는 1980년에 와서 主要作目으로 밀려났고 시설고추, 포도, 산양은 核心作目에서 非特化作目으로 전락되었다. 시설고추는 生産期間이 길고 勞動集約的이고 상대적으로 技術粗放的이다. 그러므로 技術水準이 높고 市場適應力이 높은 金海郡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 시설고추는 타지역작목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 또한 포도는 金海郡의 핵심작목이었으나 수익성이 더 높은 단감으로 대체되었다.

한편 양파, 배는 1970년에는 主産作目이었으나 1980년에 와서는 非特化作目으로 밀려났다. 돼지는 1970년에는 비특화작목이었으나 1980년에 와서는 핵심작목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이 金海郡에는 1970년에 비해 1980년에 生産構造의 高度化가

表 4-13 金海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1980	핵심	주산	비특화
핵심		양배추, 시설토마토, 시설오이, 시설참외, 시설상치, 시설쭈갓, 화훼류, 감, 닭	김장배추	시설고추, 포도, 산양
주산		돼지	수도, 김장무, 복숭아	양파, 배
비특화			감자, 밀	대맥, 대두, 소두, 고구마, 고추, 마늘, 옥수수, 땅콩, 참깨, 들깨, 소, 젓소, 토끼, 꿀벌

실현되었다.

즉, 施設園藝가 核心作目이나 시설원예 중에서 技術集約的이고 위험 부담이 큰 作目に 特化하고 상대적으로 土地利用型이고 勞動集約的인 시설원예는 特化作目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勞動集約的인 果樹 중에는 단감을 제외하고는 非特化作目으로 전락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판단할 때 金海郡의 農業構造는 經濟成長에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도시화와 더불어 農業生産이 위축되어 特化作目이 변경된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울산시의 特化作目 變動過程을 보면, 1970년의 核心作目は 배, 양배추, 감, 시설 토마토, 시설오이 등이었는데 1980년에 와서는 배만 核心作目으로 남아 있고 양배추와 감은 主産作目으로 밀려났고 시설 토마토와 시설오이는 非特化作目으로 전락되었다.

反面에 1970년에 主産作目이었던 김장무, 김장배추는 核心作目으로 이동하였고 大豆, 양파, 마늘, 시설상치, 포도는 非特化作目으로 떨어졌다.

이와 같이 成長作目に 속하는 農産物일지라도 勞動集約的인 작목은 都市化와 더불어 생산이 위축되어 特化作목에서 탈락되었다.

表 4-14 蔚山市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배	양배추, 감	시설토마토, 시설 오이
주 산	김장무, 김장배추		대두, 양파, 마늘, 시설상치, 포도
비 특 화		고구마, 밀	대맥, 소두, 감자, 고추, 옥수수, 참깨, 들깨, 사과, 복숭아

表 4-15 梁山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배, 감, 잣소		시설고추, 포도, 산양
주 산	돼지, 닭	수도, 김장무, 소	마늘, 양배추, 시설 토마토, 시설오이, 시설상치, 복숭아, 꿀벌
비 특 화		감자, 김장배추, 밀	대맥, 대두, 소두, 고구마, 고추, 양파, 옥수수, 땅콩, 참깨, 들깨, 사과, 토끼

大都市 近郊地域으로서 生産構造가 급변된 지역은 梁山郡이다. <表 4-1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설고추, 포도, 산양은 1970년에는 核心作目이었는데 1980년에 와서는 非特化作目으로 밀려났다.

1980년에는 主産作目이던 돼지와 닭은 核心作目으로 부상하였고 마늘, 양배추, 시설 토마토, 시설오이, 시설상치, 복숭아 등은 非特化作目으로 밀려났다. 이와 같이 大都市 近郊地域으로 都市化가 확대됨에 따라 勞動集約的인 施設菜蔬는 밀려나고 都市近郊型 畜産이 급성장하였다. 즉, 生産構造가 급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하지 않은 지역은 特化作目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거나 일어났더라도 특수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特化作目的 이동과정을 나타내는 자료를 附表로서 제시하였다.

## ② 第2期 移動

1980년에서 1988년까지 期間을 第2期라 한다. 제2기에 와서는 慶南 全體로 본다면 特化作目的 移動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으나 慶南內의 각 市郡別로 보면 特化作目的 이동이 크게 일어났다. 1980년대에 일어난

慶南의 生産構造變化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施設園藝가 확장되었다. 金海市, 金海郡 등의 洛東江 유역과 晉州市, 晉陽郡 등의 南江 유역에 집중되어 있던 施設園藝作目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특히, 金海市와 金海郡에는 화훼류의 植付面積이 급증함에 따라 施設 果菜類는 他市郡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特化作目的 지역간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都市化와 더불어 東部 구릉지대인 梁山郡, 蔚州郡의 酪農이 위축되었다. 반면에 複合營農事業으로 山淸, 咸陽, 陝川, 居昌 등 西部慶南 山間地域에는 韓牛와 乳牛의 飼育頭數가 급증하였다. 山間地域이므로 원래부터 韓牛는 特化作目이었고 乳牛 飼育頭數가 증가하였지만 特化作목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다.

1980년대에 일어난 特化作目的 변동 현황을 부표로 제시하였고 여기서는 변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晉州市, 宜寧郡, 昌寧郡, 密陽郡, 梁山郡을 고찰해 본다.

第2期에는 晉州市의 特化作目 변동 현황이〈表 4-16〉에 제시되어 있다. 1980년에 核心作目이었는데 1988년에도 핵심작목으로 남아 있는 작목은 노지수박, 시설 토마토, 시설오이, 시설참외, 시설무, 시설배추, 시설고추, 시설화훼, 배, 복숭아 등이다. 노지딸기는 1980년에는 核心作目이었다가 1988년에는 主産作目으로 밀려났고 김장배추, 봄배추, 양배추, 감 등은 特化作목에서 탈락되었다. 1980년에는 주산작목이었으나 1988년에는 핵심작목으로 이동한 품목은 고구마, 밀, 노지오이, 시설상치이고 主産作目에서 非特化作目으로 떨어져 나간 작목은 김장무, 봄무 등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土地利用型 작목인 露地 葉菜類는 수익성이 저하되어 特化作目에서 탈락되었다. 반면에 노지참외와 시설딸기는 1980년에는 非特化作目이었는데 1988년에는 核心作目으로 특화되었다.

宜寧郡의 特化作目 이동을 보면 〈表 4-17〉, 이 지역의 生産構造 改編이 잘 나타나 있다. 즉, 洛東江 流域이나 交通立地條件이 불리하여

表 4-16 晋州市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노지수박, 시설토마 토, 시설오이, 시설 참외, 시설무, 시설 배추, 시설고추, 배, 복숭아, 시설화훼	노지딸기	김장배추, 봄배추, 양배추, 감
주 산	고구마, 밀, 노지오 이, 시설상치		김장무, 봄무
비 특 화	노지참외, 시설딸기		수도, 대맥, 대두, 소두, 감자, 고추, 마늘, 옥수수, 참깨, 들깨, 포도

表 4-17 宜寧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양파, 노지수박		대맥
주 산		참깨	김장배추, 양배추, 소, 토끼
비 특 화	노지참외, 시설참외	대두, 고구마, 상치, 시금치, 산양, 꿀벌	수도, 소두, 감자, 김장무, 고추, 마늘, 옥수수, 봄무, 노지 오이, 시설토마토, 시설오이, 시설무, 시설고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잣소, 돼지, 닭, 오리

施設園藝의 재배면적이 적었으나 南海岸 高速道路가 개통되고 이 지역을 관통하는 幹線道路도 포장됨에 따라 시설원예가 확산되고 있다. 1980년에는 非特化作目이었던 노지참외와 시설참외가 1988년에 와서는 核心作目으로 특화되었고 반면에 大麥, 김장배추, 양배추 등은 特化作目에서 탈락했다. 이것은 이 지역의 生産構造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昌寧郡은 <表 4-1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特化作目的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즉, 1980년에는 主産作目이었던 大麥, 참깨, 시설오이는 核心作目으로 특화도가 높아졌다. 또한 1980년에는 특화작목에 포함되지 못했던 감자, 노지토마토, 노지오이는 1988년에 와서는 핵심작목으로 부상했다. 반면에 김장배추와 양배추는 특화작목에서 탈락되었다. 이것은 生産構造의 高度化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密陽郡도 昌寧郡과 유사하게 生産構造가 개선되었다<表 4-19>. 즉, 1980년에는 核心作目이었던 복숭아와 포도는 1988년에 와서는 主産作目으로 밀려났고 시설 토마토는 特化作目에서 탈락되었다.

또한 1980년에는 主産作目이었던 김장배추, 시설상치, 韓牛 등은 非特化作目으로 밀려났다. 반면에 1980년에는 非特化作目이었던 노지토마토, 노지딸기는 핵심작목으로 특화되었다. 葉菜類는 특화작목에서 밀려나고 대신에 果菜類가 특화작목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都市近郊地域인 梁山郡은 第1期和 마찬가지로 第2期에도 특화작목의 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表 4-20>. 1980년에는 핵심작목이었던 젓소와 돼지가 主産作目으로 밀려나 특화도가 낮아졌다. 즉, 구릉지대로서 草地開發適地가 많아 乳牛 特化도가 높았으나 都市化와 더불어 草地가 非農業用으로 전용되고 勞賃이 상승함에 따라 젓소의 飼育頭數가 감소하였다. 아울러 都市化가 진행됨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1980년에는 核心作目이었던 봄 무는 非特化作目으로 밀려났고

表 4-18 昌寧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양파, 노지수박, 시설고추, 감		밀
주 산	대맥, 참깨, 시설오이	김장무, 고추, 마늘, 땅콩, 소	김장배추, 양배추
비 특 화	감자, 노지토마토, 노지오이	수도, 대두, 고구마, 시금치, 시설배추, 고구마	소두, 옥수수, 봄무, 봄배추, 상치, 노지참외, 들깨, 시설참외, 시설무, 사과, 배, 포도, 잣소, 돼지, 산양, 토끼, 닭, 오리

表 4-19 密陽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시설딸기, 시설무, 시설고추, 감	복숭아, 포도	시설토마토
주 산	대맥, 감자	상 치	김장배추, 시설상치, 소, 산양
비 특 화	노지토마토, 노지딸기		수도, 대두, 소두, 고구마, 김장무, 고추, 양파, 마늘, 옥수수, 땅콩, 봄무, 봄배추, 양배추, 시금치, 노지오이, 노지수박, 노지참외, 참깨, 들깨, 시설오이, 시설참외, 시설배추, 사과, 배, 토끼, 오리, 꿀벌, 잣소, 돼지, 닭

1988년에는 主産作目이었던 김장무, 김장배추, 봄배추도 特化作目에서 탈락되었다. 이와 같이 土地利用型 葉菜類는 특화작목에서 밀려났고 반면에 시설상치, 시설고추는 非特化作目에서 核心作目으로 이동하였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第2期에 와서는 각 지역별로 特化作目的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특히 農業立地上으로 施設園藝 栽培適地이었으나 시설원에 栽培技術水準이 낮고 市場條件이 불리했던 지역에 시설원의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特化作目이 개편되었다.

表 4-20 梁山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상치, 노지토마토, 시설딸기, 배, 감, 닭	젓소, 돼지	봄 무
주 산		수도, 감자, 시금치	김장무, 김장배추, 봄배추, 소
비 특 화	시설상치, 시설고추	대맥, 고구마, 양파, 노지오이, 시설토마토, 시설오이, 시설무, 시설배추	대두, 소두, 고추, 마늘, 옥수수, 양배추, 노지수박, 노지참외, 참깨, 들깨, 사과 복숭아, 포도, 산양, 토끼, 오리, 꿀벌

## 第 5 章

# 地域農業의 發展戰略

### 1. 課 題

第 2 章에서는 地域農業이 직면하고 있는 外部經濟與件과 지역농업의 특수성을 배태시키는 農業의 基盤條件과 農業生産主體, 保有資源 등을 고찰하였다.

慶南地域은 전형적인 小農構造를 갖추고 있으나 氣候條件이 유리한 二毛作地帶로서 營農立地條件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第 3 章에서는 地域農業의 성장과정을 고찰하였다. 農地基盤 확충과 技術革新 덕분에 慶南地域農業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第 4 章에서는 地域農業構造의 특수성을 밝혔다. 經濟成長과 더불어 農産物需要構造가 변함에 따라 生産構造가 탄력적으로 조성되어 왔다. 특히, 유리한 營農立地를 이용하여 施設園藝 作物生産에 주력하여 시설원예는 慶南內의 전지역에 特化作目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草地畜産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生産構造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立地條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章에서는 지금까지의 研究結果를 바탕으로 地域農業의 發展方向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여야 하지만 여기서는 生産構造改善과 農家類型開發에 초점을 맞추어 發展方向을 제시한다.

## 2. 構造改善과 耕作規模 擴大

### 가. 農業構造의 概念 定立

農業發展의 根幹은 構造改善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우선 農業構造의 概念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農業構造란 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그 밑바탕에서 규정하는 基本的 틀’이라고 하는 定義(李貞煥 1984, 27-31)에 따른다. 그러므로 農業構造를 구체적으로 해석한다면 農業生産主體의 성격과 그 분포 및 主體間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農業構造變化란 農業生産主體의 성격과 그 분포가 변화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農業構造改善이란 生産主體의 성격이나 분포가 바람직하게 바뀌어 가는 것을 의미하고 構造政策이란 특정한 성격의 生産主體를 의도적으로 육성하여 농업의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農業의 成果」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차원에서 평가 될 수 있다.

- (1) 農産物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좋은 질로 생산되는가?
- (2) 農産物生産이 얼마나 效率性있게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값싼 가격으로 공급되는가?
- (3) 農産物供給이 農産物需要構造의 變化에 얼마나 신속적으로 반응하고 적응하는가?
- (4) 農産物生産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厚生은 얼마나 향상되고 있으며 또 공평한가?

이렇게 본다면 農業構造問題란 농업의 성과가 農業生産主體의 성격과 그 分布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요인에 의하여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韓國農業의 當面課題는 衡平性的 측면에서 본 농민의 厚生增進과 효율성이란 기준에서 본 農産物生産費의 상대적 高水準이다. 前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하에서 農工地區를 개발하여 農外就業機會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을 農業構造問題와 결부시킨다면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재와 같은 1ha 정도의 영세한 규모의 農業生産主體에 의해 韓國農業이 바람직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둘째, 兼業화된 農業生産主體에 의하면 韓國農業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을까?

農業經營規模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때 次善의 대응책으로 대두되는 代案이 兼業化이다. 그러므로 農業構造改善의 기본골격은 營農規模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兼業화와 規模擴大가 병존할 수 있는 構造改善方案이 나온다면 小農構造下의 農業問題와 農民問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 나. 農家 階層分化

耕作規模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方案이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농가의 階層分化를 고찰해 본다.

우리나라의 總農家戶數는 1951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1967년에는 2,258천호로 頂點에 도달했고 그 이후부터 年平均 1.64%씩 감소해 왔다. 總農家戶數가 감소해 온 期間에 한정시켜 耕作規模別 農家戶數 構成比의 변화를 보면, 0.5ha이하 규모인 小農階層의 구성비와 1.5ha이상 계층인 大農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0.5~1.5ha 계층인 中農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를 일컬어 韓國에 있어 農家階層分化는 「中農化」 혹은 「中農標準化」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

했다(金聖昊 外 1984, 120).

農家戶數의 감소와 더불어 農家階層分화가 「中農化」로 나타났다면 脫農이 階層間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거나 階層間에 農地流動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또 한 두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階層分화가 가속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小農階層과 大農階層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해 온 요인은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小農階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經濟成長과 더불어 非農業分野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면 脫農하는 농가가 증가하게 되는데 小農階層의 脫農比率이 높다.

둘째, 農地를 매입하여 中農階層으로 上向移動한 농가가 타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셋째, 農地를 賃借하여 中農階層으로 上向移動한 농가가 더 많다.

그런데 첫째 요인에 대해서는 공식자료로서 검정할 수 있는 方案이 없고 小農階層의 감소요인은 둘째와 셋째 요인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셋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李貞煥 外 1983 31-38).

經濟成長과 더불어 農村勞賃이 상승하고 年雇體制가 무너져 大農은 家族勞動으로 경작할 수 있는 規模로 축소시킬 수 밖에 없었는데 農地를 방매하여 耕作規模를 축소시킨 농가보다는 農地를 賃貸하여 축소시킨 농가가 더 많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 나라의 農家階層分화는 1967년 이후부터 「中農化」로 고착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小農構造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가? 환언하면 온대 몬순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農業構造는 畚作為主의 中·小農構造로 정착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經濟成長의 時間差는 있으나 經濟成長過程類型과 農業의 立地條件 내지 農業構造가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階層分化過程을 검토해 본 研究가 있다(金聖昊 外 1984, 112-120).

日本の 경우, 1949년부터 1965년까지는 「中農化」가 나타났고 1966년에는 「兩極分化」의 과정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兩極分化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經濟成長과 더불어 農村工業化가 진행됨에 따라 農家가 직면하는 農外就業機會가 증가하게 된다. 中農은 都市家計水準의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耕作規模를 축소시키고 農作業에 투입되는 農家勞動의 일부를 빼내어 農外就業하거나, 耕作規模를 확대하여 大規模 專業農으로 上向移動하게 되는 이른바 '中農層 分解'가 야기된다. 이에 따라 中農階層分化는 「兩極分化」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日本의 農家階層 分化過程에서 나타난 經驗을 원용하여 우리나라에도 農外就業機會가 증가하면 農家階層分化는 「兩極分化」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農外就業機會가 다른 奧地地域, 中間地域, 都市近郊地域 등 地域의 農家階層分化를 분석한 研究에 의하면 (金厚根 1986, 37-40), 都市近郊地域에서는 「兩極分化」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의 都市近郊地域은 출퇴근 농외취업기회가 높은 平野地帶이었다.

都市近郊 畷作地帶에 工場이 산발적으로 분산된 형태로 農村工業化가 이루어진 慶南內의 한 지역, 말하자면 農村工業化의 선진지역 대상으로 農家階層分化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金厚根 外 1988, 85-109). 이 연구에 의하면 工場이 무계획적으로 分散됨에 따라 農地價格이 상승하게 되자 自作農은 農地를 都市 不在地主에게 매각하고 이를 다시 賃借하게 되어 賃借農으로 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農家階層의 「兩極分化」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의 分析對象地域은 工場이 산발적으로 분산된 지역이므로 農地保全上의 문제를 제기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편 慶南內에서 農工地區가 조성된 地域을 대상으로 農地流動과 農家階層分化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黃弘道 外, 1990, 137-149).

水稻作地域의 面所在地에 農工地區가 조성되었는데 小農이 農工地區에 우선적으로 就業하여 農家所得問題를 해결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아울러 農工地區에 취업한 농가는 農地를 매각하거나 賃貸한 사례가 나타났고 農工地區에 취업하지 않은 농가는 農地를 賃借하여 耕作規模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農工地區를 개발하여 工場을 유치하는 형태로 農村工業化를 이룩해 나가면, 優良農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逆機能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우리 나라 전체를 볼 때 農家戶數가 감소하기 시작한 1976년부터 農家階層은 「中農化」로 분화되어 현재까지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慶南의 農家階層分化를 고찰하기 위하여 耕作規模別 農家戶數 및 그 구성비의 변동을 表 5-1에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慶南은 전국에 비해 小農의 구성비가 높고 1980년 이후에는 「中農化」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慶南은 戶當耕作規模가 영세한 二毛作地帶이므로 中小農階層이 고착되어 있고 耕作規模의 大規模化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으며 더우기 「兩極分化」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물론 耕作規模의 확대만이 農業所得增大의 첩경은 아니며 生産構造를 改善하여 農業所得을 증대시키는 方案도 있다.

#### 다. 耕作規模 擴大 可能性

土地利用型 耕種作物에 한해서는 農業所得을 증대시키는 첩경은 耕作規模의 확대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고찰한 바와 같이 慶南전체로서 판단하면 耕作規模를 확대해 나가기 어렵다. 그러나 慶南은 農業地帶가 다양하므로 水稻作地帶에서는 경작규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판단하기 위해 각 地帶別로 耕作規模別 農家戶數 구성비를 비교해 본다. 우선 行政統計資料가 나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表 5-1 耕作規模別 農家戶數 分布, 1955~88

單位: 戶, %

	~0.5ha	0.5~1.0	1.0~1.5	1.5~2.0	2.0~3.0	3.0~	합 계
1955	83,610 (23.9)	208,497 (60.0)	46,690 (13.4)	46,690 (13.4)	8,543 (2.5)	593 (0.2)	347,483 (100.0)
1960	88,569 (24.4)	212,195 (58.5)	51,643 (14.2)	51,643 (14.2)	9,567 (2.6)	680 (0.3)	362,654 (100.0)
1965	186,293 (51.4)	115,252 (31.8)	50,508 (13.9)	50,508 (13.9)	9,693 (2.7)	740 (0.2)	362,486 (100.0)
1970	160,915 (45.3)	117,240 (33.0)	48,913 (13.8)	17,822 (5.0)	8,350 (2.3)	2,331 (0.7)	355,571 (100.0)
1975	135,847 (40.6)	126,323 (37.8)	46,727 (14.0)	15,360 (4.6)	7,693 (2.3)	2,293 (0.7)	334,243 (100.0)
1980	108,219 (36.2)	111,751 (37.6)	50,455 (17.0)	17,238 (5.8)	7,835 (2.7)	1,988 (0.7)	297,486 (100.0)
1985	95,364 (36.5)	101,027 (38.7)	44,226 (16.9)	13,726 (5.3)	5,225 (2.0)	1,518 (0.6)	261,086 (100.0)
1988	88,899 (36.1)	95,091 (38.6)	41,999 (17.0)	13,387 (5.4)	5,530 (2.2)	1,681 (0.7)	246,587 (100.0)

資料: 慶尙南道, 「慶南統計年譜」, 各연도.

고찰해 본다.

陝川郡의 자료가 表5-2에 제시되어 있다. 農業地帶를 구분할 때, 陝天郡은 準平野地帶이나 山間地帶에 가깝다. 이 表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70년 이후에 0.5ha 이하 계층인 小農의 구성비는 감소하고 0.5ha~1.5ha 계층인 中農의 구성비는 증가하였으나 1.5ha 이상 규모인 大農의 구성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즉, 「中農化」가 고착되어 있고 「兩極分化」 혹은 「大農化」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耕作規模擴大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西部 慶南에 위치한 지역은 陝川郡 類型에 가깝다.

한편 準平野地帶에 속하고 있는 密陽郡의 耕作規模別 農家戶數의 구성비가 表 5-3에 제시되어 있다. 陝川郡에 비해 中農과 大農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大農의 構成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ha 규모 이상 農家の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耕地率을 기준으로 할 때 慶南內에서 유일하게 平野地帶에 속하고 있는 金海市의 耕作規模別 農家戶數의 구성비가 表5-4에 나타나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農의 構成比도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短期間에 「大農化」가 진행되고 있다. 즉, 1.5ha 이상 규모인 농가의 구성비가 1982년에는 11.9%이었으나 1989년에는 14.0%로 증가하였다. 특히 3ha 이상 규모의 농가 구성비는 2.0%에 달하고 있다.

金海市는 施設園藝 特化地域인데도 불구하고 大農의 구성비가 높다. 金海平野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施設園藝 主産地域은 金海平野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水稻單作地帶에는 耕作規模擴大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慶南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小農地帶이므로 경작규모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水稻作爲主의 平野地帶에는 耕作規模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특히 畚의 基盤條件으로 施設園藝를 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耕作規模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表 5-2 陝川郡의 耕作規模別 農家 構成比, 1970~87

單位: %

	0.5ha이하	0.5~1.0	1.0~1.5	1.5~2.0	2.0~3.0	3.0 이상	합 계
1970	43.7	36.5	14.5	4.0	1.1	0.2	100.0
1975	37.3	40.2	16.9	4.3	1.0	0.3	100.0
1980	31.4	43.7	13.3	4.4	0.9	0.3	100.0
1985	25.2	48.8	20.1	4.6	1.1	0.2	100.0
1987	23.5	48.8	21.2	5.1	1.3	0.2	100.0

資料: 慶尙大學校 地域開發研究所, 「陝川郡 綜合開發計劃」, p. 204.

表 5-3 密陽郡의 耕作規模別 農家戶數, 1970~87

單位: 戶, %

	0.5ha이하	0.5~1.0	1.0~1.5	1.5~2.0	2.0~3.0	3.0 이상	합 계
1970	10,528 (44.8)	7,451 (30.8)	3,513 (14.5)	1,376 (5.7)	804 (3.3)	226 (0.9)	24,222 (100.0)
1975	7,219 (34.6)	7,705 (37.0)	3,320 (15.9)	1,432 (6.9)	870 (4.2)	291 (1.4)	20,873 (100.0)
1985	5,143 (24.2)	8,743 (41.2)	3,861 (18.2)	2,476 (11.7)	710 (3.3)	308 (1.4)	21,241 (100.0)
1987	5,699 (27.5)	8,504 (41.1)	4,010 (19.4)	1,628 (7.9)	737 (3.6)	314 (0.5)	20,694 (100.0)

資料: 慶南大學校 地域開發研究所, 「密陽郡 綜合開發計劃」, p192.

表 5-4 金海市の 耕作規模別 農家戶數 分布, 1982~89

單位: 戶, %

	~0.5ha	0.5~1.0	1.0~1.5	1.5~2.0	2.0~3.0	3.0~	합 계
1982	1,650 (45.6)	962 (26.6)	574 (15.9)	238 (6.6)	140 (3.9)	54 (1.4)	3,618 (100.0)
1983	1,629 (45.3)	947 (26.3)	559 (15.5)	244 (6.8)	151 (4.2)	64 (1.9)	3,596 (100.0)
1984	1,589 (45.2)	922 (26.3)	542 (15.4)	244 (6.9)	151 (4.3)	64 (1.9)	3,512 (100.0)
1985	1,421 (44.5)	842 (26.4)	497 (15.6)	230 (7.2)	142 (4.4)	60 (1.9)	3,192 (100.0)
1986	1,349 (41.8)	999 (30.9)	471 (14.6)	218 (6.7)	135 (4.2)	59 (1.8)	3,231 (100.0)
1987	1,257 (43.6)	770 (26.7)	454 (15.7)	213 (7.4)	133 (4.6)	59 (2.0)	2,886 (100.0)
1988	1,257 (43.6)	770 (26.7)	454 (15.7)	213 (7.4)	133 (4.6)	59 (2.0)	2,886 (100.0)
1989	1,257 (43.6)	770 (26.7)	454 (15.7)	213 (7.4)	133 (4.6)	59 (2.0)	2,886 (100.0)

특히, 農業構造改善의 一環으로 추진되고 있는 農地購入資金은 施設園藝, 果樹, 畜産 등 所得作目이 도입되기 어려운 米作地帶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3. 生産構造 改善

#### 가. 生産構造 改善의 意義

農業從事者의 소득이 非農業分野 從事者의 소득에 비해 낮은 요인은 勞動生産性 격차와 農家交易條件의 악화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소득은 1일 혹은 시간당 소득을 의미한다. 연간 소득을 비교할 때는 양자간에 勞動日數가 같다는 前提가 만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現實的으로 非農業分野의 연간 勞動日數는 300일에 가깝고 農業勞動日數는 150여일에 불과하다. 兩者間에 勞動日數가 같다고 해도 勞動生産性 격차로 所得 隔差가 심화되는데 勞動日數마저 차이가 크나 兩者間의 소득격차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農業所得을 높이기 위해서는 農業勞動生産性도 제고시키고 연간 勞動日數도 늘일 수 있도록 營農組織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生産構造 改善이라 한다. 즉, 時間當 報酬를 높이고 연간 勞動日數를 늘일 수 있도록 農家の 營農組織을 改善해야만 연간 農業所得을 증가시킬 수 있다.

生産構造 改善方案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農産物의 需要構造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經濟成長과 더불어 實質所得이 증가하면 食品消費패턴이 「高級化」, 「多樣化」, 「社會化」되어 나간다. 高級化란 영양공급원이 전분질 食品에서 動物性 食品으로 바뀌고 高級菜蔬類와 果實類의 소비가 증가해 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97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食品消費패턴의 高級化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한편 多樣化란 소비하는 食品의 종류가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쌀을 主食으로 해 온 國家(米産米食國)에는 高級化와 동시에 일어난다. 米産米食國家에서 食品消費패턴이 「高級化」, 「多樣

化」로 가는 것을 보면 西歐社會의 食品消費패턴을 밟아가는 경향으로 이를 통상 「洋風化」라 한다.

「社會化」란 加工食品과 外食費의 支出額이 많아지는 현상을 뜻하는데 經濟成長과 더불어 食品加工産業이 발달해 가는 것은 비로 이러한 「社會化」가 진행되어 가기 때문이다.

食品消費構造가 변하면 여기에 부응하여 生産構造도 조정되어야 한다. 實質所得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農産物을 成長農産物, 수요가 감소하는 농산물을 衰退農産物이라 각각 칭한다. 農業生産構造改善이란 농가의 전통적인 生産組織이 成長農産物과 결합된 조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말한다.

앞 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慶南의 農業生産構造는 經濟成長에 부응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되고 改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역 간에는 生産構造改善의 격차가 크다고 할 수도 있다.

#### 나. 所得增大 作目 開發

農家 生産組織을 改善할 때는 상대적으로 收益性이 높은 작목으로 대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比較優位가 있는 작목이므로 그 지역에 생산이 특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前章에서 분석한 각 지역의 特化作目은 所得增大作目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開放經濟體制下에서는 소득증대작목은 가능하다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經濟成長과 더불어 수요가 증가하는 成長農産物일 것.

둘째, 되도록이면 수입하기 어려운 작목일 것.

셋째, 國際商品인 農産物일 경우에는 우리 나라가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는 품목일 것.

넷째, 地域의 自然條件, 賦存資源의 存在量, 技術條件 및 立地條件 등에 의해 타지역에 비해 絶對優位 혹은 比較優位가 있는 품목일 것.

慶南의 地域特化作目은 開放經濟를 전제하여도 所得增大 戰略作目的

로 남게 된다. 즉, 江邊地域의 施設園藝作目, 山間地帶의 養蠶, 도서지역의 유자와 마늘, 南部 慶南地域의 단감 등은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각 지역의 特化作目은 그 地域의 所得增大 戰略作目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特化作目에 대해서는 前章에서 고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누락된 전략작목에 대해서만 고찰해 본다.

### ① 施設花卉 生産擴大

慶南은 立地條件으로 볼 때 相對的으로 施設園藝生産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에 따라 前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施設園藝의 主要作目은 각 지역의 特化作目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런데 施設園藝중 花卉類가 特化作目으로 정착되어 있는 地域이 적다. 經濟成長과 더불어 花卉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花卉는 주요한 所得增大 戰略作目이다.

表5-5에는 施設花卉類의 재배면적이 각 地域別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慶南의 施設花卉 재배면적은 總 247.6ha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切花類가 80.9%를 차지하고 있다. 切花類 중에서 국화의 栽培面積이 99.6ha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안개초인데 재배면적은 27.7ha이다.

花卉類 재배면적은 몇 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즉, 金海市의 재배면적은 61.3ha로 慶南 全體 花卉面積의 24.7%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馬山市인데 재배면적은 43ha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施設花卉는 金海郡, 金海市, 馬山市, 昌原市에 집중되어 있는데 4개 지역의 총면적은 慶南 全體面積의 70.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품목이 상이하다. 金海郡에는 카네이션이 특화품목이다. 즉, 金海郡의 施設花卉規模는 61.3ha인데 카네이션 재배면적이 25.5ha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다. 金海市에는 국화, 카네이션이 특화되어 있고 국화 栽培面積은 17.0ha로 花卉面積의 39.5%를 차지하고 있고 카네이션이 施設花卉 재배면적에서 차지

表 5-5 地域別 施設花卉 栽培面積, 1988

單位: ha

	절 화 류						분화류	구근류	화목류	합 계	
	국 화	카 네 이션	장 미	안개초	글라디올러스	기 타					소 계
창원시	17.7	-	-	-	-	0.3	18.0	1.7	2.2	1.3	23.2(9.3)
울산시	0.5	-	-	0.6	-	-	1.1	0.2	0.2	0.1	1.6(0.7)
마산시	41.0	-	-	-	-	-	41.0	-	-	7.0	48.0(19.3)
진주시	-	-	-	-	-	-	-	0.9	-	20.9	21.8(8.7)
진해시	0.4	-	-	-	-	-	0.4	0.1	-	-	0.5(0.2)
충무시	-	-	-	-	-	-	-	-	-	-	-
삼천포	0.6	-	-	0.1	0.3	0.3	1.3	1.3	-	4.2	6.8(2.7)
김해시	17.0	13.8	0.6	3.5	1.5	5.2	41.6	1.0	0.2	0.2	43.0(17.3)
진양군	0.8	-	-	-	-	-	0.8	-	-	-	0.8(0.4)
의령군	0.5	0.5	-	-	-	-	1.0	-	0.4	-	0.5(0.2)
함안군	-	-	-	-	-	-	-	-	-	-	-
창녕군	1.0	-	-	0.1	-	0.1	0.1	1.2	-	-	1.2(0.5)
밀양군	1.5	-	-	-	-	-	1.5	-	-	0.3	1.8(0.7)
양산군	-	-	-	-	-	-	-	-	-	-	-
울주군	1.1	-	-	-	-	0.1	1.2	-	0.6	-	1.8(0.7)
김해군	9.0	25.5	7.9	10.9	2.4	2.8	58.5	0.7	2.0	0.1	61.3(24.7)
의창군	4.4	-	3.6	10.0	-	5.0	23.0	-	-	-	23.0(9.2)
통영군	-	-	-	1.5	-	-	1.5	-	-	-	1.5(0.6)
거제군	-	-	-	-	-	-	-	-	-	-	-
고성군	-	-	-	-	-	-	-	1.0	-	2.2	8.3(3.3)
사천군	3.4	-	-	-	-	1.7	5.1	-	-	-	-
남해군	-	-	-	-	-	-	-	-	-	-	-
하동군	0.1	-	-	-	-	0.1	0.2	-	-	-	0.2(0.1)
산청군	0.4	-	-	-	-	-	0.4	-	-	-	0.4(0.2)
함양군	-	-	-	-	-	-	-	-	-	-	-
거창군	-	-	-	-	-	-	-	-	-	-	-
합천군	0.2	-	-	1.0	0.1	0.6	1.9	-	-	-	1.9(0.8)
합 계	99.6 (4.3)	39.8 (40.3)	12.1 (4.9)	27.7 (11.2)	4.3 (1.8)	6.2 (6.6)	199.7 (80.9)	6.9 (2.8)	5.6 (2.3)	36.3 (14.0)	247.6 (100.0)

資料: 경상남도 잠업특작과.

하는 비율은 32.1%에 이르고 있다. 馬山市와 昌原市에는 국화가 특화되어 있다.

慶南과 釜山市의 花卉 栽培面積이 증가함에 따라 嶺南花卉協同組合이 결성되었고 金海市에 花卉共販場이 개설되어 왔는데, 근대적인 施設이 갖추어진 共販場을 신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慶南地域에서 생산되는 花卉類는 이곳에서 거래되므로 生産者들에게 유리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花卉類 販賣의 애로요인이 해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慶南內의 施設園藝 主産地에는 花卉類 生産을 확대해 나갈 것이 요망된다. 특히, 立地條件上으로 유리한 義昌郡에 花卉類 재배면적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馬山市와 昌原市에는 都市가 확대됨에 따라 花卉類의 재배면적이 축소되어 갈 것인데, 이곳의 花卉農家가 義昌郡으로 移動해 가면 花卉栽培技術이 이웃에 전파되어 재배면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行政上의 金融支援이나 技術指導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② 施設 菜蔬類 生産調整

施設園藝作目は 다양하지만, 前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각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품목이 다르다. 그런데 施設園藝作目は 特定地域에 特定品目이 정착될 때까지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즉, 初期에는 技術粗放의이고 勞動集約의이며 土地利用型 作目에서 출발하여 나중에 가장 유리한 작목을 특화시킨다.

施設園藝 중에서 葉菜類는 상대적으로 技術粗放의이고 土地利用型이며 이에 따라 수익성이 낮다. 반면에 花卉類는 高度의 技術을 요하고 收益성이 높다.

慶南內에서 施設園藝의 發祥地는 金海市와 金海郡인데 처음에는 葉菜類에서 시작하여 技術이 축적된 이후에는 葉菜類를 後發地域에 넘겨주고 施設果菜類를 도입하여 특화시켰고 近年에 와서는 果菜類 面積이 줄고 花卉를 도입하여 특화시켰다. 施設果菜類는 洛東江 地域 내지 南

江 流域의 平野地帶에 확산되어 있다.

果菜類를 도입할 때도, 상대적으로 技術粗放的이고 위험부담이 적은 품목을 도입하는데 주로 딸기가 이 품목에 해당한다. 果菜類의 栽培技術이 축적되면 고도의 技術을 요하는 果菜類를 도입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果菜類를 결합시킨다. 果菜類가 잘 결합된 地域이 晋州市이다.

그런데 施設花卉의 栽培面積을 확대해 나가면 施設菜蔬類의 主産地域이 재조정되어 갈 것이다. 施設園藝의 栽培技術이 축적되어 果菜類를 특화시킨 지역에는 施設花卉 栽培面積이 확대될 것이다. 葉菜類나 技術粗放的인 果菜類는 지금까지 施設園藝를 재배하지 않던 지역으로 확산되어 갈 것이다. 施設園藝 面積이 확대되어 나갈 지역은 宜寧郡, 陝川郡,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신규로 시설원예를 도입하는 지역에는 행정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 ③ 養蠶 開發

洛東江 및 南江 기타 江邊 堆積 平野地帶에는 施設園藝가 主要 所得作目으로 도입되어 特化作目으로 정착되었다. 이에 따라 農産物生産 構造도 改善되어 農業所得增大도 가져왔다.

그런데 西部 慶南의 山淸, 咸陽, 居昌郡에는 在村農外就業機會도 낮고 農業基盤與件이 불리하여 施設園藝를 도입하기 어렵다. 다행히 居昌郡에는 사과가 所得作目으로 도입되어 있으나 栽培農家戶數는 많지 않다. 이러한 農業立地條件 때문에 養蠶이 주요한 소득작목으로 특화되어 있다.

養蠶은 單位時間當 勞動報酬는 높지만 育蠶期間이 水稻作 移秧과 중복되어 家族勞動力の 苦痛을 수반한다. 이에 따라 經濟成長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桑田面積과 養蠶生産量은 격감해 왔고 養蠶은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경영되고 있다. 養蠶生産量으로 볼 때 慶南의 山淸郡이 全國 第1位이고 咸陽郡이 第2位이다. 이러한 사실은 上記 2개 郡에는 養蠶外에는 소득작목을 도입하기 어렵고 生産構造改善에는 한계가 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表 5-6에는 山淸郡에서 養蠶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養蠶指標가 제시되어 있다. 農家戶數가 감소함에 따라 養蠶農家도 감소하였지만 1987년 현재 총농가에서 차지하는 養蠶農家の 比率은 35.1%에 달하고 있다. 한편 戶當 桑田面積도 2反步에 달하고 戶當 소잠량도 3.3상에 달한다. 이것은 養蠶이 농가소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한편 表 5-7에는 咸陽郡의 蠶業指標가 제시되어 있다. 1985년 현재 蠶業農家は 總農家の 31.9%를 차지하고 있고 戶當 桑田規模는 2.6反步에 달하고 있다. 山淸郡과 마찬가지로 咸陽郡에서는 養蠶이 農家經濟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西部 慶南의 농가에는 養蠶이 중요한 소득작물임에도 불구하고 戶當 養蠶規模는 영세하고 근대적인 經營體系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의 근본원인은 農家勞動力 감소라 할 수 있으나 農家勞動力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養蠶體系를 갖추어야 한다.

캐리아 蠶室을 확충하여 稚蠶供給을 확대하여야 하고 條桑育이 가능하도록 비옥한 땅에 밀식 桑田을 造成하여야 한다. 아울러 條桑育 專用 蠶室을 설치하여 勞動節約的인 養蠶體系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물론 財政的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희망하는 농가에 한하여 支援하여야 할 것이다.

表 5-6 山淸郡의 蠶業指標, 1975~87

	총 농가 호수 (A)	양잠농가 호수 (B)	B/A×100 (%)	잠견생산 량 (M/T)	호당상전 면적(10a)	호당소잠 량 (상자)	10a당소잠 량 (상자)
1975	15,015	7,522	50.1	685	1.8	2.9	1.66
1980	12,889	6,566	50.9	579	1.8	2.7	1.55
1983	12,393	5,080	41.0	471	1.6	3.9	2.49
1985	11,922	4,590	38.5	442	1.8	3.4	1.94
1987	11,109	3,896	35.1	379	1.9	3.7	1.90

資料: 山淸郡 産業課.

### 다. 限界農地 開發

經濟成長과 더불어 農村勞動力이 非農業分野로 流出됨에 따라 農村勞賃이 상승하게 되고 여기에 부응하여 營農機械化가 進行되어 왔다.

그런데 農地의 基盤條件이 열악한 농지에는 農作業의 機械化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生産費가 상승되었다. 이러한 農地를 限界畓 혹은 限界田이라 한다. 慶南內의 山間地帶에는 限界農地가 많은데 이들 한계농지를 耕作하고 있는 농가는 所得水準을 기준으로 할 때 限界農家이다. 이들 限界農家の 所得問題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쌀 生産過剩問題가 대두되면 水稻 植付面積을 줄여 나가야 하는데, 單位當 生産費가 높은 畓부터 植付面積을 제한하는 것이 주어진 資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山間地帶의 限界農地는 轉用的 機會가 거의 없고 이를 耕作하고 있는 농가도 非農業分野에 就業할 수 있는 機會가 없다. 반면에 平野地帶의 비옥한 논은 轉用的 機會가 높다. 그러므로 植付面積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支持價格 水準을 인하하면 優良農地부터 水稻栽培에서 탈락된다.

表 5-7 咸陽郡의 蠶業指標, 1970~85

年度	總 農 家	養蠶農家	B/A×100	蠶繭生産	戶當桑田	戶當掃蠶	10a當
	戶數 (A)	戶數 (B)	(%)	量(M/T)	面積(10a)	量(상자)	掃蠶量(상자)
1970	15,925	9,591	60.2	364	1.50	1.7	0.46
1975	15,325	9,333	60.9	629	2.18	1.7	0.60
1980	13,441	7,261	54.0	543	2.03	1.4	0.73
1981	13,751	6,813	49.5	411	2.12	1.0	1.07
1982	13,455	6,170	45.9	384	2.22	1.1	0.98
1983	13,952	6,170	44.2	365	2.21	1.2	0.87
1984	13,518	4,900	36.2	342	2.30	1.6	0.72
1985	12,650	4,039	31.9	373	2.55	1.7	0.71

資料: 咸陽郡 産業課.

그러므로 山間地帶 限界農家の 所得을 支拂하고 水稻의 植付面積을 효율적으로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限界農地 開發을 전개해 나갈 것이 요망된다.

첫째, 限界畝를 주위의 밭 혹은 山地와 연계시켜 農地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물론 開發費用은 전액 보조로 할 것이 요망된다.

둘째, 農家の 保有勞動力, 農外就業機會, 地域의 特化作目 등을 고려하여 所得增大 作目の 主産團地를 조성한다.

셋째, 개발한 主産團地內에 農地를 소유하고 있지만, 所得作目を 재배하지 않는 農家の 農地를 매입하여 개발하고 희망농가에 賣却 또는 賃貸한다.

넷째, 限界畝를 개발하여 식재할 작목으로는 居昌郡과 咸陽郡은 사과와 養蠶, 山淸郡은 養蠶이 각각 유리하고, 단감이 생산 가능한 지역에는 단감, 도서지역에는 유자가 유리하다. 이와 같이 각 지역별로 比較優位에 있는 特化作目を 도입한다.

다섯째, 開發費用은 전액보조하고 水稻作에서 얻는 소득이 새로 도입한 所得作目에서 얻은 소득보다 클 경우에는 그 差額을 지불해 줄 것이 요망된다.

### 3. 經濟類型別 農家育成

#### 가. 選擇的인 農家育成的 意義

農家所得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農業의 효율성을 높여 國際競爭力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農業勞動生産性을 제고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의 耕作規模를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데 短期的으로는 실현하기 어렵고 長期的인 構造改善政策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戶當耕作規模가 영세한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規模擴大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국에 비해 小農의 구성비가 더 높은 慶南의 農業構造로서는 耕作規模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短期的으로 실현 가능하고 효과가 큰 農業所得 增大方案은 農産物 價格支持와 農産要素補助인데 開放經濟下에서는 그 한계를 수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農産物 需要構造 변화에 부응하여 生産構造를 개선해야만 農業所得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生産構造改善은 지역에 따라 한계가 크다. 小農經濟下에서 構造改善의 限界와 開放經濟下에서의 農産物 價格支持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農家所得增大를 위한 次善의 代案으로 農外所得增大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農家に 在村農外就業機會를 제공하려면 農村工業化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農村工業化는 農村人口의 都市流出을 막게 되므로 都市問題를 완화시키게 된다. 더욱이 都市勞動力이 農村地域에 유입되게 된다면 都市問題해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農村工業化를 통하여 農家が 分業化하게 되면 農業에 미치는 逆機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農家は “土地를 가진 勞動者”로 전락되고 生産手段인 農地를 財産으로서 소유하게 되며 이에 따라 賣買地價가 收益地價를 상회하고 그 隔差가 커지게 되므로 規模擴大가 어렵게 된다. 즉, 農地를 팔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아 農地流動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 專業農家が 耕作規模를 확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農業生産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어서 生産費가 상승하여 그 결과 國際競爭力이 약화된다. 한편 經濟成長과 더불어 開放經濟體制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輸入開放의 압력이 加重되고 있는데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農業이 위축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둘째, 兼業農家は 農外所得으로 家計費를 충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餘暇善用 혹은 취미삼아 營農하게 되므로 農業生産의 粗放化가 나타난다. 동시에 小規模로 耕作하는 兼業農家は 강력한 政治的 壓力團體로

행사하게 되므로 집권당은 선거에서의 得票를 걱정하여 農産物價格을 高水準에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農業生産의 효율성이 낮은 다수의 兼業農이 온존하게 되어 非效率性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셋째, 兼業農家の 生産構造는 主穀 爲主이므로 生産構造改善이 어렵다. 日本의 경우 쌀 生産過剩으로 每年 植付面積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農家當 一定比率로 제한시키게 되면 專業農家の 規模縮小도 수반되므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結果를 초래한다.

#### 나. 育成方向

農家の 兼業化에 따라 수반되는 諸問題를 해결함과 동시에 農家所得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構造改善政策과 農村工業化를 병행시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농가를 선별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外部經濟與件과 内部經營條件을 고려하고 농가의 의사를 참조하여 각 농가를 經濟類型別로 분류하여 적절하게 육성해 나갈 것이 요망된다. 農家經營構造의 판단기준과 육성해야 할 經濟類型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經濟規模가 큰 單作專門經營農家를 육성한다. 농가 중에서 ① 經營主가 청장년층인 농가와 노년층일지라도 영농후계자가 있는 경우, ② 현재 經營規模가 大農階層에 속하고, ③ 技術水準이 높고 의욕이 있으며 계속 영농하기를 희망하는 농가, ④ 평야지대의 水稻作, 산간지대의 草地利用 畜産, 果樹, 養豚, 養鷄 기타 特作分野 등의 작목을 營農하는 농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基準에 해당하는 農家에는 農地買入資金, 施設支援資金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둘째, 經營規模가 中規模인 複合經營農家를 육성한다. 여기서의 複合營農이란 두 作目 이상이 결합된 다각영농이나, 각 작목의 商品化率이 50% 이상인 경우로 定義한다. 農家 중에서 ① 耕作規模가 中規模에 속하고, ② 經營主의 연령계층으로 보아 農外就業할 수 없거나, 취

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短期에는 就業機會가 확대될 가능성이 적은 농가, ③ 立地條件으로 보아 單作經營으로 轉換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農家は 成長作目이나 地域特化作目으로 결합된 複合營農類型으로 개선시킨다. 뿐만아니라 家族勞動力의 시간당 報酬가 機會報酬보다 높고 아울러 年間 農業勞動日數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生産組織體系를 개선시킨다. 물론 이 複合經營農家 중에서 長期的으로는 農業에서 탈락되거나 農外就業하여 兼業할 農家도 증가할 것이다.

셋째, 小規模로 경영하는 兼業農家を 육성한다. 經營主가 農外就業하게 되면 農外就業分野와 農業經營分野에 勞動力을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勞動力 配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작목은 水稻作과 기타 特作이나 自家消費用 農作物이고 經營規模는 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農外就業이 가능한 地域에서 經營規模가 영세한 經營主는 農外就業하도록 유도한다. 물론 이러한 經營主에 대해서는 農外就業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職業訓練을 이수하도록 지도한다. 咸安郡 군북면은 水稻作 地域인데 農工地區가 조성되어 水稻作과 農外就業이 결합된 農家類型으로 정착되어 農家所得問題가 해결되고 있다. 農外就業機會가 없는 地域에서 농가의 農外所得을 증대시킬 수 있는 方案은 農業外 事業을 兼業하는 것이다.

넷째, 農外就業하고 탈농하기를 원하는 농가는 在村脫農을 유도하고 우선적으로 非農業分野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다. 탈농할 때는 農地를 賣却하거나 유능한 젊은 經營主에게 賃貸하도록 지도한다.

다섯째, 營農後繼者가 없고 經營主가 고령인 農家は 福祉政策 對象 農家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농가들은 農耕地를 粗放的으로 이용하고 있어 農業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런 類型에 속하는 農家は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社會政策的인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養老施設을 갖춘 綜合福祉會館의 建立은 都市地域보다 農村地域이 절박한 실정이다.

#### 다. 地域別 營農類型

第2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慶南은 戶當 耕作規模가 영세하고 아울러 小農과 中農階層의 구성비가 높은 農業構造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二毛作 地帶로서 氣象條件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江邊堆積平野地帶가 많아 施設園藝의 栽培適地이다. 반면에 구릉지대가 적어 草地開發 適地가 적고 冬節期에는 降雪量이 적어 草地生産에는 불리한 條件이다. 이에 따라 草地畜産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한편 都市化와 工業化 수준은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第2章의 表2-10에서 본 바와 같이 兼業農家의 比率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

그러나 慶南內에서는 지역에 따라 農村工業化의 수준의 격차가 크다. 東部 慶南지역에는 농촌 工業化水準이 가장 높고 이에 따라 農家의 農外就業機會도 높다. 반면에 西部 慶南地域에는 농가의 農外就業機會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農家가 처한 外部經濟條件과 內部經營條件을 고려하여 각 地帶別, 나아가 각 郡別로 농가를 적절한 經濟類型으로 분류하여 육성해 나가야 한다.

慶南에는 전지역을 통하여 大規模의 單作專門經營農家 혹은 米作專門經營農家를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畜産專門經營農家は 東部 구릉지대인 深山郡과 蔚州郡에 분포되어 있는데, 農村工業化와 더불어 酪農專門農家戶數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養豚과 養鷄農家は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西部 慶南 山間地帶에는 1980년대에 육성한 草地利用 畜産農家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草地의 一部를 飼料圃로 이용하여 粗飼料를 생산하고 濃厚飼料에도 의존하는 畜産經營形態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米作專門經營農家は 金海市, 金海郡, 義昌郡, 咸安郡의 일부 水稻作

地域에서 출현될 가능성이 높다. 施設園藝를 경영할 수 없거나 경영하지 않는 農家は 耕作規模가 큰 米作經營農家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농가에 農地購入資金을 우선적으로 支援해 나갈 것이 요망된다.

慶南內에서 가장 일반적인 영농유형은 複合營農類型이다. 江邊堆積地帶가 많아 施設園藝作目이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다. 洛東江 流域인 金海市와 金海郡, 그리고 義昌郡에는 水稻+施設花卉 혹은 水稻+施設果菜類로 결합된 經營類型의 농가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洛東江 流域인 昌寧郡, 密陽郡에는 水稻+施設果菜類의 유형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 요망된다.

南江 流域인 晉陽郡에는 水稻+施設果菜類의 유형으로 정착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을 인근지역인 宜寧郡과 咸安郡, 陝川郡에 확산시켜 나갈 것이 요망된다.

慶南內에서 生産構造改善의 한계가 크고 營農類型開發이 어려운 지역은 施設園藝栽培가 相對的으로 불리한 山間地帶이다. 山淸郡, 咸陽郡, 巨昌郡이 대표적이라 하겠는데, 이들 지역에는 山淸과 咸陽地域에는 水稻 + 養蠶, 혹은 水稻+肥育牛의 綜合類型인 複合經營農家로 육성할 것이 요망된다. 아울러 居昌郡에는 水稻+사과, 水稻+養蠶, 水稻+肥育牛의 綜合類型인 농가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마늘 主産地域인 南海와 河東郡 一部地域에는 水稻+마늘의 複合類型으로 정착되어 있고 양파의 主産地인 昌寧郡 一部地域에는 水稻+양파의 유형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지역별로 水稻와 特化作目이 결합된 複合經營類型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 요망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慶南은 상대적으로 農村工業化의 수준이 높다. 특히, 東部圈의 地域中心都市인 蔚山市의 주변 農村地域과 中部圈의 地域都市인 馬山市의 주변 農村地域에는 農外就業機會가 높아 兼業農家の 비율이 높다. 단지 農地基盤與件이 불리한 西部慶南 農村地

域에는 農外就業機會가 낮은 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農村工業化를 촉진시키기 위해 農工地區를 조성하고 있는데, 水稻單作地域에 있는 농가가 우선적으로 農外就業할 수 있도록 農工地區開發政策을 推進해 나갈 것이 요망된다.

## 第 6 章

### 要約 및 結論

慶南地域農業의 구조적 특수성을 규명하여 地域農業의 發展戰略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이 研究에서 도출된 研究結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慶南地域農業이 직면하고 있는 經濟的 與件을 분석하였는데, 他道에 비해 都市化 産業化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慶南內의 各 地域간에는 産業化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韓半島의 東南端에 위치하고 있어 營農立地條件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氣候條件이 유리하고 江邊堆積平野地帶가 펼쳐져 있어 施設園藝가 比較優位를 가질 수 있는 立地條件이다.

3) 全國을 기준으로 하면 慶南은 準山間畚作地帶이나 慶南內部에는 農業地帶가 다양하다. 이에 따라 地域特化作目과 營農類型이 各 地帶別로 다양하다.

4) 戶當 耕作規模가 전국 평균에 비해 영세한 典型的인 小農構造를 이루고 있으나 二毛作地帶이므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營農組織을 갖추고 있다.

5) 農地基盤擴充은 地域農業成長의 기반이라 하겠는데, 基盤擴充의 投資妥當性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였는데도 他道에 비해 耕地整理나 農

業用水開發의 進行速度가 빨랐다.

6) 農村勞賃 상승에 부응하여 農作業의 기계화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고 지역에 따라서는 過度機械化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보급된 농기계의 作業規模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中古 農機械 市場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 요망된다.

7) 經濟成長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地域農業은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食糧增産이 요청된 經濟成長 단계에서는 食糧增産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農産物의 需要構造가 변하면 여기에 탄력적으로 생산구조가 조정되면서 農業이 성장해 왔다.

8) 農地의 기반이 확충되고 농가의 生産技術이 향상되고 生産要素의 투입이 순조롭게 진행된 덕분에 農産物 전품목에 단위당 수량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近年에 와서는 성장이 둔화되었는데, 이는 土地生産性 提高보다는 勞動生産性 提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9) 草地畜産發展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立地條件이다. 草地로 개발할 수 있는 野山이 적고 冬節期에는 降雪量이 적어 草地生育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나 답리작 靑刈 粗飼料 생산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濃厚飼料에 의존하는 酪農이나 肥育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10) 1980년대에 실시한 複合營農政策의 일환으로 山地를 草地로 개발하고 韓牛 혹은 乳牛를 입식한 농가가 다수이었는데, 소값 파동으로 축산을 포기하고 草地를 방치한 사례가 급증하였다.

11) 養豚과 養鷄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전통적인 飼育體系에서 탈피하여 근대적인 經營形態로 발전해 가고 있다.

12) 農産物 需要構造에 대응하여 農産物 生産構造改善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衰退作目인 食糧作物 식부면적은 감소해 왔고 成長農産物의 작부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3) 經濟的 立地條件, 營農條件, 技術水準 등의 要因에 의해 각 지역별로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는 작목이 특화되어 있다. 江邊地域에는

施設花卉와 施設果菜類의 특화도가 높고 山間地帶에는 養蠶의 특화도가 높다.

14) 市場條件이 변하고 栽培技術이 성숙됨에 따라 특화작목도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특히, 施設園藝作物에서는 栽培技術이 특화작목 決定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初期段階에서는 技術粗放의이고 勞動集約的인 施設菜蔬類에 특화하였다가 技術이 성숙되면 技術集約的인 施設果菜類나 施設花卉를 特化作目으로 정착시켰다.

15)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는 作目を 특화시키고 商品差別化를 실시하여 農家 受取價格을 높이고 있는 地域이 다수 나타났는데, 타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慶南地域農業을 규제하는 生産基盤條件과 農業構造上的 특수성을 바탕으로 地域農業의 發展戰略을 모색해야 한다.

각 地帶別 혹은 地域別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작목을 所得增大 戰略作目으로 도입하여 농가의 生産構造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慶南地域에는 所得增大戰略作目を 개발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江邊地域에는 施設花卉 혹은 施設果菜類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山間地域에는 養蠶이나 畜産 이외의 所得作目を 도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限界畝를 개발하여 桑田을 조성하고 勞動生産性을 높일 수 있는 養蠶 經營體系를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農家所得問題도 해결하고 農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가를 選別的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 요망된다. 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農外就業 機會, 農家の 內部經營條件, 地域의 특화작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經濟類型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慶南地域에서 바람직한 農家類型은 규모가 큰 米麥 혹은 畜産專門經營農家, 水稻와 所得作目이 결합된 複合經營農家, 水稻作과 농외취업이 결합된 兼業農家 등이다. 複合經營農家和 兼業農家를 육성해 나가기에 유리한 經濟構造 및 農業構造를 갖추고 있다.

附表 1 慶南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시설참외, 감	양파, 시설 토마토, 시설오이, 산양	
주 산	밀, 시설고추	대맥, 고구마, 시설 화훼류, 소, 돼지	양배추, 시설상치, 포도
비특화		배, 토끼	수도, 대두, 소두, 감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마늘, 옥수수, 땅콩, 참깨, 들깨, 담배, 시설쑥갓, 사과, 복숭아, 잣소, 닭, 꿀벌

附表 2 馬山市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시설 토마토, 시설오이, 시설화훼류, 배, 복숭아, 포도, 감	양배추	김장배추, 양파
주 산		대맥	
비특화		밀	수도, 대두, 소두, 감자, 고구마, 고추, 마늘, 참깨, 들깨

附表 3 晋州市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197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김장배추, 양배추, 시설 토마토, 시설오이, 시설참외, 화훼류, 배, 복숭아	고구마, 김장무	
주 산	감	밀	대맥, 양파, 포도
비특화			수도, 대두, 소두, 감자, 고추, 마늘, 옥수수, 참깨, 들깨, 사과

附表 4 鎭海市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197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고구마, 양파, 양배추, 시설 토마토, 시설상치, 배	김장배추	복숭아
주 산	감	대맥	김장무
비특화	밀	마늘	수도, 대두, 소두, 감자, 고추, 참깨, 들깨

附表 5 忠武市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고구마, 김장무, 김장배추, 양파, 양배추, 시설 토 마토	마늘	
주 산		대맥, 들깨	
비특화		참깨	수도, 대두, 소두, 감 자, 고추, 밀, 옥수수

附表 6 三千浦市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양파, 포도		
주 산	대맥	고구마	마늘, 양배추
비특화		밀, 시설 토마토, 감	수도, 대두, 소두, 감 자, 김장무, 김장배 추, 고추, 참깨, 들 깨, 시설오이, 배

附表 7 咸安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감		
주 산	시설참외	대맥, 참깨, 시설오이, 포도, 소	김장무, 땅콩, 시설고추, 산양, 꿀벌
비특화	밀, 복숭아	김장배추, 닭	수도, 대두, 소두, 감자, 고구마, 고추, 양파, 마늘, 옥수수, 양배추, 들깨, 담배, 시설 토마토, 사과, 배, 젓소, 돼지, 토끼

附表 8 昌寧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양파, 시설고추	땅콩, 양배추, 시설오이	
주 산	밀	대맥, 김장무, 고추, 참깨, 소	시설참외
비특화	감	김장배추, 마늘	수도, 대두, 소두,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들깨, 담배, 시설 토마토,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젓소, 돼지, 산양, 토끼, 닭, 꿀벌

附表 9 義昌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197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양파, 감	시설오이	포도
주 산	시설참외	수도, 대맥, 밀, 화 훼류	시설 토마토, 복숭아, 소, 산양, 닭
비특화			대두, 소두, 감자, 고 구마, 김장무, 김장배 추, 고추, 마늘, 옥수 수, 땅콩, 양배추, 참 깨, 들깨, 사과, 배, 젓소, 돼지, 토끼, 꿀 벌

附表 10 泗川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197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산양	시설참외
주 산	밀, 감	대맥, 고구마, 참깨	수도, 돼지, 꿀벌
비특화		소	대두, 소두, 감자, 시 설무, 시설배추, 고 추, 양파, 마늘, 옥수 수, 땅콩, 들깨, 담 배, 시설고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젓 소, 토끼, 닭

附表 11 宜寧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양파	땅콩	
주 산	대맥	참깨, 소	고구마, 고추, 시설참외, 시설고추, 돼지
비특화	밀	김장배추, 양배추, 감, 토끼	수도, 대두, 소두, 감자, 김장무, 마늘, 옥수수, 들깨, 담배, 시설 토마토, 시설오이, 배, 복숭아, 포도, 잣소, 산양, 닭, 꿀벌

附表 12 密陽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시설 토마토, 시설고추, 복숭아, 포도, 감	시설상치, 산양	시설참외
주 산	밀	대맥, 김장배추, 소	김장무, 양파, 양배추, 꿀벌
비특화		감자	수도, 대두, 소두, 고구마, 고추, 마늘, 옥수수, 땅콩, 참깨, 들깨, 담배, 시설오이, 사과, 배, 잣소, 돼지, 토끼, 닭

附表 13 蔚州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배		산양
주 산	밀	수도, 대맥, 소, 젓소, 닭	복숭아, 포도, 꿀벌
비특화		감	대두, 소두, 감자, 고구마,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양파, 마늘, 옥수수, 참깨, 들깨, 시설상치, 사과, 돼지, 토끼

附表 14 固城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산양	
주 산	대맥	고구마, 소	수도, 꿀벌
비특화	밀, 감	참깨	대두, 소두, 감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마늘, 양파, 옥수수, 땅콩, 양배추, 들깨, 담배, 시설 토마토, 시설오이, 시설고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젓소, 돼지, 토끼, 닭

附表 15 河東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197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산양	시설오이
주 산	밀	수도, 대맥, 고구마	감자, 소, 돼지, 꿀벌
비특화	감		대두, 소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마늘, 양파, 옥수수, 땅콩, 양배추, 참깨, 들깨, 담배, 시설 토마토, 시설상치, 시설고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잣소, 토끼, 닭

附表 16 咸陽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197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주 산	산양	대맥, 감자, 양파, 마늘, 밀, 담배, 돼지	감, 꿀벌
비특화		들깨, 토끼	수도, 대두, 소두, 고구마,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옥수수, 땅콩, 양배추, 참깨, 시설토마토,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소, 잣소, 닭

附表 17 居昌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돼지	대두
주 산	밀	대맥, 소두, 감자, 담배, 소	꿀벌
비특화	사과, 토끼	산양	수도, 고구마, 김장 무, 김장배추, 고추, 마늘, 양파, 옥수수, 땅콩, 양배추, 참깨, 들깨, 시설 토마토, 시설오이, 시설상치, 시설고추, 배, 복숭아, 포도, 감, 젓소, 닭

附表 18 陝川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돼지	땅콩	
주 산	대맥, 밀	참깨, 소	
비특화	대두	꿀벌	수도, 소두, 감자, 고 구마, 김장무, 김장배 추, 고추, 마늘, 양 파, 옥수수, 들깨, 담 배, 시설고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젓소, 산양, 토 끼, 닭

附表 19 巨濟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고구마, 산양	마늘	
주 산		대맥	소, 돼지
비특화	밀, 감	양파, 양배추, 참깨	수도, 대두, 소두, 감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옥수수, 땅콩, 들깨, 배, 복숭아, 잣소, 토끼, 닭, 꿀벌

附表 20 南海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70 \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고구마, 마늘, 산양		
주 산	대맥, 밀		토끼
비특화		양파, 감, 소	수도, 대두, 소두, 감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양배추, 참깨, 들깨, 복숭아, 포도, 잣소, 돼지, 닭, 꿀벌

附表 21 統營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197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고구마, 마늘, 산양		
주 산	대맥	옥수수, 소	
비특화		감	수도, 대두, 소두, 감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양파, 밀, 양배추, 참깨, 들깨, 시설오이, 시설고추, 복숭아, 포도, 돼지, 토끼, 닭, 꿀벌

附表 22 山淸郡 第1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197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돼지	
주 산	밀	수도, 대맥, 감, 소, 산양	감자, 꿀벌
비특화	토끼		대두, 소두, 고구마,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마늘, 양파, 옥수수, 땅콩, 양배추, 참깨, 들깨, 담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닭

附表 23 慶南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8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밀, 시설고추, 감		시설참외
주 산	대맥, 시설딸기	고구마, 양파, 상치, 시금치, 노지수박, 시설 토마토, 시설오이, 시설무, 배, 산양, 시설화훼류	소, 돼지, 토끼
비특화	노지토마토, 노지 딸기	감자, 노지오이, 노지참외	수도, 대두, 소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마늘, 옥수수, 땅콩, 봄무, 봄배추, 양배추, 참깨, 들깨, 시설배추, 시설상치, 사과, 복숭아, 포도, 잣소, 닭, 오리, 꿀벌

附表 24 馬山市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8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상치, 시설 토마토, 배, 복숭아, 감, 시설화훼류	포도	
주 산	대맥, 밀	시금치	봄무, 봄배추
비특화		대두, 고구마	수도, 소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마늘, 노지수박, 참깨

附表 25 蔚山市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8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시금치, 배	상치, 노지토마토	김장배추, 고추, 봄 무, 봄배추
주 산	고구마, 시설무, 시설배추	수도	양배추, 노지오이, 노 지딸기, 감
비특화	시설상치	대두, 시설토마토	대맥, 소두, 감자, 고 추, 양파, 마늘, 노지 수박, 노지참외, 참 깨, 들깨, 시설오이, 복숭아, 포도

附表 26 昌原市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8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노지토마토, 포 도, 감, 시설화훼	상치	
주 산		대맥, 시금치	수도, 시설배추, 복숭 아
비특화	대두	소두, 고구마	김장무, 김장배추, 고 추, 마늘, 봄무, 봄배 추, 노지수박, 참깨, 배

附表 27 鎮海市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고구마, 양파, 상 치, 노지토마토, 시설 토마토, 시 설상치, 감	시금치	양배추, 배
주 산	대맥		김장배추, 마늘, 봄 무, 봄배추
비특화	노지오이	대두	수도, 소두, 감자, 김 장무, 참깨, 복숭아

附表 28 忠武市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고구마, 양파, 시 금치, 감	김장무, 김장배추, 봄무, 상치	봄무, 시설화훼
주 산	대맥	참깨	마늘
비특화	대두, 감자, 노지 오이	소두, 고추	수도

附表 29 三千浦市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8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대맥, 시설무, 포도	양파	
주 산	고구마, 시설 토마토	시설배추, 감	상치, 시금치, 시설상치
비특화	시설화훼	대두, 소두, 배	수도, 감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마늘, 봄무, 봄배추, 양배추, 노지오이, 노지수박, 참깨

附表 30 咸安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8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노지수박, 시설참외, 복숭아, 감		
주 산	대맥, 포도		김장배추, 시금치, 참깨, 시설오이, 소, 닭
비특화		대두, 고구마, 노지참외	수도, 소두, 감자, 시설무, 고추, 양파, 마늘, 옥수수, 땅콩, 봄무, 봄배추, 양배추, 상치, 노지토마토, 노지오이, 노지딸기, 시설 토마토, 시설무, 시설배추, 시설고추, 사과, 배, 젓소, 돼지, 산양, 토끼, 오리, 꿀벌

附表 31 金海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노지토마토, 노지 참외, 노지딸기, 시설 토마토, 시 설오이, 시설딸기, 시설배추, 감, 시 설화훼, 돼지	상치, 시설참외, 시 설무, 닭	양배추, 시설상치
주 산	감자	수도, 김장배추, 복 숭아	김장무, 봄무, 봄배 추, 시금치
비특화	노지오이	대맥, 소	대두, 소두, 고구마, 고추, 양파, 마늘, 옥 수수, 노지수박, 참 깨, 들깨, 시설고추, 사과, 배, 포도, 젓 소, 산양, 토끼, 오 리, 꿀벌

附表 32 義昌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시설참외, 감	양파	
주 산	대맥, 시설오이, 시설화훼		수도, 상치, 노지수박
비특화	시설딸기	감자, 노지토마토, 노지오이, 노지참외	대두, 소두, 고구마, 김장무, 김장배추, 고 추, 마늘, 옥수수, 봄 무, 봄배추, 양배추, 시금치, 참깨, 시설 토마토, 시설배추, 배, 복숭아, 포도, 소, 젓 소, 돼지, 산양, 토끼, 닭, 오리, 꿀벌

附表 33 泗川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감		
주 산	대맥, 고구마	시금치, 노지토마 토, 참깨, 산양	소
비특화		대두, 소두, 상치, 시설고추, 오리	수도, 감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양 파, 마늘, 옥수수, 봄 무, 봄배추, 노지오 이, 노지수박, 노지참 외, 노지딸기, 들깨, 사과, 배, 복숭아, 포 도, 잣소, 돼지, 토 끼, 닭, 꿀벌

附表 34 晉陽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시설오이, 시설고 추, 배, 감		시설참외
주 산	대맥, 고구마, 시 설딸기	참깨, 복숭아,	시설배추, 소, 산양, 오리
비특화		상치, 시금치, 노지 토마토, 꿀벌	수도, 대두, 소두, 감 자, 김장무, 김장배 추, 고추, 양파, 마 늘, 옥수수, 땅콩, 봄 무, 봄배추, 양배추, 노지오이, 노지수박, 노지참외, 들깨, 시설 무, 포도, 잣소, 돼 지, 토끼, 닭

附表 35 蔚州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8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배	상치	
주 산	대맥	수도, 시금치, 노지 토마토, 감, 소, 닭	봄무, 젓소
비특화	시설상치		대두, 소두, 고구마, 감자, 김장무, 김장배 추, 고추, 양파, 마늘, 옥수수, 봄배추, 양배 추, 노지오이, 노지수 박, 노지참외, 참깨, 시설딸기, 사과, 복숭 아, 포도, 돼지, 산양, 토끼, 오리, 꿀벌

附表 36 固城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8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대맥, 감		
주 산		시금치, 소, 산양	고구마, 참깨
비특화		상치	수도, 대두, 소두, 감 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양파, 마늘, 옥 수수, 봄무, 봄배추, 양배추, 노지토마토, 노지오이, 노지수박, 노지참외, 노지딸기, 들깨, 시설 토마토, 시 설오이, 시설고추, 사 과, 배, 복숭아, 포도, 젓소, 돼지, 토끼, 닭, 오리, 꿀벌

附表 37 河東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감		
주 산	대맥	고구마, 산양	수도
비특화		시금치, 배, 소, 꿀 벌	대두, 소두, 감자, 김 장무, 김장배추, 고 추, 양파, 마늘, 옥수 수, 봄무, 봄배추, 양 배추, 상치, 노지오 이, 노지수박, 노지참 외, 노지딸기, 참깨, 들깨, 시설 토마토, 시설오이, 시설배추, 시설상치, 시설고추, 사과, 복숭아, 포도, 젓소, 돼지, 토끼, 닭, 오리

附表 38 咸陽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산양		
주 산	대맥, 감자, 양파		마늘, 봄무, 상치, 들 깨, 돼지, 토끼
비특화	꿀벌	대두, 고구마, 시금 치	수도, 소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옥수 수, 봄배추, 양배추, 노지오이, 노지수박, 노지참외, 참깨, 시설 배추, 사과, 배, 복숭 아, 포도, 감, 소, 젓 소, 닭, 오리

附表 39 居昌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사과		봄무, 토끼
주 산	대맥	감자	소두, 봄배추, 소, 돼지, 산양
비특화		대두, 고구마, 상치, 시금치, 꿀벌	수도,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양파, 마늘, 옥수수, 땅콩, 양배추, 노지토마토, 노지오이, 노지수박, 노지참외, 참깨, 들깨, 시설무, 시설배추, 시설상치, 시설고추, 배, 복숭아, 포도, 감, 젓소, 닭, 오리

附表 40 陝川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대맥	대두	돼지
주 산		참깨, 소, 꿀벌	
비특화		고구마, 상치, 산양	수도, 소두, 감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양파, 마늘, 옥수수, 봄무, 봄배추, 양배추, 시금치, 노지오이, 노지수박, 노지참외, 들깨, 시설배추, 시설고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젓소, 토끼, 닭, 오리

附表 41 巨濟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고구마, 감	시금치, 산양	
주 산	대맥, 상치	양파, 마늘	양배추, 참깨
비특화		대두, 옥수수, 노지 토마토	수도, 소두, 감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봄무, 봄배추, 노지오이, 노지수박, 노지참외, 노지딸기, 들깨, 배, 복숭아, 소, 젓소, 돼지, 토끼, 닭, 오리, 꿀벌

附表 42 南海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0 \ 1988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대맥, 고구마, 마늘, 시금치	산양	
주 산		상치, 소	양파, 감
비특화		대두	수도, 소두, 감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옥수수, 봄무, 봄배추, 양배추, 노지오이, 노지수박, 참깨, 들깨, 시설무우, 포도, 젓소, 돼지, 토끼, 닭, 오리, 꿀벌

附表 43 統營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8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대맥, 고구마, 마 늘, 산양		
주 산		옥수수	소
비특화		대두, 소두, 참깨	수도, 감자,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노지 딸기, 돼지, 토끼, 닭, 오리, 꿀벌

附表 44 山淸郡 第2期の 特化作目 移動

1988 1980	핵 심	주 산	비 특 화
핵 심	시설무		토끼
주 산	대맥, 산양	시설배추, 소	수도, 감, 돼지
비특화	꿀벌	고구마, 상치	대두, 소두, 감자, 김 장무, 김장배추, 고 추, 양파, 마늘, 옥수 수, 봄무, 봄배추, 양 배추, 시금치, 노지토 마토, 노지오이, 노지 수박, 노지참외, 참 깨, 들깨, 시설 토마 토, 시설오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꾀 소, 닭, 오리

## 參 考 文 獻

- 姜奉淳 外, 「主要生産調整 指向作目の 地域特化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 76,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 姜正一 外, 「農業機械化事業의 長期政策方向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8
- 具在書, 「韓國農業의 地域性에 관한 研究」, 高麗大學校 國際農業資源研究所, 1967.
- 具千書 外, 「經濟作物의 主産地와 收益性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10, 1980.
- 구천서 외, 「한국농업의 地域性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0.
- 金秉鐸 外, “水稻作 機械化類型과 農機械 利用의 效率性 分析,” 「農業 研究所報」, 第20號, 慶尙大學校, 1986.
- 金聖昊 外, 「農業地帶의 設定과 作付體系」, 中間報告資料, 農水産部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3.
- \_\_\_\_\_ , 「自然條件에 대한 韓國의 農業地帶」, 中間報告資料, 農水産部 國立農業經濟研究所, 1974.
- \_\_\_\_\_ , 「價格維持와 生産調整」, 研究報告 48,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
- 金沄根, “韓國의 農業地帶에 관한 研究”, 「농업정책연구」, Vol.9. No.1.
- 金忠實, 「地域農業의 特性과 發展戰略-慶北地域 事例研究」, 研究報告 174,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
- 金厚根, “農地流動과 賃借料 形成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東國

- 大, 1986.
- 金厚根, “山地草地開發畜産의 經營實態와 改善方案,” 「論文集」 第27輯, 慶尙大學校, 1988
- 朴正根, “地域農業成長과 構造分析: 全北農業生産의 成長을 中心으로,” 「農業經濟研究」, 第19輯, 1977a.
- \_\_\_\_\_, “全北農業構造의 地域別 關聯性分析,” 「論文集」 第7輯, 全北大學校, 1976.
- \_\_\_\_\_, “全北農業生産의 成長分析,” 全北大學校 「論文集」, 第1 人文社會科學篇, 1977.
- \_\_\_\_\_, “地域農業의 巨視的 構造分析: 全北地域의 農業經營形態別 農家構成의 變化를 中心으로,” 「農業經濟研究」, 第18輯, 韓國農業經濟學會, 1976.
- 박정근 · 소순열, 「地域農業構造의 特性과 發展戰略: 全北地域農業事例」,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 潘性紈, 「韓國農業의 成長: 1918~1971」, 韓國開發研究院, 1974.
- 서기원, “地域農業 綜合開發의 意義와 必要性,” 「地域農業綜合開發: 課題와 方向」, 농협중앙회, 1985.
- 서종혁, “지역농업개발의 概念과 연구과제,” 「지역농업개발의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 徐贊基, “經營面에서 본 南韓의 農業地域區分,” 「論文集」, 第6輯, 慶北大學校 1962.
- 송삼석, “경남농업의 여건과 발전방향,” 「경남 농업기술」, 경상남도, 1990.6
- 楊尙勳, 金秉鐸, “農村工業化와 農業構造改善,” 「農業資源利用研究所報」 第22-2號, 慶尙大學校 1988.
- 柳承宇 外, 「地域農業開發을 위한 농축산물의 입지배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 李貞煥, “農業構造의 概念과 構造理論: 試論,” 「農村經濟」, 第7卷 第4

- 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 \_\_\_\_\_, “大農의 相對的 減少要因과 새로운 大農層의 形成展望,” 「農村經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 \_\_\_\_\_, “中小農의 相對的 增加原因과 農地流動化 戰略,” 「農村經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 李貞煥, 金殷淳, 「農地 및 勞動力의 流動性과 農業構造政策」,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4.
- 丁安聲, 李東鎬, “多變量分析法에 의한 地域農業의 類型化 : 全北 農村地域에의 適用,” 「農業經濟研究」, 第29輯, 1988. 12.
- 崔洋夫 外,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 연구보고 74, 1983. 12.
- \_\_\_\_\_, 「地域開發模型과 計劃 樹立에 關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7.
- 최양부, “韓國農業發展의 方向과 地域農業開發,” 「地域農業開發의 政策方向과 課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 \_\_\_\_\_, “地方化時代의 地域經濟發展과 農村經濟開發,” 「農業經濟」, 제10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7. 9.
- 成晋根, 「地域農業 構造의 特性과 發展戰略: 忠北地域農業事例」, 研究報告 174.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8. 12.
- 허신행, 「地域農業과 複合營農」,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 玄公南, 「地域農業 構造의 特性과 發展戰略: 濟州地域 農業事例」, 研究報告 174.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8. 12.
- 黃弘道, 金秉鐸, 「農工地區 開發效果의 調查研究」, 慶尙南道, 1990
- 吉田寬一, 佐藤正, 綱島不二雄, 「日本農業の課題と複合經營」, 1979.
- 酒井淳一, 「地域農業複合化의 理論と實踐」, 1981.

연구보고 174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전략 ⑨

경남 지역농업 사례

---

---

적은날 1990. 12.

펴낸날 1990. 12.

발행인 허 신 행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2-7311~5)

1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적은곳 (주)문 원 사 739-3911~4

---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